

서산의
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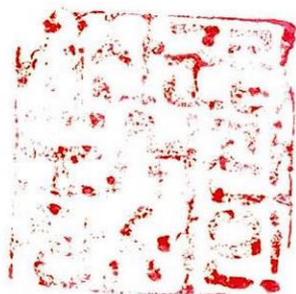
380.9
4817A
300

서산도서관

EM013200

서산문화총서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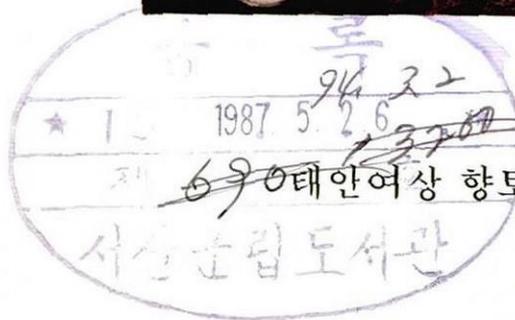
서산의 민속



박 춘 석



(박선아·박원주)



13200

태안여상 향토문화연구소

서산순립도서관

책 머리에

민속이라 하면 흔히 지나가 버린 낡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안겨줄 것인가, 이미 지나가 버린 일과성의 문화가 아니었는가 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속이란 이미 지나가 버린 낡은 구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실생활에로 그 맥이 생생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간에 이를 논할 필요없이 오늘도 마을의 화합과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부락제, 또는 고사를 지내야만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심리적 안위감, 이런 것이 바로 티없는 우리 민중의 문화요 정신이요 생활이 아니었는가?

우리 서산의 민속문화는 일찍 백제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또한 서산은 우리 한민족의 미소의 본향인 것이다.

서산마애삼존불상이 이를 실증하고 있지 않은가.

이같은 서산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르게 인식케 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산문화총서 10권을 발행함에 있어 우선 「서산의 민속」을 내놓는 것이다.

1987년 2월 일

태안여상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박 춘 석 씀

♣ 차 례 ♣

1. 사철의 풍속 13

| | | |
|------------------|----------------|----|
| (1) 봄철의 풍속..... | | 15 |
| ① 설날 · 17 | ② 설빔 · 18 | |
| ③ 차례 · 20 | ④ 세배 · 21 | |
| ⑤ 덕담 · 23 | ⑥ 성묘 · 23 | |
| ⑦ 세찬 · 24 | ⑧ 세주 · 24 | |
| ⑨ 복조리 · 25 | ⑩ 앙괭이 · 26 | |
| ⑪ 복토흙치기 · 27 | ⑫ 제웅 · 28 | |
| ⑬ 정월대보름 · 29 | ⑭ 부럼 · 30 | |
| ⑮ 귀밭이 술 · 31 | ⑯ 오곡밥 · 32 | |
| ⑰ 복쌈 · 33 | ⑱ 진채식 · 34 | |
| ⑲ 나무시집 보내기 · 35 | ⑳ 더위팔기 · 36 | |
| ㉑ 개보름 보내기 · 37 | ㉒ 나무아홉집 · 38 | |
| ㉓ 다리밟기 · 39 | ㉔ 입춘 · 39 | |
| ㉕ 머슴날 · 43 | ㉖ 콩볶기 · 44 | |
| ㉗ 노래기 퇴치 · 46 | ㉘ 경칩 · 47 | |
| ㉙ 청명 · 47 | ㉚ 한식 · 48 | |
| ㉛ 삼짇날 · 49 | ㉜ 4월 초 8일 · 51 | |
| ㉝ 봉선화 물드리기 · 53 | | |
| (2) 여름철의 풍속..... | | 56 |
| ① 단오 · 56 | ② 단오 부채 · 58 | |
| ③ 익모초 채취 · 60 | ④ 쭈 채취 · 61 | |
| ⑤ 태종무 · 62 | ⑥ 유두 · 63 | |
| ⑦ 망종 · 64 | ⑧ 삼복 · 65 | |
| ⑨ 칠석 · 67 | ⑩ 백중날 · 70 | |
| (3) 가을철의 풍속..... | | 72 |
| ① 벌초 · 72 | ② 추석 · 72 | |

- ③ 중앙절 · 75
- ④ 시제 · 75
- ⑤ 김장 · 76

(4) 겨울철의 풍속 79

- ① 동짓날 · 79
- ② 남일 · 80
- ③ 제석 · 81

2. 민속 놀이 83

- ① 가마놀이 · 85
- ② 깨끔질 싸움 · 85
- ③ 고누 · 86
 - 가) 끈질고누 나) 물래고누 다) 샘고누
 - 라) 6발고누 마) 호박고누
- ④ 공기놀이 · 90
 - 가) 수집기 나) 기동박기 다) 알낱기
 - 라) 알퐁기 마) 알까기 바) 내리기
 - 사) 술걸기 아) 불때기
- ⑤ 그림자 놀이 · 95
- ⑥ 눈싸움 · 95
- ⑦ 다리헤기 · 95
- ⑧ 딱지치기 · 96
- ⑨ 땅 빼앗기 · 97
- ⑩ 독장수놀이 · 98
- ⑪ 돈치기 · 100
- ⑫ 두꺼비집 짓기 · 101
- ⑬ 말타기 · 102
- ⑭ 바람개비 돌리기 · 103
- ⑮ 방아깨비 놀이 · 103
- ⑯ 비석치기 · 104
- ⑰ 서리 · 105
- ⑱ 수건 돌리기 · 106
- ⑲ 숨바꼭질 · 107
- ⑳ 실뜨기 · 109
- ㉑ 앞은뺨이 놀이 · 110
- ㉒ 알아맞추기 · 110
- ㉓ 연날리기 · 111
- ㉔ 엿치기 · 114
- ㉕ 자치기 · 114
- ㉖ 제기 차기 · 116
- ㉗ 줄넘기 · 116
- ㉘ 진치기 · 117
- ㉙ 뺨이치기 · 118
- ㉚ 풀묻기 · 118
- ㉛ 풀싸움 · 119
- ㉜ 활쏘기 · 119
- ㉝ 걸림 · 120
- ㉞ 갈퀴치기 · 121

- | | |
|-----------------|------------------|
| ③5 골패 · 121 | ③6 그네뛰기 · 122 |
| ③7 낫치기 · 123 | ③8 널뛰기 · 124 |
| ③9 농악 · 125 | ④0 바둑 · 127 |
| ④1 씨름 · 128 | ④2 윷놀이 · 129 |
| ④3 장기 · 132 | ④4 줄다리기 · 133 |
| ④5 벗가릿대놀이 · 135 | ④6 봉기 풍어놀이 · 139 |
| ④7 투전 · 143 | ④8 화투치기 · 144 |
| ④9 팔씨름 · 145 | ⑤0 쥐불놀이 · 145 |
| ⑤1 화류놀이 · 146 | |

3. 민속 신앙

149

- | | |
|-----------------|----------------|
| ① 객귀풀이 · 151 | ② 굿 · 152 |
| ③ 산신제 · 154 | ④ 삼신제 · 155 |
| ⑤ 서낭당 · 155 | ⑥ 용왕제 · 157 |
| ⑦ 장승제 · 158 | ⑧ 성주제 · 159 |
| ⑨ 횡수막이 · 159 | ⑩ 조왕단지 · 161 |
| ⑪ 고사 · 162 | ⑫ 고수레 · 163 |
| ⑬ 기우제 · 165 | ⑭ 동신제 · 166 |
| ⑮ 태안 중앙대제 · 168 | ⑯ 태안 노신제 · 170 |
| ⑰ 황도당제 · 173 | ⑱ 영신제 · 178 |
| ⑲ 석전제 · 181 | ⑳ 안택 · 182 |

4. 민속 의례

185

- | | |
|--------------|------------|
| (1) 관례 | 187 |
| (2) 혼례 | 189 |
| ① 의혼 · 189 | ② 납채 · 190 |
| ③ 연길 · 190 | ④ 납폐 · 191 |
| ⑤ 친영 · 191 | |

(3) 상례 (喪禮) 193

- | | |
|----------------|-------------|
| ① 임종 · 193 | ② 수시 · 193 |
| ③ 고복 · 194 | ④ 발상 · 194 |
| ⑤ 상제와 복인 · 195 | ⑥ 호상 · 195 |
| ⑦ 전 · 195 | ⑧ 부고 · 195 |
| ⑨ 습과 염 · 196 | ⑩ 수의 · 196 |
| ⑪ 습전 · 196 | ⑫ 반함 · 196 |
| ⑬ 혼백 · 197 | ⑭ 소렴 · 197 |
| ⑮ 대렴 · 197 | ⑯ 성복 · 197 |
| ⑰ 복제도 · 198 | ⑱ 조석전 · 199 |
| ⑲ 조상 · 199 | ⑳ 영결식 · 199 |
| ㉑ 발인 · 199 | ㉒ 견전 · 200 |
| ㉓ 하관 · 201 | |

(4) 제례 202

- | | |
|-------------|-----------------|
| ① 우제 · 202 | ② 사십구일제 · 203 |
| ③ 소상 · 204 | ④ 대상 · 204 |
| ⑤ 담제 · 205 | ⑥ 길제 · 206 |
| ⑦ 시제 · 206 | ⑧ 다례 · 206 |
| ⑨ 연시제 · 208 | ⑩ 절사 · 208 |
| ⑪ 이제 · 209 | ⑫ 기제 · 209 |
| ⑬ 묘제 · 210 | ⑬ 제사상 차리기 · 210 |

(5) 수연 213

(6) 현대의례 215

- | | |
|-------------|-------------|
| ① 성인식 · 215 | ② 결혼식 · 216 |
| ③ 상례 · 217 | ④ 제례 · 217 |
| ⑤ 환갑 · 218 | |

(7) 가정의례준칙 219

5. 민속 가요

231

-
- (1) 모심는 노래 233
(2) 김매는 노래 236
(3) 벼드리는 노래 238
(4) 자장가 239
(5) 아기 달래는 노래 243
(6) 시집살이 노래 244
(7) 봉기 풍어제 노래 246
(8) 기 타 247
- ① 파랑새 · 247 ② 광복군 아리랑 · 247
③ 신민요 · 248 ④ 농요 · 249

6. 점복(占卜)

251

-
- ① 율점 · 253 ② 토정비결 · 256
② 보리뿌리점 · 261 ④ 콩점 · 262
⑤ 삼점 · 263 ⑥ 돌점(石占) · 265

7. 길 조 어

269

8. 금 기 어

273

책 머리에 · 5
책 끝에 · 285

1. 사철의 풍속

- 봄철의 풍속
- 여름철의 풍속
- 가을철의 풍속
- 겨울철의 풍속



(1) 봄철의 풍속

① 설날(元日)

설이란 순수한 우리말로써 1년이 다 지나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의 아침 즉 정월 초하룻날을 일컫는 것인데, 이 날을 달리 정월명절 또는 설명절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각 지역에 따라 방언의 타인지 정월명절 설명절 음력명절 또는 음력 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서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또한 설날을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쓴다는데 이는 글자의 뜻 그대로 「삼가하는 날」이란 뜻이다. 삼가한다는 것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몸가짐을 조심하여 근신한다는 말이다.

1년을 다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의 새아침에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면서 새해의 설계와 희망을 품고 만사형통의 기대 속에 새출발하는 날이니 몸가짐을 조심하고 자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설날은 옛부터 지켜져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

서산의 민속

통문화의 하나로서 이 날엔 빈부귀천 없이 모두 자신의 생활 형편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조상께 차례(茶禮)를 지낸다.

설날엔 멀리 각처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미리 준비하여 놓은 음식을 나누며 오손도손 즐기고 담소하면서 숭조사상(崇祖思想)을 복돋워 나가는 이 아름다운 정경은 우리 민족만이 간직하여 오는 고유의 미풍양속인지도 모른다.

이와 더불어 설과 연관된 풍습으로는 설빔 차례, 세배, 덕담 성묘, 문안비(問安婢), 세화(歲畵), 세찬(歲饌), 세주(歲酒) 복조리, 야광귀(夜光鬼), 청참(聽讖), 소발(燒髮), 등등 여러가지의 민속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이 소멸되고 일부 남아 있는 민속마저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드물 정도로 시의(時宜)의 탓인지 물론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변형되었으니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다음은 설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② 설빔(歲粧)

설빔이란 순수한 우리말로써 「설날」과 「비움」이 각각 줄여서 이루어진 합성어(合成語)인 것이다.

즉 설날 아침에 갈아 입는 새 옷을 설빔이라 한다.

이 설빔이란 말은 본래 한문의 세장(歲粧)에서 비롯된 것 인지도 모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남녀 어린이들이 모두 새 옷으로 갈아 입는 것을 세장이라고 하였다.

이 설빔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가정에서는 이미 가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동짓달에서 설달에 이르던 주부들이 자기의 생활 형편에 따라 정성껏 설빔을 마련하여 둔다.

옛날 같으면 어른들은 두루마기를 비롯하여 바지, 저고리, 버선, 대넒에 이르기까지 새로 한 벌을 장만하는 한편 어린이들은 주로 색동옷으로 마련하는데 어른들 보다는 아이들이 더욱 좋아하며 설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심지어는 달력에 하루하루 지나는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 하면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설날에 색동옷을 입고 티없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고 있는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을 방불할 정도로 귀엽기만 하다.

이같은 아름다운 정경도 현대문명의 그늘 속에서 시들어 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요즘은 설날이라 해도 옛날같은 실감이 없고 역시 설빔이라야 양복이나 또는 간단한 일상복을 평상시보다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을 정도이니 그저 시의의 탓으로 넘겨버리고 말아야

서산의 민속

할 것인지…….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근래에 들어와 해를 거듭할 수록 설빔으로 우리 한복을 차려 입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③ 차례 (茶禮)

차례란 본래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날 그리고 조상의 생일 등에 음식물을 차려놓고 지내는 낮제사를 말함인데 차례라고도 한다.

설날 아침에는 정성드려 미리 마련하여 둔 세찬과 세주를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데 이 때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에서 지낸다.

사당은 장손 집에 설치하여 두고, 4대조(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까지의 위패(位牌)만을 모시는데, 명절날에는 전체를 제사하지만 보통의 제사 때에는 해당되는 분만 제사한다.

그러나 오늘날 장손 집에 사당을 설치하고 조상께 제사 지내는 집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볼 때 역시 시의(時宜)의 탓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명절날에는 특히 설날과 추석날이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손들이 고향에 찾아가 장손 집에 모여서

엄숙하게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이같은 현상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숭조사상에서 우러 나는 고유의 양속(良俗)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난이 금년의 추석은 다음날까지 연휴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른바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할 정도로 대혼잡을 빚었으니, 이를 긍정적인 면에서 선의로 해석할 때 숭조의 정신과 효심의 발로로 보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④ 세 배

세배란 본래 선달그믐이나 정초에 친족이나 웃어른들을 찾아가 문안하는 인사를 말하는데, 선달그믐에 하는 것을 묵은 세배라 하였다.

그러나 요즘 이 묵은 세배는 거의 사라졌으며, 새해의 세배도 보통 설날 아침부터 시작하여 보름날 가까이 행해 지지만 옛날에 비하면 매우 소홀한 편이다.

설날 아침은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설빔으로 갈아 입은 뒤에 차례를 지낸다. 이와 같이 차례가 끝나면 자리를 정리하고 앉아 자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한다. 즉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인사를 마친뒤에 차례를 지낸 세찬으로 아침식사를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 세배와 식사가 끝나면 친척과 이웃 어른들

서산의 민속

을 차례로 찾아 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이 때 세배를 받는 측에서는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내 놓는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세배돈을 주는데 이 세배돈을 받은 어린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를 모아 두었다가 학용품을 사기도 하고 또는 저축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수 십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일가 친척의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같은 양속도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여겨질 뿐이다.

그런데 지역과 각 가정에 따라 차례와 세배의 절차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먼저 차례를 지낸 다음에 세배를 올리고 식사를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세배를 올리는 가정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선령(先靈)에 대한 차례상을 차려놓고 우선 웃어른께 세배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

이와 같이 지역과 가정에 따라 형식상의 절차가 다름을 알 수 있으나 문제는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송조사상을 기리고 이 뜻을 사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마음 기짐이 중요한 것으로 본다.

⑤ 덕담(德談)

덕담이란 서로 잘 되기를 비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배를 할 때나 혹은 웃어른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 주로 연소자가 먼저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엔 더욱 복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이를 받아 연소자에게 「부모님 모시고 설 잘 세었나」 또는 「새해엔 소원성취하기 바라네」 등으로 서로 인사를 교환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덕담이란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는 모든 일이 잘 이뤄지기를 서로 빌어 주는 축의(祝意)인 것이다.

⑥ 성 묘

성묘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살펴보며 생존시와 같이 인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성묘는 흔히 설날, 추석날 또는 한식날에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히 설과 추석에는 온 가족이 또는 일가의 많은 자손들이 어른들을 모시고 줄지어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함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경이며 또한 숭조사상의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양속도 해를 거듭할 수록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서산의 민속

⑦ 세찬(歲饌)

세찬이란 설날에 차린 음식을 말한다.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또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마련하는 온갖 음식물을 세찬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의 생활 형편에 따라 준비한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장손 집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자손보다 많이 여유 있게 만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찬 중에서도 흰떡은 대부분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데 이 흰떡을 썰어서 국을 끓인 것을 떡국이라 한다.

설날에 이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살 더 먹는 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래 떡국을 끓일 때에는 찜고기를 넣었으나, 요즘은 찜대신 닭고기나 또는 쇠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이 어느 가정이나 상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생활의 편리 위주로 변해 가는 것이 현대문명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식생활 문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우선 양에서 질적인 면으로 탈바꿈하여 가고 있는 것 같다.

⑧ 세주(歲酒)

세주란 설날에 쓰는 술을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술을 담그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특히 옛날에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단속의 눈을 피하여 세주(歲酒) 정도는 손수 담가서 사용한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양조문화(釀造文化)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주류(酒類)가 시판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술을 담그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시중에서 구입해다 차례도 지내고 찾아오는 세배객을 대접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일부 가정에서는 취미로 각종 과일주(果實酒)를 담가 즐기며 또한 명절날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별미로 대접하거나, 혹은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 습속이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

⑨ 복조리

복조리란 일년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설날 새벽에 파는 조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조리는 설날 새벽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선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조리 장수들이 이골목 저골목 누비고 다니며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때 사둔다.

이렇게 구입한 조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방문 위쪽이나 부엌에 걸어두면 1년간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서 복조리라는 말이 유래된 것 같다.

서산의 민속

그리고 이 북조리를 달아두는 위치도 지역과 가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조리 위에 흰실 타래를 걸쳐놓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성냥갑을 넣어두는 가정도 있다.

여하간 이같은 민속도 근래에 들어와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 이같은 민속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조리의 구입 과정에서부터 실시하는 방법 등에서 살펴볼 때 원형과 거리가 먼 변형되고 매우 간소화된 형식만이 남아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⑩ 앙괭이(夜光鬼)

정월 초하루인 설날 밤에 하늘로부터 사람이 사는 집(人家)에 내려와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어 보아서 맞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간다는 귀신을 말함인데, 한자로는 야광(夜光) 또는 약왕귀(藥王鬼)라고도 쓴다.

그런데 이 때에 만약 신발을 잃어 버리면 그해 한해 동안은 운수가 불길하다고 하여 잘 때에는 모두 신발을 방에 들여 놓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고 자는 것이 상례였다.

그리고 이 앙괭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대문 앞에 금줄을 친다든가, 아니면 대문을 일찍 잠가 둔다든가 또는 딱총같은 것으로 큰 소리를 내게 하여 놀라게 하는 등

여러가지의 수단을 취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가 있는 것은 양괭이를 쫓는 방법으로서, 높은 기둥이나 또는 뜰에 장대를 세워놓고 그 꼭대기에 체를 매달아 둔다.

이렇게 하여 두면 밤에 집을 향해 내려오던 양괭이가 이 체를 보게 되는데 이 때 체에 눈이 많음을 알고 그 수효를 세어보게 된다. 열심히 체눈을 세어 가던 양괭이는 도중에서 실수하여 어디까지 세었는지 모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세어 가기 시작하지만 체눈이 너무 촘촘히 박혀있어 여전히 도중에서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몇번씩 되풀이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 소리에 양괭이는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장대 꼭대기에서 그대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속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간지 이미 오래 되었고 지금은 다만 옛날 이야기로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문안비, 세화, 청참, 소발 등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자취를 감춘지 오래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⑪ 복토(福土) 훔치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서산의 민속

발버둥치고 있는지 모른다.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사양치 않고 행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면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옛날엔 정월 열나흔날 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몰래 부자집의 마당 흙을 훔쳐다가 자기집의 부뚜막에 바르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집에서는 열나흔날 밤이면 마당 흙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를 지키기에 고역을 치루어야 했다.

이같이 부자집의 흙을 훔쳐 옴으로써 그 집의 재복(財福)이 따라와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훔침을 당한 부자집은 가난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나흔날 밤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을 보내야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었다.

⑫ 제웅(處容)

제웅이란 짚으로 사람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인데, 음력 정월 열나흔날 밤에 제웅 직성이 든 사람의 액막이나, 무당이 병자를 위하여 산 영장을 지내는 데에 쓰여졌던 것이다.

이 직성(直星)이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의 운명을 말아본다는 별이다. 즉 제웅직성,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의 9 별이 차례로 돌아온다

는 것으로, 남자는 10살에 제웅직성이 들기 시작하여 19살에 다시 돌아오고(즉 10, 19, 28, 37, 46, 55, 64세), 여자는 11살에 목직성이 들기 시작한다(즉 11, 20, 29, 38, 47, 56, 65세).

이와 같이 직성이 든 해는 액운이 있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이 닥쳐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직성이 든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위해 제웅을 만드는 것이다.

짚으로 만든 제웅의 뱃속을 해치고 돈이나 또는 쌀을 넣고 아울러 직성이 든 사람의 생년월시를 기록하여 함께 동여맨 다음 이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개천 등에 버린다. 이렇게 하므로써 액운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제웅 속에 돈을 넣어 버리기 때문에 이 돈을 얻기 위해, 열나 혼날 밤이면 아이들이 이를 좇으러 돌아다니는가 하면, 심지어는 집집마다 돌며 제웅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유래는 일찍 신라의 처용랑(處容郎) 고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⑬ 정월 대보름

음력 정월 보름을 특별히 일컫는 말로서 대보름 또는 대보름날이라고도 한다. 이 대보름은 설날이나 추석날 못지 않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큰 명절의 하나인데, 한자로는 상원(上元)이라고도 한다.

서산의 민속

이 대보름날에는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는가 하면 갖가지 민속적인 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즉, 달맞이를 비롯하여 부럼(腫果), 귀밝이 술(耳明酒), 오곡밥, 복쌈, 진채식(陳菜食), 나무 시집보내기(嫁樹) 더위팔기, 쥐불 놀이, 개보름 보내기, 나무 아홉짐, 다리 밟기(踏橋) 등등 많은 민속이 있었지만 이는 각 지역과 가정에 따라 다소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전승되어 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혹시 전승되어 온다 하더라도 원형과 거리가 먼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상존하는 몇가지만 참고로 열거하여 둔다.

⑭ 부럼(腫果)

대보름날이면 평소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밤이나 호두 또는 잣이나 은행같은 단단한 과일을 깨무는 것을 부럼이라 한다.

이와 같이 단단한 과일을 깨물면 이가 튼튼해지고, 또한 부스럼이 나지 않아 1년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속으로서 지금도 대부분의 지역에선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첫번째 깨문 것은 먹지 않고 마당이나 지붕에 버리는 데 이때 “부럼 나가라”하고 외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한해

동안 만사 형통하고 부스럼도 생기지 말라고 비는 지역도 있다.

또한 과일을 깨물 때는 자기의 연령 수대로 깨무는 것이 보통이나, 노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이가 튼튼하고 과일 먹는 재미에 대보름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일을 깰 때에는 여러번 깨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깨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한다.

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둔다.

“이른 새벽에 날밤, 호두, 은행, 잣, 무우 등 속을 깨물며 일년 열두달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수한다.

이를 작절(嚼齧)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고치지방(固齒之方)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평안북도 의주(義州) 지방의 풍속에 어린 남녀들이 보름날 새벽에 사탕을 깨는 것을 치교(齒較)라 한다고 했다.

⑮ 귀밝이 술(耳明酒)

정월 대보름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귀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을 말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청주(淸酒)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

서산의 민속

면 귀가 밝아진다고 한다. 이것을 유릉주(甯陵酒=귀 밝이 술)라 한다.

또한 섭정규(葉廷珪)의 해록쇄사(海錄碎事)에 사일(社日)에 치릉주(治陵酒=귀 밝이 술)를 마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의 풍속에는 이를 보름날에 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보름날 아침에 술을 마시면 귀가 더 밝아지며 따라서 컷병도 생기지 않고 1년 동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데서 이날 만큼은 특별히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이 습속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으나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삼가하지 않고 실행하려는 습속이 이래서 생겨난지도 모른다.

⑩ 오곡밥

오곡밥이란 5곡으로 지은 밥을 말함인데, 평상시에는 5곡을 넣어 밥을 지어 먹는 가정이 거의 없으나 대보름날 만큼은 5곡을 넣어 밥을 지어 먹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5곡이란 5가지 이상의 잡곡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략 쌀, 찰쌀, 보리, 콩, 수수 혹은 조 등을 일컫는데, 흔히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대여섯가지 잡곡을 구입해서 오곡

밥을 지어 먹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5곡이란 본래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기장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재배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 등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재배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하간 이 정월 대보름날에는 오곡밥(잡곡밥)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세 끼니가 아니라, 아홉 끼니 즉 아홉 사발(아홉번 또는 아홉 집)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얻어 먹는데, 특히 3집 이상의 다른 성(他姓)을 가진 집에서 먹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이다.

요즘은 이같은 습속도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지만, 혹시 지역에 따라 전승 되어 온다 해도, 그 실태는 매우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⑪ 복 싹

쌈이란 흔히 김이나 상치·배추속대 등으로 밥과 반찬을 싸서 먹는 것을 말함인데, 특히 정월 대보름날에는 어느 때와는 달리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여러 종류의 쌈의 재료를 이용한다.

특히 옛날의 시골에서는 김과 파래를 비롯하여 취·머위·아주까리 등의 어린 잎을 따서 말린 것으로 쌈을 만들어 먹

서산의 민속

었다.

그리고 수 십개의 찜을 만들어서 큰 그릇에 담아 성주님께 (혹은 광에) 올리는데, 이 때 그릇에 담은 찜을 노적(露積) 가리에 비유한다.

그러므로 그릇에 찜을 수북히 담아 놓으면 그 해도 풍년이 들어 가을의 추수에 큰 노적가리를 쌓을 수 있고 또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서 정월 대보름날에 먹는 찜을 복찜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시골의 가정에서도 머위나 아주까리의 어린잎을 따서 말렸다가 찜으로 이용하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또한 복찜의 습속도 거의 사라져 가고 없는 것 같다.

⑯ 진채식(陳菜食)

진채식이란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먹는 여러가지 나물을 말한다.

즉, 고사리·취·무말랭이·버섯·도라지 아주까리잎 무시래기 등등 미리 준비하여 말려두었던 나물을 깨끗이 씻은 다음 삶아서 양념을 골고루 넣어 무쳐 먹는 것을 이른바 진채식이라 한다.

옛날에는 진채식을 위해 특히 시골에서는 부녀자들이 직접 산나물을 채취하는 등 손수 장만하였지만 요즘은 이같은 습

속도 거의 사라져 가고, 다만 지방의 관광지나 가게 등에서 나물을 사다 먹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⑬ 나무시집보내기(嫁樹)

정월 대보름날에 농가에서는 감나무·밤나무·대추나무·호도나무 등의 여러 과실나무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는데 이를 「나무시집 보내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무가지에 돌을 끼워서 나무시집 보내기를 하면 그 해부터는 과일이 많이 열린다는 것이다.

사람도 결혼을 해야 자녀를 둘 수 있는 거와 같이 나무도 이렇게 시집보내기를 해야 많은 열매가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서 과일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한다는 단순한 전래의 습속이 아니라, 여기에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선인들이 이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에 따르면 「오직 오얏나무만이 이 법을 쓴다」라고 하였는데, 오얏나무 뿐 만 아니라 모든 유실수(有實樹)는 시집보내기를 하였으며 또한 실시 시기도 선달 그믐날 밤이나, 설날 혹은 정월 보름날 등

서산의 민속

어느때나 좋다고 하였다.

⑳ 더위팔기(賣暑)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을 보면 급히 부른다.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곧 “내 더위 사가라” 한다. 이것을 매서(賣暑)라 한다.

이렇게 하여 더위를 팔면 그 해에는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백방으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학(謔)이라 한다 하였다.

그런데 짓궂은 장난꾸러기들은 대보름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친구 집을 찾아가서 친구를 부른다. 이때 무의식중에 친구가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준말로내 더위라고도 한다) 또는 「내 더위 네 더위 먼저 더위」라고 큰소리로 외치면 더위를 판 셈이 되고 이에 따라 더위를 산 사람은 한여름 동안 무더위에 고생을 하지만, 더위를 판 사람은 고생을 하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치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즉시 「내 더위」하고 이에 응수한다.

그러면 더위를 팔려든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먹게 됨으로 더위를 팔 때에는 요령있게 해야 한다.

더위는 한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족한데, 이를 악용하여여

러집을 찾아다니며 장난 삼아 더위를 파는 짓곳은 장난꾸러기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더위를 파는 사례가 속출할 정도였다.

요즘은 이같은 습속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라져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간혹 일부 지역에서는 대보름날에 장난삼아 더위팔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② 개보름 보내기

개는 가축 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친근한 짐승이다.

개는 후각(嗅覺)이 매우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와 눈이 밝아 도둑을 잘 지켜주며 따라서 사냥과 군사상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리한 동물이다.

이와 같이 영리한 개는 주인이 생명의 위험을 당했을 때 구출해 내는 사례를 때때로 보아온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개만도 못하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면 개의 영리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데, 이같이 영리한 개도 대보름날에는 푸대접을 받는다.

개는 사람과 가장 친근하지만 먹이는 하루에 보통 아침, 저녁으로 두번 밖에 주지 않는데, 대보름날에는 하루종일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즉 정월 대보름날에 개에게 밥을 주면 여름철에 파리가 모여 들어 매우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개가 여원다는 습속이 전래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끼니를 굶었을 때 흔히 「개 보름 쇠듯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 같다.

㉓ 나무 아홉 짐

정월 대보름날은 설날과 추석날 못지 않은 즐거운 큰 명절인데, 특히 이 날은 실행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날은 자기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놀이들로 즐기면서 시간이 흐름을 몹시 아쉬워하는데, 시골의 농가에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9짐해야 한다고 한다.

나무를 9짐해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한된 시간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기 힘든 일이지만, 이는 곧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와같이 대보름날에 나무를 9짐 해야 한다든가 밥을 9사발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홉(九) 숫자를 좋아하는데서 기인된 것인지도 모른다.

㉓ 다리 밟기(踏橋)

대보름날 밤에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 다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남녀노소가 모두 다리를 밟는데 이를「다리 밟기」라 일컫는다.

이와 같이 온 가족이 다리를 밟는 것은 1년 동안 다리앓이를 하지 않고 튼튼한 다리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서 기인된 것인데, 한 해가 열두 달이므로 다리를 12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 근처에 다리가 없을 때에는 먼 곳이라도 다리를 찾아다니며 밟았다.

이와 같이 대보름날 밤에 다리 밟기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매우 혼잡을 이루었다.

특히 양반들은 상민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14일 밤에 다리 밟기를 하였다 하며, 또한 부녀자들도 보름날이 지난 16일 밤에 다리를 밟기도 하였다 한다.

㉔ 입춘

입춘이란 24절기의 하나로서 첫번째에 오는 것인데, 이는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다. 따라서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 일 때이며, 입춘은 곧 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춘이 되면 시골이나 도시를 불문하고 전국적

서산의 민속

으로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이 봄철에 합당한 좋은 글귀를 써서 보통 천정의 대들보나 기둥·대문·벽 등에 붙였는데 이를 춘축(春祝)이라 하였다.

그러나 상 중에 있는 가정에서는 이를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입춘문을 붙이되 입춘날이면 아무때나 편리한 시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세력(千歲曆)을 보고 입춘이 드는 시각(예를 들면 병시(丙時)라든가 오시(午時) 등에 붙여야 춘축의 효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염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써붙이는 입춘문을 참고로 열거한다.

- 수여산(壽如山)
- 부여해(富如海)
- 거천재(去千災)
- 내백복(來百福)
- 입춘대길(立春大吉)
- 건양다경(建陽多慶)
- 요지일월(堯之日月)
- 순지건곤(舜之乾坤)
- 애군희도태(愛君希道泰)
- 우국원년풍(憂國願年豊)
- 부모천년수(父母千年壽)

자손만대영(子孫萬代榮)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
사방무일사(四方無一事)
국유풍운경(國有風雲慶)
가무계옥수(家無桂玉愁)
재종춘설소(災從春雪消)
복축하운흥(福逐夏雲興)
북당흰초록(北堂萱草綠)
남극수성명(南極壽星明)
천상삼양근(天上三陽近)
인간오복래(人間五福來)
계명신세덕(鷄鳴新歲德)
견괘구년재(犬吠旧年災)
소지 황금출(掃地黃金出)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문영춘하추동복(門迎春夏秋冬福)
호납동서남북재(戶納東西南北財)
육오배헌남산수(六鰲拜獻南山壽)
구룡재수사해진(九龍載輸四海珍)
천증세월인증수(天增歲月人增壽)
춘만건곤복만가(春滿乾坤福萬家)

등등 대략 정해져 있는 좋은 내용의 글귀들을 써붙인다.
또한 단구(單句)를 참고로 몇 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춘도문전증부귀(春到門前增富貴)

춘광선도길인가(春光先到吉人家)

상유호조상화명(上有好鳥相和鳴)

일춘화기만문미(一春和氣滿門楣)

일진고명만제도(一振高名滿帝都)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붙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대부집에서는 새로 지어 붙이거나, 아니면 선현들의 좋은 글귀를 골라서 써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특히 여념 집에서의 입춘문을 써붙이는 실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으나, 간혹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년 입춘날에 새로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판자쪽에 새겨서 기둥이나 난간에 영구히 부착하여 놓은 사례를 볼 수 있으니, 많이 변형된 실태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입춘은 양력(태양력)으로 2월 4일이 아니면 5일의 양일로 굳어져 있지만 음력(태음력)으로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정월에 오는데 금년의 경우(1986)는 지난 해가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입춘이 신년에 들은 것이 아니고, 구년의 선달 26일이 입춘이었다.

입춘이란 태음력상의 24절기에서 볼 때는 봄의 시작을 뜻

하는 것인데, 새해에 들어 있지 않고, 구년에 입춘이 있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므로 음력상의 24절기의 활용은 아직도 우리들의 생활 (특히 농촌에서는)에서 소멸시킬 수 없는 민속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양력의 날짜로 바꿔 사용(換用)하는 것이 보다더 현실적일런지도 모른다.

일본(日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력의 날짜로 환용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음력의 5월 5일이 단오인데, 이를 양력의 5월 5일로 운용한다.

물론 24절기의 본래의 의미는 음력 상에서의 더욱 심오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남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갈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윤달이 들어 있는 경우는 1년에 입춘이 두번씩 들어 있는 결과가 되어 너무 비과학적인 것 같다는 말이다.

㉕ 머슴날(奴婢日)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농가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루를 머슴의 날로 정하고, 여러가지 음식물을 푸짐하게 마련하여

서산의 민속

머슴(노비)에게 주면서 하루를 마음껏 즐기게 한다.

그동안 농사일에 수고했으며 또한 앞으로 닥아오는 농번기에 올해도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주인이 머슴에게 베푸는 일종의 위안잔치인 것이다.

이 때에 20세가 되는 머슴은 같은 동네의 이미 성인이 된 머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비로소 성인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며, 또한 성인 집단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공동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머슴의 날에 이같은 절차를 이행치 못하면 20세가 지나도 성인 취급을 못받는 지역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머슴의 날이란 일종의 머슴 성인식 날과 같은 것이다.

㉔ 콩볶기

음력 2월 초하루에는 각 가정에서 콩을 볶아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좋아 하는데, 아이들은 볶은 콩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하면서 나누어 먹기도 한다.

이와 같이 콩을 볶는 것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와 쥐를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추수기에 참새떼에게 손실을 당하는 곡식의 양이 막대 하였다.

특히 요즘은 참새떼가 더욱 극심하여 하루종일 사람이 논두렁에서 기물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내어 새떼를 쫓는가 하면, 그물을 사다 논을 덮어 놓는 등 무척 애를 쓰고 있다.

또한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곡식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쥐에게 빼앗기는 손실량이 무척 큰 것이다.

이렇게 농부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곡물의 수확을 한 알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와 쥐를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서 2월 초하루에 콩을 볶아 먹는 습속이 전래되어 오는 것이다.

콩을 볶을 때에 타지 않도록 주걱이나 넓죽한 도구로 끌고 루 저으면서 「콩 볶는다, 새알 볶는다, 쥐알 볶는다」라고 소리를 내며 볶은 콩을 먹으면 한해 동안 새와 쥐로 인한 곡물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너무나 비과학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지난날의 농경 사회에서 새와 쥐로 인한 막대한 곡물의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가식없는 순수한 농민의 마음에서, 즉 심리적인 자구책의 하나로서 이같은 방법을 취하여 다소간의 자위가 되었는지도 모

서산의 민속

른다.

㉓ 노래기 퇴치

노래기는 절지 동물(節肢動物)의 하로서 불결하고 음습한 곳이나 낙엽 등의 밑에서 살고 있다.

몸통은 2·30개의 마디로 이루어졌는데, 각 마디에는 두 쌍의 보각(步脚)이 달려있어 이것으로 기어다닌다.

몸통을 건드리면 둥글게 말리는데 지독한 냄새가 풍기므로 노래기를 보면 모두 피한다. 이와 같이 노래기는 징그럽고 냄새가 지독함으로 사람들은 이를 싫어하는데 노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래기의 서식처를 없애버리고 동시에 집 안팎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민속의 하나로서 2월 초하루에 백지에 붓으로 향랑각씨속거천리(香娘閣氏速去千里)라는 글귀를 써서 기둥이나 서까래 등에 붙여두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믿었다.

또한 대보름날 새벽에 솔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에 던지면서 「노래기 각씨 노래기 바늘 가져가거라」하고 외치면은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믿었다.

요즘은 글귀를 써서 붙이거나, 솔가지를 지붕에 던지는 일도 거의 사라졌으며 그리고 초가지붕도 사라지고 집 주변이 깨끗해 졌음으로 노래기도 거의 없어진 것 같다. 노래기를 한

자로 향랑각씨(香娘閣氏), 백족충(百足虫), 마현(馬弦), 마륙(馬陸), 환충(環虫) 등으로 표기 하였다.

㉘ 경칩(驚蟄)

경칩은 태음력상의 24절기의 세번째에 오는 것인데, 우수와 춘분 사이에 있다. 긴 겨울 동안 땅 속에서 동면(冬眠)하던 동물이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의 뜻이다.

날짜는 양력으로 3월 5~6일이 된다. 이날 일부의 사람들은 논이나 물이 없는 계곡 등지를 찾아다니며 개구리 알을 꺼내어 먹는데, 이는 옛부터 보신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도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 사양치 않고 먹어 치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으니 개구리도 수난 시대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경칩날에 집 안에서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바쁘게 흙일을 서두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이날에 단풍나무의 가지를 잘라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먹으면 위장병에 특효하다 하여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㉙ 청명(清明)

서산의 민속

청명은 태음력상의 24절기의 하나로서 다섯번째에 오는 것인데, 춘분과 곡우 사이에 있다.

이날은 날씨가 개고 화창해진다는 뜻이므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 청명날을 기하여 농번기를 앞둔 봄일을 시작하게 된다. 즉 봄갈이(春耕)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농가에 있어서의 청명날은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청명은 양력으로 4월 5~6일에 온다.

⑩ 한식(寒食)

한식날은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다. 또는 청명의 전후에 오거나 겹치기도 한다.

특히 이 한식날은 자손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추모하며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사초(莎草)를 하는 등, 훼손된 부위를 손질하고 살펴보는 날이다.

그런데 이 한식의 유래를 찾아보면 옛날 중국의 은사 개자 추(介子推)가 산 속에서 불에 타죽었으므로 이를 애도 하는 뜻에서 이날은 일체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하여 글자 그대로 한식날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는 중국의 유속(遺俗)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자추」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개자추는 본래 중국 춘추시대의 은사(隱士)였는데, 진(晉)나라의 문공(文公)이 공자(公子)로서 망명생활을 할 때 19년간을 모셨었다.

그런데 문공이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였으나, 문공이 개자추에게 봉록을 주지 않으므로 면산(綿山)에 숨어 버렸다. 이 때 문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가 있는 산에 불질러 나오도록 시도 하였으나 그는 끝내 나오지 않고 편모와 서로 껴안고 버드나무 밑에서 타죽고 말았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식날 문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꽃기도 하고 또는 야제(野祭)를 지내어 그의 영혼을 달래기도 하였다 한다.

그리고 한식날에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고 또한 나라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 하여 이를 몹시 꺼려했다.

③ 삼짚날

음력으로 3월 초사흘날을 삼짚날이라고 한다. 또는 삼월 삼짚·준말로 삼짚·한자로는 상사(上巳)·중삼(重三)이라고도 한다.

삼짚날은 흔히 강남에서 제비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산의 민속

지난해 9월 9일에 강남으로 들어가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삼짇날에 옛 집을 찾아 돌아오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날이면 모두 제비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삼짇날이면 봄기운이 완연하고 산에는 진달래꽃이 한창이라, 이 무렵이면 많은 사람들이 봄기운에 유혹되어 자연이 산과 들로 나가 꽃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긴다.

또한 삼짇날엔 진달래꽃을 뜯어다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꽃전(花煎)을 만들어 먹는 한편, 녹두 가루와 반죽하여 화면(花麵)과 수면(水麵) 등을 만들어 먹으며 즐긴다.

이같은 음식은 별미의 시식(時食)으로 좋은 호평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옛날의 서당 교육이 한창이던 때는 스승과 제자들이 들이나 산을 찾아가 꽃전을 부쳐 먹으면서 주위의 경관에 도취되어, 시도 짓고, 풍월도 읊으며 하루를 즐겁고 유쾌하게 보냈다 한다.

그리고 삼짇날이면 꽃이 한창 필 무렵이니 온갖 곤충들이 날아든다. 그 중에서도 특히 꽃을 찾아 온갖 나비들이 날아드는데 이때 노랑나비를 먼저 보면 한해 동안 좋은 일이 생겨 운이 트이고, 그와 반대로 흰나비를 먼저 보면 그 해에 소복을 입게 되니, 부모의 상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흰

나비를 보게 되면 몹시 기분이 언짢은 것이다.

요즘에 이같은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옛부터 내려오는 습속의 하나이고 보면, 일시적인 심리 작용으로 불쾌감을 느껴질런지도 모른다.

㉔ 사월 초파일

음력으로 사월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 하여 많은 신도들이 가까운 절을 찾아가 재(齋)를 올리고 연등(燃燈)을 한다.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신도의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가지 등을 만들기에 매우 바쁘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을 달기 위해 등간(燈竿)을 세워야 하는데, 이 장대 꼭대기에는 꿩 꼬리털을 꽂아 두며 아울러 붉은 비단으로 작은 기를 만들어 다는데, 이를 호기(呼旗)라 부른다. 그리하여 이 호기에 다시 줄을 길게 매어두고 여기에 등을 다는 것이다.

이 때 형세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등간을 사용하지 않고 정원수의 나뭇가지나 혹은 추녀 끝에 등을 다는 것이 예사였다.

가정에서 등을 만들 때는 가족 수에 한하지만,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수 이상을 만들거나 또는 등간(장대)도 여러개 만들어 등을 달아 놓으니 불야성(不夜城)을 이루

서산의 민속

어 그 모습이 장관이다.

그리고 이 4월 초파일에 사용되는 등의 종류도 많지만 그 모양과 명칭도 다양하다.

특히 이 등명을 분류하여 보면 대략 세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동물명, 식물명, 천체명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수박등·마늘등·연꽃등·화분등·머루등·알등·거북등·자리등·잉어등·학등·봉등·일월등·칠성등·오행등·가마등·배등(船燈)·종등(鍾燈)·북등·누각등·항아리등·방울등·수복등·태평등·만세등 등을 들 수 있다.

4월 초파일의 연등행사는 본래 불교의 의식으로써 신도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것이었으나 요즘은 신자 비신자를 불문하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연등풍습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찍 신라시대의 팔관회(八關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후 고려조 때에는 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이 연등행사가 더욱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배불숭유(排佛崇儒)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점점 쇠잔해 갔으므로, 이에따라 연등행사도 자연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경제성장과 더불어 불교신도들도 증가됨에 따라 연등행사도 성대히 거행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 1978년부터 4월 초파일의 석탄일을 공휴일로 정함에 따라,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합세하여 이날의 연등행사를 더욱 대성황리에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⑳ 봉선화 물들이기

이 봉선화(鳳仙花)는 본래 인도가 원산지인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 퍼져서 화원이나 정원 등에 관상용으로 심고 있다.

잎은 피침형(披針形)이고, 키는 대략 60cm 전후인데, 여름철이 되면 잎 사이에 독특한 꽃이 피는데 늦가을까지 계속된다.

꽃은 붉은색·자주색·흰색·노란색·분홍색 등 여러가지로 피는데, 소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따서 백반(白礬)과 함께 으깨서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한다.

이 풍습은 지금도 소녀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이는 것은 손톱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뜻도 있겠지만, 실은 붉은 색은 잡귀(雜鬼)를 쫓는 벽사(辟邪)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봉선화는 꽃모양이 봉황새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일명 금봉화(金鳳花)라고도 하며, 또한 순수

서산의 민속

한 우리말로는 봉숭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홍난파 작곡의 「봉선화 노래」로 더욱 널리 알려져있다.

이 봉선화의 노래는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작곡된 것으로, 당시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이 가냘픈 봉선화에 비유하여 당면한 거래의 비분함을 뽐어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 때 일제하(日帝下)에서 금지곡이 되어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으니, 이 「봉선화의 노래」는 우리 한민족과 더불어 애환을 함께 하였으므로 민족적 가곡의 효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다.

독자의 참고로 하기 위해 봉선화 노래의 가사를 적어 둔다.

봉 선 화

작사 : 김현준 작곡 : 홍난파

1.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모양이 처량하다
길고긴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반겨 놀았도다

2. 어여간에 여름가고
가을바람 솔솔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아! 다 늙어갔다
네 모양이 처량하다 처량하다

(2) 여름철의 풍속

① 단오(端午)

단오는 명절의 하나로서 음력으로 5월 5일을 말한다.

옛날에는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던 제사날이었으나, 요즘은 주로 농촌의 명절로서 이날은 수리치를 넣어 절편을 만들어 먹는데 이를 단오떡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수리치를 뜯어다 단오떡을 해먹는 가정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이날 부녀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들은 씨름으로 하루를 즐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래로 양수(陽數)가 겹치는 월일(月日)을 명절로 정하여 즐겨왔으니, 그 실례로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5월 5일은 양(陽)이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여겨왔던 것이다.

또한 단오를 다른 이름으로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

節), 단양(端陽), 수릿날(戌衣日) 등으로 부르고 있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단오를 속된 이름으로 수릿날(戌衣日)이라 한다. 술의(戌衣)란 것은 우리 나라 말의 수레(車)다.

이날 쭉임을 따다가 짓이겨 멥쌀 가루 속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릿날(수렛날)이라고 한다 하였다.

또 일설에는 단오를 달리 「수릿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리치」로 떡을 만들어 먹은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모두 흥미 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단오날에 부녀자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하였는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고, 또 빠지지 않는다 하여, 모두 즐겨 머리를 감았던 것이며, 따라서 창포뿌리로 비너를 만들어 머리에 꽂았으나, 오늘날 이같은 풍속도 거의 사라지고 만 것 같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남녀 어린이들이 창포탕(菖蒲湯)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우를 입는다. 또 창포의 뿌리를 깎아 비너를 만들 때 수(壽)나 혹은 복(福)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두루 머리에 꽂는다. 그렇게 함

서산의 민속

으로써 재액을 물리친다.

이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 한다고 하였다.

② 단오 부채(端午扇)

옛날의 왕조시대에 공조(工曹)로부터 봉납(捧納) 받은 것을 단오날에 임금께서 손수 신하와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던 부채를 단오 부채(端午扇)라 일컫는다.

부채는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 서산지방에서 만들어 진상했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전주(全州)와 남평(南平)에서 만든 것이 가장 좋은 부채였다 한다.

단오 부채와 서산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단오 부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채의 종류와 그 용도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부채의 종류(명칭)에, 승두선(僧頭扇)·어두선(魚頭扇)·사두선(蛇頭扇)·합죽선(合竹扇)·반죽선(斑竹扇)·외각선(外角扇)·내각선(內角扇)·삼대선(三臺扇)·이대선(二臺扇)·죽절선(竹節扇)·단목선(丹木扇)·채각선(彩角扇)·소각선(素角扇)·광변선(廣邊扇)·협변선(狹邊扇)·유환선(有環扇)·무환선(無環扇) 등, 만든 모양

이 각기 다르고, 청색·황색·적색·백색·흑색·자색·녹색·검푸른색·운암색(雲暗色)·석린색(石鱗色)등 모든 빛깔의 부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부채는 빛깔에 따라 소지하는 주인공이 달랐다. 즉 청색의 부채는 신랑이, 적색의 부채는 신부가 그리고 백색의 부채는 상제들이 사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생김새와 모양에 따라 용도가 달랐으니, 어린이들이 햇빛을 가리는데 사용한 윤선(輪扇), 파리나 모기를 쫓는데 사용한 부채·신부들의 얼굴을 가리는데 사용한 부채, 그리고 대신(大臣)들이 장식물로 사용한 파초잎 모양의 초엽선(蕉葉扇)이 있었다.

요즘은 선인들이 사용했던 이같은 다양한 종류의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것 같다. 특수한 것이 있다면, 무용할 때 쓰는 대형 부채,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부채, 그리고 태극선(태극모양을 그린 둥근 부채) 등이 있는데, 이 태극선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유명해 졌다.

또한 요즘은 플라스틱(PLASTIC)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부채도 대량으로 마구 찍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양산되는 플라스틱 부채이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한지(韓紙) 부채와는 비교도 안된다.

무더울때 종이부채를 펴들고 부치면 거기서 나오는 청량한

서산의 민속

바람의 그 삽상(颯爽)한 기분이란 정말 무어라 표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플라스틱 부채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원하기는 커녕 부칠수록 오히려 짜증과 신경질이 유발될 뿐이다.

역시 부채는 우리의 전통적인 종이부채라야 제격인 것이다.

부채는 예나 지금이나 그 목적은 동일하지만, 현대 문명의 이기 앞에서는 그 위력을 과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즉 각 가정이나 관공서 등에는 대부분 선풍기나 에어컨(AIR CONDITIONER)이 설치되어 있어 부채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③ 익모초(益母草) 채취

익모초는 꿀풀과에 속한 2년생 풀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日本)과 중국 대륙 등에 분포되어 있는데, 암눈비앗·야천마(野天麻)·충울(菴蔚)이라고도 일컫는다.

익모초는 옛날부터 한방 약재(韓方藥材)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산모에게 좋다는 것이다.

즉 산모(產母)의 지혈(止血)·강장제·이뇨제(利尿劑) 그리고 더위 먹은데에 특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식욕이 없는 여름철에 익모초의 즙을 내서 먹으면 식욕이 생긴다 하여 농가에서 널리 애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재인 익모초는

아무 때나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오날 오시(午時=오전 11시서부터 오후 한시 사이)에 채취해야 약효가 좋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오날이면 익모초와 쑥을 채취하기에 매우 분주했던 것이다.

익모초는 오늘날에도 약초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단오날에만 채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단오날에 익모초와 쑥은 물론 오갈피·녹이초·우렁시 전문동·삼지구엽초·띠뿌리·금은화 등의 약초를 채취하여 활용하고 있다.

④ 쑥 채취

쑥은 엉거시과에 딸린 여러해 살이 풀로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백호(白蒿)·봉애(蓬艾)·애초(艾草)·봉호(蓬蒿)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쑥은 우리 신화(神話)에 나올 정도로 우리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년생 풀인데, 식용과 약재로서 오늘날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쑥도 역시 익모초와 같이 약용으로는 단오날의 오시(午時)에 채취하여 말렸다 쓰는 것이 효력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쑥은 다목적으로 널리 쓰여지는데 그 특징이 있다.

서산의 민속

특히 재액을 쫓는 비방이라 하여 다발로 묶어서 대문 옆에 세워두기도 하고(요즘은 이런 풍속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 또 잘 말린 쑥으로 허리 아플 때 찜질을 하기도 하고 모기불로도 피운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봄철에 연한 쑥을 뜯어다 쑥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는 별미의 하나로서 오늘날에도 널리 유행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와서는 대중 목욕탕에서 쑥을 넣어 약용으로 이용되는 쑥탕이 등장할 정도이니, 이같이 쑥의 애용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쑥은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도 쑥의 흰털은 끊어서 인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⑤ 태종우(太宗雨)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5월 초 열흘날은 태종(太宗)의 제삿날이다. 이날이면 매년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태종우」라 한다. 태종이 돌아갈 때 세종(世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바야흐로 심하니 죽어서도 얹어 있다면 반드시 이날 비가 오게 하겠다」 하였다.

그후 과연 이날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

태종은 조선조 제 3대 임금(1400~1419)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특히 백성 사랑하기를 극진히 하였다.

태종의 재위 기간 중에 한 때 가뭄이 극심하여 농민들이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상제께 청하여 비를 내리게 하리라」하고 임종을 하였는데 그후부터 비가 내려 가뭄을 면하고 풍년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뭄을 면하고 풍년이 든 것은 오로지 태종의 은혜로 알았으니, 매년 음력 5월 10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 부르는 것이요, 또한 이날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농가에서는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를 믿는 사람도 없지만 특히 수리 시설과 지하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어느정도의 가뭄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전천후 영농(全天候營農)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⑥ 유두(流頭)

유두란 명절의 하나로서 음력으로 유월 보름(6. 15)을 말한다.

김극기 집(金克己集)에 따르면 「동도(경북 경주)」에 전해 내려오는 풍속에 유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서산의 민속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 버린다. 그리고 계음(稷飲=액막이로 모여서 마시는 술자리)을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조의 풍속도 이것을 따라 토속적인 명절이 되었다. 경주에는 아직도 이런 풍속이 남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유두는 이미 신라(新羅)시대부터 시작되어 근세 조선에 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두날에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즉 밀가루로 만드는 유두면(流頭麵)을 비롯하여 수단(水團)·건단(乾團)·상화병(霜花餅)·연병(連餅)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두날에 국수(유두면)를 먹으면 장수한다 하여 모두 즐겨 먹었다.

그러나 요즘은 시의(時宜)의 탓인지 이같은 시식(時食)을 만들어 먹는 가정도 거의 없거니와, 또한 이같은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⑦ 망종(芒種)

태음력상의 24절기의 하나로서 소만과 하지 사이에 있는데, 날짜는 양력으로 6월 6~7일에 온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때는 보리도 베어야 하고 벼모는 자라서 모내기도 해야 하는 그

야말로 눈코뜰 사이도 없는 무척 바쁜 때이다.

24절기는 영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24절기를 중심으로 1년간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던 것이다.

즉 24절기를 따라가며 영농을 한 것이다. 청명이 왔으니 춘경(春耕)을 시작해야 하고 망종이 왔으니 보리도 베어야 하는 등 일의 시기와 끝맺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24절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오늘의 영농은 과학화되고 기계화되어 농촌의 대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각 읍면에는 농촌지도소가 있어 과학적인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⑧ 삼복(三伏)

초복·중복·말복을 합쳐서 일컫는 말인데, 여름의 몹시 더운 기간이다.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째 경일(庚日), 중복은 네째 경일,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째 경일을 말한다.

이와 같이 3복이 모두 경일에 해당함으로 일명 3경이라고도 하였다.

3복은 1년 중 제일 무더운 때이므로 이 무더위를 피하고

서산의 민속

보신을 위해 먹는 음식이 있었으니 그는 삼계탕과 구탕(狗湯)이었다.

이 삼계탕은 요즘도 많이 먹는 것인데, 햇병아리를 잡아서 털을 뽑고 배를 갈라 그 속에 찹쌀과 인삼 그리고 마늘 등을 넣어 푹 고아서 만든 것으로서 원기 회복에 매우 좋다하여 각 가정에서 흔히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구탕은 일명 보신탕으로서 개고기를 말한다. 특히 북중에 먹어야 보신도 되고 벽사(辟邪)도 된다하여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북날뿐만 아니라 여느때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개를 잡아 먹는데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개는 사람과 가장 친근한 가축으로서 특히 영리한 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 주기도 하며, 또한 군사상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인 보신이라는 미명하에 개를 잡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삼가해야 될 것 같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개의 귀를 잡아당겼다 하여 국회에서 까지 논란이 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좀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럽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으레 한국 사람들은 왜 개를 잡아 먹느냐고 질문 공세를 편다.

이럴때면 그들을 이해시키고 또한 변명하기에 진땀을 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런점을 가지고 우리를 경원시하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일찍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것 같다.

중국의 사마천(司馬遷)이 썼다는 사기(史記)에 따르면 「진덕공(秦德公) 2년에 비로소 삼복 제사를 지내는데 성안 4대문에서 개를 잡아서 충재(虫災)를 막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잡는 일이 곧 복날의 옛 행사였으며, 그래서 지금의 풍속에도 개장이 삼복 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 되었다고 한다.

⑨ 칠석(七夕)

칠석이란 명절의 하나로서 음력으로 7월 초이렛날의 저녁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날 밤은 은하(銀河)의 동쪽에 있는 견우성과 서쪽에 있는 직녀성이 오작교에서 1년에 한번씩 만난다고 한다.

이같은 전설은 일찍 중국의 주(周) 나라 때부터 전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나 여기선 김성배의 「한국의 민속」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는 옥황상제에게는 어여쁜 딸 직녀가 있었고, 옥황상제의 궁전과 은하수를 사이에 둔 건너 편에는 견우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옥황상제는 이 젊은이가 착하고 부지런하며, 농사 일에 열중함을 인정하여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져 결국 맑은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열심히 베만 짜던 직녀는 베틀을 멀리했고, 밤낮으로 농사 짓기에 힘을 다하던 견우는 부지런히 일하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천계(天界)의 현상이 혼란에 빠져버렸고, 농작물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사람들은 천재와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본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직녀 공주를 은하수 동쪽에 살게 했고 견우는 은하수 서쪽에 살게 하였다.

그러나 둘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을 애통하고 가엾게 여겨서, 1년에 한번씩 칠석날 밤에만 서로 만나게 해 주었다.

이 때에 지상의 까치들은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에 모여 자기들의 몸을 잇대어 다리를 놓고 견우와 직녀의 두 별이 서

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별의 환회에 넘치는 상봉도 순식간의 일이고, 새벽 닭소리를 듣고 다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칠석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날 오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1년만에 만나는 환회의 눈물이라고 하며, 또 이튿날 오는 비는 만나자 이별하는 작별의 구슬픈 눈물이라고도 전한다.

또 일설에는 견우와 직녀의 딱한 사정을 안 지상의 까치와 까마귀들이 칠석날 저녁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으니, 그 이름을 까마귀·까치의 합작이므로 까마귀 오(烏)자와, 까치 작(鵲)자를 따서 오작교(烏鵲橋)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오작교가 가설되니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다리를 가설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날은 까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다음 날에 까치를 보면 머리털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다리 가설에 흑사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칠석날에 책과 옷을 꺼내어 햇볕에 말려두는 풍속이 있다. 이는 칠석날에 말려두면 좀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그러나하면 우물에 시루떡을 해다 놓고 샘제를 지내는 지역도 있으며, 또 북을 비는 칠성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⑩ 백중(百中) 날

명절의 하나로서 음력 7월 보름날을 일컫는 말인데, 백중(百衆)·중원(中元)·백중절(百種節) 그리고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여름 동안 안거를 마치고 대중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말하여 참회를 구하며 절에 가서 재를 올린다.

근래에 들어와 민간에서는 여러가지 과실과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가지고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즐겁게 논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우리 나라 풍속에 백중날을 망혼일(亡魂日)이라 한다. 대개 여염집 사람들은 이 날저녁 달밤에 채소·과일·술·밥 등을 차려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부른다.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의 시에 「시장에 채소·과일이 지천인 것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은 혼을 천신하는구나」라고 했다.

또한 충청도 풍속에 노소를 막론하고 15일에는 거리에 나가 마시고 먹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또 씨름놀이도 한다.

그리고 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에 따르면 「세상에 전하기

를 신라의 옛 풍속에 왕녀가 육부(六部)의 여자들을 데리고 7월 16일부터 대부(大部)의 딸에 모여 배를 짜기 시작하여 8월 보름에 그 많고 적은 것을 심사해서 진 사람은 주식(酒食)을 갖추어 이긴 사람에게 사례하면서 서로 가무(歌舞)를 하며 온갖 놀이를 하다가 파하였으므로 7월 보름을 백종절(百種節)이라 하고, 8월 보름을 가윗날(嘉俳日)이라고 한다고 했다.

또한 어떤이는 말하기를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숭상 하였으므로 우란분(盂蘭盆)의 공양을 모방하는 유속을 따라 중원일(中元日)에는 백종(百種)의 꽃과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빌었으므로 그날의 이름, 곧 백종(百種)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나 이 두 설이 어느 것이 옳은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금은 다만 그 이름만 남았을 뿐 이런 행사는 사라져 버렸다.

(3) 가을철의 풍속

① 벌초 (伐草)

벌초란 무덤의 잡초를 베어서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을 말함인데, 즉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자손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잡초를 베고 말끔히 손질하여 두는 것이다.

벌초를 하지 않으면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수치가므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추석날 전까지는 반드시 산소의 잡초를 베어야 한다.

이같이 조상의 무덤을 벌초하고 깨끗이 손질함은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숭조사상에서 기인된 고유의 미속이라 하겠다.

② 추석 (秋夕)

추석은 우리 나라의 3대 명절의 하나로서 음력 8월 보름날을 말함인데, 달리 가위·한가위·중추절·가배 등으로 일컫는다.

추석은 일찍 신라의 유리왕 때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무려 2천년 가까이 전승되어 오는 최고의 명절인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8월 15일을 우리 나라 풍속에서 추석 또는 가배(嘉俳)라고 한다. 신라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시골 농촌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삼는다.

새 곡식이 이미 익고 추수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사람들은 닭고기·막걸리 등으로 모든 이웃들과 실컷 먹고 취하여 즐긴다.

경주(慶州) 풍속에 신라 유리왕 때 육부(六部)의 중간을 나누어 두 부(部)로 만들고 왕녀 두 사람으로 각각 한 부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편을 갈라 7월 16일부터 매일 일찌기 큰 부의 뜰에 모여 베를 짜게 하였다.

그리하여 을야(乙夜=二更)가 되어서야 파하였다. 이렇게 팔월 보름까지 하여 그간의 성적을 심사하여, 진 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편에 사례했다.

이 때 노래와 춤을 추며 온갖 놀이로 즐겼다. 이를 「가배」라 하였다.

이 때 진 편외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되 「회소(會蘇) 회소」하니 그 소리가 애처롭고 아담하여 그 소리를 따라 노래를 지으니 이것이 이른바 「회소곡」이라 한다.

우리 나라 풍속에 지금도 이를 행한다.

서산의 민속

또한 열양세기(冽陽歲時記)에 따르면, 가배(嘉俳)란 명절은 신라에서 비롯되었다. 이 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벽촌의 가난한 집에서라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하여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추석은 분명히 즐거운 명절의 하나로서 햅쌀로 송편을 빚고 또한 여러가지 햇과일과 주식(酒食) 등을 차려 놓고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데, 이때는 먼곳에 나가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송조사상을 기리며, 따라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도 한다.

이처럼 추석이야 말로 한 여름 땀 흘려 일한 보람을 느끼면서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낼 뿐만 아니라, 서로 이웃끼리 오가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특히 이같은 농부들의 즐거움이야 말로 더 이상 비할데 없는 것이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도 이리하여 나온지도 모른다.

해를 거듭할 수록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각 교통 기관이 붐비고 있음을 볼 때, 역시 2천년 가까이 전통으로 굳어져 내려온 이 추석의 봄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확대 되어 갈 것으로 믿는다.

특히 금년(1986)의 경우는 추석 다음 날까지 연휴로 지정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다. 통계에 의하면 2 백만명이 넘었다 하니 이는 분명히 민족의 대이동을 방불케 한 대행사였다.

③ 중앙절(重陽節)

중앙절은 옛 명절의 하나로서 음력 9월 9일을 말하는데, 이를 달리 중구절(重九節)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빛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든다. 방법은 3월 삼진날의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이것을 국화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3월의 진달래 꽃전과 9월의 국화전은 계절적인 시식(時食)으로서 미각을 돋구어 주었던 것이다.

옛날은 중앙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가지고 야외로 나가 단풍놀이 등으로 하루를 즐겼으며 또한 사대부들은 대부분 시를 지어 읊조리면서 흥취를 돋구었다.

이같은 습속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라져간지 오래되었지만

서산의 민속

그 대신 요즘은 생활이 향상되고 교통이 발달하여 계절 불문하고 수시로 관광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④ 시제(時祭)

시제는 음력으로 10월 보름날을 전후하여 지내는데,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하여 한번에 지내고, 그 이하 즉 4대조까지는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서 아니면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낸다.

시제를 지낼 때는 원근의 후손들이 산소 앞에 모여서 제향을 올리는데, 이 때의 제물은 후손들이 해마다 운반으로 마련하거나 또는 위토답(位土畓)을 경작하는 집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이 시제는 각 가정에 따라 대부분 거행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 참가하는 후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시제 또한 우리의 숭조사상을 기리는 전통적인 미속의 하나이다.

⑤ 김장

겨우내 먹기 위해 김장철에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김치를 통틀어 김장이라 하는데, 이 김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담그는 방법과 재료에 의해 그 명칭도 다양하지만, 김치는 주로 배추와 무우김치가 중심이 되는데, 계절에 따라 종류도 다르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애용되는 몇가지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깍두기·열무김치·동치미·나박김치·석박지·백김치·총각김치·채김치·짬지·젓국지·보김치·배추통김치·부추김치·파김치·갓김치·겉절이·오이소박이 등등 실로 많다. 그런데 요즘은 주로 배추김치·깍두기·오이김치·싱전지(싱전김치)·총각김치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재료로는 주로 고추가루·마늘·생강·파·당근·갓·밤·배·낙지 그리고 각종의 젓갈류와 조미료 및 소금 등이 들어 간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재료를 쓰지만, 역시 김치의 종류나 재료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담그는 것이 좋다.

또한 김치는 긴 겨울 동안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얼지않게 잘 간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땅을 파고 김치독을 묻어두는 가정이 많은 것 같다.

김장은 대개 입동(立冬) 전후해서 담그는데 요즘은 시골에서도 많이 담그지 않고 수시로 재료를 사다 담가 먹기도 한

서산의 민속

다.

특히 옛날에는 농가에서의 김장은 반 농사(半農事)라 하여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이에 대단한 관심을 쏟았으나,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채소 재배법과 저장법이 매우 발달하여 수시로 필요한만큼 김치를 담글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김치 문화는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그 진가를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4) 겨울철의 풍속

① 동짓날

태음력상의 24 절기의 하나로서 스물두번째에 해당되는데, 양력으로 대설(大雪)뒤의 12월 22~23일에 온다.

이 때 북반구에서는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남반구에서는 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이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한다.

이 날 팔죽을 쑤는데 찹쌀 가루로 새알 모양의 떡을 만들어 그 죽 속에 넣어 새알심을 만들고 꿀을 타서 시절음식으로 삼아 제사에 쓴다.

그리고 팔죽 국물을 문짝에 뿌려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

팔죽을 뿌리는 풍습은 일찍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형초세시기」에 따르면 공공씨(共工氏)가 재수없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팔을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 팔죽을 쑤어

서산의 민속

물리치는 것이라」하였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상감(觀象監)에서는 동짓날 임금님께 달력을 진상한다. 진상받은 달력을 임금이 보시기도 하고 각 관청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달력에 「동문지보(同文之寶)」란 어새를 찍었다.

달력에는 황장력(黃粧曆), 백장력(白粧曆), 청장력(靑粧曆), 중력(中曆), 상력(常曆)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다. 지금도 동짓날 시골에서는 팥죽을 쑤어 먹는 가정이 있는데, 이는 축귀 보다는 오히려 별미로 쑤어먹는 가정이 많은 것 같다.

② 납일(臘日)

납일이란 납향(臘享)하는 날을 일컬음인데, 이는 당년에 지은 농사의 실태와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알리는 제사로서 달리 납평제(臘平祭)라고도 한다. 납일은 본래 동지로부터 세째 술일(戌日)로 하였던 것을 조선조의 이태조(李太祖) 이후부터 동지뒤의 세째 미일(未日)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납일에는 엿을 고아 먹기도 하며, 청소년들은 참새를 잡으러 이곳 저곳으로 쏘다니기도 한다.

특히 이날의 참새고기는 진미이며, 따라서 늙고 약한 사람

에게 좋다고 하므로 민가에서는 많이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았던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참새를 잡아 어린이를 먹이면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향간에서는 이날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하고 활을 쏘아 잡기도 한다.

또한 남일에 온 눈의 녹은 물은 약용으로 쓰며, 또 그 물에 물건을 적셔두면 구더기가 발생치 않는다고 했다.

요즘은 이같은 내용을 믿는 사람도 없지만, 또한 이같은 풍속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

③ 제석(除夕)

제석이란 설날 그믐날 밤을 말함인데 달리 제세(除歲),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설날 그믐날 밤에, 방, 마루, 부엌 등 집안의 구석구석에 대낮같이 환하게 등잔불을 켜놓고 밤새움을 하는데 이것을 수세(守歲)라 하였다.

이와같이 밤새도록 집안이 환하게 불을 켜놓는 것은 잡귀(雜鬼)를 막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날은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하여 이를 믿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소설책을 읽거나, 또는 윷놀이를 하는 등으로 밤새움을 하였다.

그러나 짓궂은 장난꾸러기들은 잠자는 아이들의 눈썹에 분

서산의 민속

가루나 밀가루 등을 묻혀 두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게 한 다음 눈썹이 희어졌다고 마구 놀려대면 사실인줄 알고 아이들은 울기도 하였다. 요즘은 수세도 없거니와 이같은 내용을 믿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것 같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옛날에는 「연소자들이 친척 어른들을 찾아 방문하는 것을 묵은 세배(舊歲拜)한다. 그리하여 이날은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길거리의 등불이 줄을 이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대궐안에서는 제석 전날에 대포를 쏘는데 이를 연종포(年終砲)라 한다. 그리고 화전(火箭)을 쏘고 징과 북을 울리는 것은 곧 대나(大難)의 역질 귀신 쫓는 행사의 남은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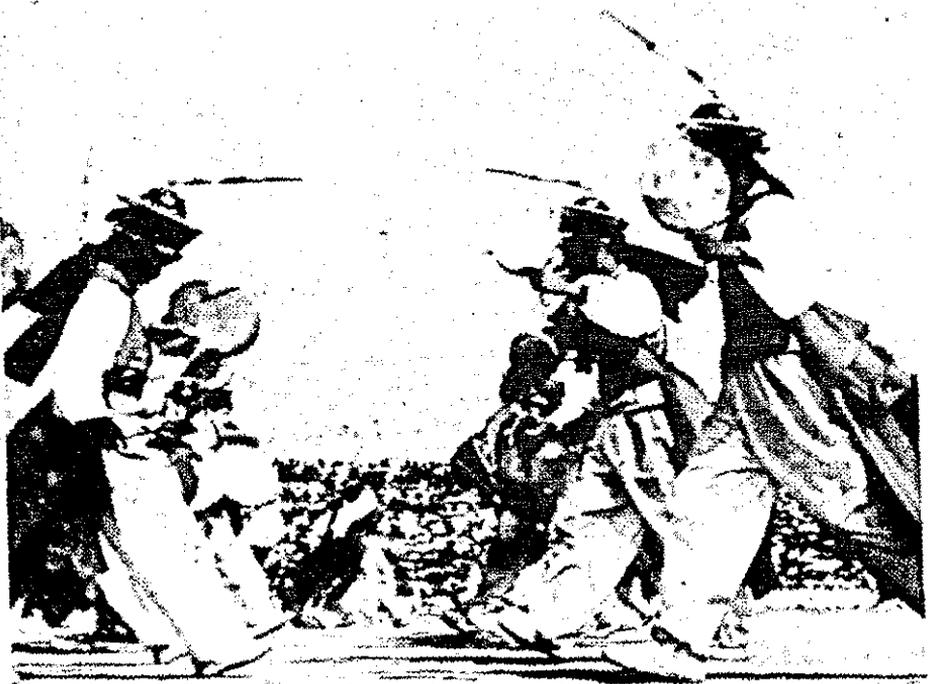
또 제석과 설날에 폭죽(爆竹)을 터뜨리는 것은 귀신을 놀라게 하는 제도라 하였다.

또 설달 그믐날 밤의 자정에는 여러곳의 절에서 백팔 번뇌(百八煩惱)를 없앤다는 뜻으로 108번의 종을 치니 이를「제석의 종」이라 하였다.

지금은 다른 풍속은 거의 사라졌지만 「제야의 종」은 타종되고 있다. 오늘의 제야의 종이 제석의 종에서 유래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12월 31일 밤 자정이면 서울특별시장이 종각에 나와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3번 타종한다.



2. 민속 놀이



① 가마 놀이

이 가마놀이는 주로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것인데, 세 사람이 있어야 가마를 만들고 탈 수 있는 놀이이다.

세 사람이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는데, 이때 이긴 사람은 가마를 타고, 진 두 사람은 가마를 만들어야 한다.

가마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재료를 구입해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팔을 엮어서 즉석 가마를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한 사람이 바른 손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다시 왼손으로 상대방의 바른 손목을 잡으면, 상대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손이 4 각형으로 조립된다. 이와같이 손 가마가 만들어지면, 이긴 사람이 가마에 올라타고 지정된 목표까지 갔다 돌아오는 놀이이다.

다음은 다시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결정하고, 위와같이 되풀이 하여 즐겁게 노는 놀이이다.

② 깨끔질 싸움

깨끔질이란 방언으로서 양감질을 말한다. 흔히 닭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는 침탁(蹠踏)이라고 쓴다.

이 놀이는 주로 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된 것인데, 두 사람이상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놀이다.

서산의 민속

방법은 바른쪽 발은 땅을 딛고 왼쪽 발은 무릎을 꼬부려 올린다음 손으로 발목이나 바지끝을 움켜 쥐고 한발로 뛰어 다니며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한다.

이때 왼쪽 발을 놓치거나 상대방을 손으로 밀면 반칙으로 지는 것이다.

이 놀이는 서로 규칙을 잘 지켜서 정정 당당하게 싸워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다. 또한 어느정도의 재치와 요령이 필요하다.

한 발로 뛰어다니며 상대방의 무릎을 아래서 위로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강하게 눌러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

또는 용감하게 상대방 앞으로 돌진하여 무릎이나 몸통으로 상대방을 밀어서 쓰러뜨려야 이기는 것인데, 인내력과 힘이 결비해 있으면 더욱 유리하다.

③ 고 누

고누는 오락의 하나로서, 땅바닥이나 종이 등에 여러가지 고누의 모형을 그려 놓고 돌, 나뭇가지, 풀잎 등을 말로삼아, 두 편으로 나누어 벌여 놓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따내거나 또는 상대방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고누는 옛부터 내려오는 민속의 하나로서 그 종류 또한 다양한데,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지혜놀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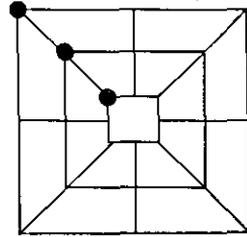
필자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땅바닥에 고누를 그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오늘의 우리 주변에서는 고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으니 거의 사라진 모양이다.

다음은 사라져간 고누의 종류와 두는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끈질고누

이 끈질고누는 여느 고누보다 다른점이 있다.

처음부터 필요한 몇개의 말을 두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나씩 놓아 가면서 두어가는 것인데, 이때 3개의 말이 먼저 일렬로 늘어서게 되면 상대 편의 말을 하나씩 잡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놓을 때는 상대방보다 먼저 3개가 한줄로 나란히 되도록 놓아가면서, 상대방의 말이 3개가 늘어서지 못하도록 이를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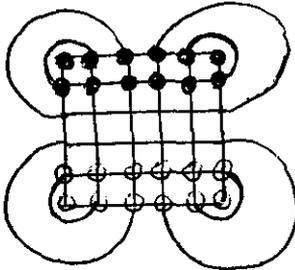
서산의 민속

이렇게 하여 빈 발이 없도록 말이 모두 놓여지게 되면, 다음부터는 이미 따낸 말 자리로 옮겨가면서 3개가 1열이 되도록 하는데, 이럴때마다 상대방의 말을 하나씩 잡아내어 결국 2개가 남으면 이기는 것이다.

말 두개로서는 상대방과 겨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고수가 한 판이 끝나려면 약 20여분 이상이 걸리므로 시간 보내는 데는 매우 좋은 놀이라 하겠다.

나). 물래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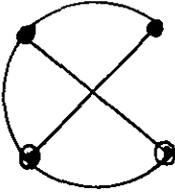


이 물래고누는 다음에 설명할 육발고누와 비슷한 것인데, 그림에서보는 바와 같이 각 모퉁이에 접으로 반월형을 그린 것이 특이 한 것이다. 또한 말을 두는 법과 말 수도 육발고누와 같으나 다만 상대방의 말을 잡을 때에는 반월형의 둘레를 돌아서 직진할 때 상대방의 말이

걸리면 이를 잡는 것인데, 이때는 한발씩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발을 가도 무방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상대방의 말이 다 잡히면 이기는 것이다.

다). 삼고누(우물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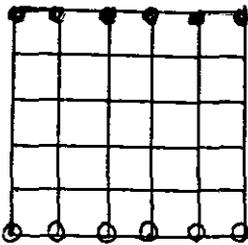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샘고누는 그 모형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쉽게 익히어 둘 수 있는 고누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고누는 두 사람이 두는것인데 말은 상대방이 각각 2개씩 가지고 두게 되어있다.

그리고 빈말은 한군데 밖에 없어서, 나가는 길이 막히어 상대방에게 갇히게 되면 지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누를 둘 때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침착하게 두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괜히 서둘러서 덤벼면 실패하는 수가 거의 많은 편이다.

라). 6발고누



이 6발고누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세로와 가로로 각각 6개의 줄을 그은 다음, 상대가 서로 6개의 말을 가지고 두는 놀이인데, 이때 한 발씩 움직여서 상대방의 말을 가운데에 가두어 놓고 잡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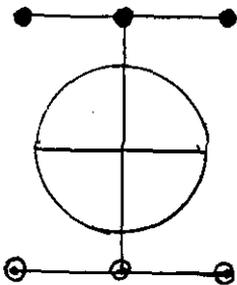
그러나 이 고누는 발 수가 많으므로 상대방을 가두고 잡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작전 계획을 잘 세우고 슬

서산의 민속

기롭게 움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 결국 말이 상대방에게 잡혀 적게 남은 편이 지는 것이다.

이 고누는 서로 상의하여 4발 8발 등등 여러 발으로 만들어 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 호박고누



이 호박고누도 앞에서 말한 샘고누와 같이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있는데, 달리 사발고누라고도 한다. 말은 쌍방이 각각 3개씩 가지고 두는데, 하나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여 상대방의 말이 있었던 곳으로 3개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의 말이 자기 위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으니 이럴때는 슬기롭게 두어야 이기는 것이다.

④ 공기놀이

이 공기놀이는 밤틀만한 돌을 땅바닥에 놓고 집고 받는 주

로 어린 소녀들이 하는 놀이다.

공기놀이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기돌을 한줌 집어서 땅 바닥에 흐트러지게 놓은 다음, 그 중에서 한개를 집어서 공중 높이 던진 다음 땅에 있는 돌을 하나 집고 다시 공중에 던진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는다.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2개, 3개, 4개씩 집어서 많이 따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둘째는 공기돌을 여러개 공중으로 던진 다음 이것을 손등으로 받는다.

손등에 올라 앉은 돌을 이미 땅바닥에 흐트러 놓은 돌옆에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 공중으로 다시 높이 던진 다음, 먼저 땅에 놓았던 돌을 집고 또 공중에 던진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함께 집어야 한다.

이같이 되풀이 하여 많이 집어 모은 편이 이기는 것이다.

세째 지금까지는 공기돌을 제한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가지고 하였지만 이제는 5개를 가지고 하는 놀이인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수집기

공기돌 5개를 가지고 하나를 공중에 던진 다음 4개를 땅에 놓고 다시 공중에 던진 돌을 잡는다.

서산의 민속

그 다음 집은 돌을 공중으로 올리고 땅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4번 줍는다. 다음은 돌씩 두번 줍고 또 다음에는 셋을 한번에 줍고 나머지 한 개를 줍는다.

그리고 막줍기를 하는데, 이 막줍기란 마지막으로 4개를 한꺼번에 집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기둥박기

돌 5개 중 3개는 땅바닥에 놓고 1개는 손에 가진 돌로 땅바닥에 있는 돌을 마치 기둥 박듯이 콕 찍는 것인데 이 때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다.

다). 알날기

왼쪽 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공기들을 4개는 땅바닥에 놓고 1개는 공중으로 높이 던진 다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땅바닥에 놓여있는 돌을 1개, 2개, 3개, 4개를 한꺼번에 가슴에 댄 왼손에 넣는 놀이이다.

라). 알퐁기

왼손을 땅바닥에 빈쑹 꼬부려서 손바닥을 닿게 하여 놓은 다음 공기들 4개는 땅에 놓고 1개는 공중에 던져 그 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1개, 2개, 3개, 4개씩 차례로 왼손에

밀어 넣는 놀이인데,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서 「알품기」라 이름 붙인 것이다.

마). 알까기

왼손을 땅바닥에, 대는데, 이 때 손바닥은 땅에 대지 않고 손가락만 닿게 하여 약간 공간이 생기게 하여둔다.

이렇게 한 다음 공기들을 4개는 땅에 흘뜨려 놓고 1개는 공중에 던지는데 이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돌을 왼손 뒤로 1개씩 밀어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동작은 마치 새가 알을 까서 새끼가 태어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니 이 놀이를 이름하여 「알까기」라 하였다.

바). 내리기

앞에서 말한 알낱기 동작을 푸는 동작이다. 즉 알낱기에서 공기들을 왼손에 넣었던 것을 꺼내어 다시 땅바닥에 내려놓는 동작인 것이다.

알낱기도 어려웠지만 내리기는 더욱 힘든 놀이다. 특히 손에서 꺼낸 돌을 땅바닥에 놓을 때는 조용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 솔걸기

서산의 민속

이 솔걸기 놀이는 공기돌을 우선 땅바닥에 4개를 흠뜨려 놓고 1개를 공중에 던진 다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땅에 있는 공기돌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모아 놓는다.

솔젓같이 모아 놓고 그 위에 1개의 공기돌을 올려 놓는다. 마치 솔을 걸듯이 올려놓는 것인데, 이 때 잘못하여 돌이 떨어지면 틀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솔걸기 놀이는 다른 동작에 비해 좀 어려운 것이다.

아). 불때기

이 불때기 놀이는 마치 아궁이에 불때는 시늉을 하는데서 이름 붙여진 것인데, 왼손을 땅바닥에 대고 그 속에 공기돌을 1개씩 밀어 넣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알퐁기의 방법과 비슷한 동작인데, 다만 돌을 넣을 때는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야 하며, 또한 돌을 넣을 때는 손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상으로 공기놀이의 여러가지 동작을 살펴보았다. 공기놀이는 심심할 때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어디서나 즐겁게 놀 수 있는 소녀들의 놀이이다.

따라서 여러사람이 편을 짜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공기놀이 보다는 오히려 고무

줄 놀이가 더욱 유행되고 있는 것 같다.

⑤ 그림자 놀이

이 그림자 놀이는 저녁에 등잔불 주위에 모여 앉아 손으로 여러가지 물건의 시늉을 내면 그 그림자가 벽에 나타나 마치 실물의 모양과 비슷하므로 매우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농촌에도 대부분 전기가 들어와 밤에도 낮같이 밝아서 이 그림자 놀이가 잘 안되지만, 예전의 등잔불 밑에서는 개·여우·나비·꼬갈 등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 매우 유쾌하게 놀았던 것이다.

⑥ 눈싸움

이 눈싸움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서로 눈을 크게 뜨고 오랫동안 깜박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눈이 깜박이도록 손가락질을 하여 방해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반칙이므로 사전에 룰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⑦ 다리헤기

이 다리헤기 놀이는 주로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행하여

서산의 민속

지는 것인데, 방이나 마루 등에 마주 앉아서 상대방의 다리와 다리 사이에 서로 다리를 뺏고 하는 놀이이다.

이렇게 다리를 뺏고 마주 앉은 바른 쪽에서부터 다리를 헤어가는데 이 때 헤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다리를 헤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끝소리가 다리에 닿으면 그 다리는 제쳐놓는다. 이렇게 몇번 되풀이 하여 마지막에 남는 다리가 벌을 받거나 또는 재수가 없는 다리라 하여 여러 사람들이 놀려준다.

이와 같이 다리 헤기의 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본 군내에서 불리워졌던 노래를 참고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거리 두거리 각거리
인사 만사 주머니 끈
돌돌 말아 장두 칼
애 장두 허리 띠
고드래 문이로
똥기땡」

⑧ 딱지치기

이 딱지치기는 주로 소년들이 마루나 평평한 땅바닥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 때의 딱지는 두꺼운 종이를 오려서 만들거나 또는 보통 종이를 몇 겹으로 단단하게 접어서 쓰는 것이다.

이 딱지치기의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데, 진 사람이 자기 딱지를 땅바닥에 얹어 놓으면 이긴 사람이 자기 딱지로 내려쳐서 상대방의 딱지가 짓혀지면 그것을 따먹지만 만약 짓혀지지 않을 때는 상대편과 교대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선을 그어 놓고 딱지를 내려쳐서 상대방의 것이 선 밖으로 나가면 따먹는 등 몇가지의 딱지놀이가 있다.

한창 재미있게 딱지치기를 할 때에는 식사시간도 잊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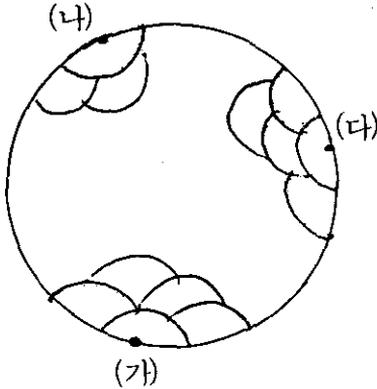
한창 딱지치기가 유행할 때는,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언제나 딱지가 들어 있지 않을 때가 없었으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딱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⑨ 땅빠앗기

이 땅빠앗기 놀이는 소녀들 보다 주로 소년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놀이 이다.

이 놀이는 두 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서산의 민속



우선 판판한 땅바닥에 인원 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원을 그려놓고 그 둘레에 마주 앉아서 줄에 대고 각각 집을 그린다.

이 때의 집의 크기는 자기의 뺨의 크기를 그리기 때문에 각기 다르지만, 집은 모두 반월형이 되는 것이다. 이 집은 각자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본토가 되는 셈이다.

다음은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사람이 먼저 자기의 근거지에서부터 장뺨의 크기로 빈땅을 우선 빼앗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빈곳이 없으면 다음은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아 들어가는데, 이 때 먼저 빼앗기는 편이 지는 것이다.

이 밖에도 땅빼앗기 놀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본군내에서 주로 널리 행하여졌던 것은 위의 그림과 같은 것이었다.

⑩ 독장수 놀이

이 독장수 놀이는 주로 소년들 사이에서 행하여 지는 것인데, 장소는 마당이나 또는 들같이 넓은 곳이면 더욱 좋다.

이 놀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흥미있는 것이다. 이 놀이에 동참할 아이들이 모이면 이 중에서 두 사람의 주역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역으로 뽑힌 두 사람은 집단에서 떨어져 저쪽으로 가서 한 사람을 마치 독장수가 독을 지게에 진거같이 사람을 독 모양으로 가로로 엮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을 진 사람은 아이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독사려 독이요」 하고 외친다. 그러면 모여있는 아이들은 독을 사려고 손등으로 독을 툭툭 두들겨 본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두들기는 것이다).

이같이 독을 두들기는 것은 주부들이 독을 살 때에 실제로 손등으로 두들겨 봄으로써 깨어지고 깨어지지 않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독장수는 독을 지고 아이들 사이를 빙빙돌면서 독을 사라고 외치지만 두들겨만 보고 쉽게 사지 않는다.

이때 짓궂은 장난꾸러기들은 고의적으로 독을 힘껏 두들기므로 이 때 독이된 사람은 머리가 아파서 도중에 놀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몇번이고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독이 팔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독이 팔리면 다시 교대하여 놀이를 계속해야

서산의 민속

하지만 독이 되기를 모두 꺼려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도 한다.

⑪ 돈치기

이 돈치기 놀이는 주로 시골의 청소년들이 넓은 마당에 줄을 그어 놓고 하는 놀이인데, 두 사람이면 할 수는 있으나, 4·5명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방법은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가로로 줄을 긋거나 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 놓고 그곳에서부터 약 3미터 전방에 1미터 가량의 줄을 가로로 그은 다음 약 20센치 앞에 동전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어 놓는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다음 우선 돈치기의 순서를 정하는데, 이 순서는 제각기 동전을 던져서 구멍쪽에 가까이 떨어진 사람이 순위가 빠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결정되면 첫째번 사람이 모아진 동전을 주먹에 쥐고, 전방의 구멍을 향해 던지는데, 이때 구멍 속에 들어간 것은 공짜로 먹게 되지만 줄 밑으로 떨어지면 벌금을 내야 하는 룰도 있어 재미있는 놀이이다.

다음은 구멍 주위에 흐트러져 있는 돈을 손바닥만한 돌로 상대방이 지정하여 주는 것을 맞추어 따먹는 것인데, 이 때는 될 수 있는 한 맞추기 어려운 것을 상대가 지적하게 되므

로 매우 어려운 놀이이다. 이 때 만약 지적해 준 것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동전을 마치게 되면 규칙에 따라 또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이 돈치기 놀이도 역시 지혜롭게 해야 하므로 구멍 속에 넣기가 어려울 바에야 차라리 돈의 간격이 넓게 떨어질 수 있도록 뿌려 놓고 지적하는 것을 명중시켜 따먹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이같은 놀이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사라져간 것 같다.

⑫ 두꺼비집 짓기

이 두꺼비집 짓기놀이는 주로 모래를 이용한 놀이인데,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흔히 바닷가나 강변 등지에서 많이 행하여지는 놀이이다.

이 놀이의 방법은 우선 왼손을 모래 속에 파묻고 바른 손으로는 그 위를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 왼손을 빼면 그 모양이 마치 두꺼비같이 보이므로 이 놀이를 두꺼비집 짓기놀이라 부른 것 같다.

특히 이 놀이는 여름철의 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의 놀이이지만, 때로는 어른들도 가담하여 아이들의 흥취를 돋구어 주고 있다.

서산의 민속

⑬ 말타기

말타기 놀이는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 또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마당이나 운동장 또는 골목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놀이 인원은 10명 내외가 가장 이상적인데, 우선 말과 마부를 결정해야 한다. 말과 마부가 결정되면 말이된 아이는 마부의 허리를 두 팔로 꼭 잡고 자기의 허리를 굽히는데, 이때 마부는 말의 목을 잡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차례로 달려와서 말의 등에 올라 탄다. 말은 이 때 등에 타지 못하도록 발로 자기 등에 있는 아이들을 차는데 쉽게 채이지 않는다.

이 때 말발에 채이게 되면 말과 교대해야 한다. 이 놀이는 지금도 행하여지고 있다.

⑭ 바람개비 돌리기

바람개비 돌리기 놀이는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 또래의 소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람개비의 크기는 개인의 취미와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센치 길이의 정사각형의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데, 약간 두꺼운 것이 좋다.

이같은 종이가 준비되면 우선 4 귀퉁이를 가위나 칼로 베

는데, 이때 중심부는 직경 약 2센치 가량 남겨 놓아야 한다.

다음엔 벤종이의 끝을 한데 모아서 중심부에 긴 못을(대나무 못)을 박아 통대나무에 꽂아 손에 들고 달리거나 또는 바람이 불어올 때 들고 있으면 잘 돌아 간다.

바람개비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요즘은 이같은 놀이도 거의 사라져 간 것 같다.

⑮ 방아깨비 놀이

이 방아깨비는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다.

여름철에 풀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뒷다리가 매우 커서 이 두개의 뒷다리를 손으로 잡으면 마치 디딜방아처럼 끄덕 끄덕 몸을 움직이므로 이를 보고 방아깨비 방아짚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 노래를 부르면 마치 리듬에 맞추는 양 제법 방아짚기를 잘 한다.

부르는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침방아 짚어라

저녁방아 짚어라

쿵쿵 짚어라

서산의 민속

빨리빨리 짚어라」

⑩ 비석치기

이 비석치기 놀이는 국민학교 5,6학년 또래의 남녀 아이들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길이 2·30센치쯤 되는 비석 모양의 4 각형의 돌을 주어다 자기의 서 있는 위치에서 약3미터 전방에 세워놓는다.

이렇게 세워놓은 돌을 비석으로 가정하고 놀이를 시작하는데 그 순서와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목대를 던져 비석을 넘어뜨린다.
2. 다음은 발로 목대를 차서 비석을 넘어뜨린다.
3. 다음은 발로 목대를 차서 비석을 넘어뜨린다.
3. 다음은 목대를 발등에 올려놓고 비석 앞 약 1미터 앞에 가서 발로 목대를 던져 비석을 넘어뜨린다.
4. 두 무릎 사이에 목대를 끼어넣고 앞으로 4번 뛰어간다
옴 5번째에 목대를 떨어뜨려 비석을 넘어뜨린다.
5. 다음은 목대를 배 위에 올려놓고 가서 이를 떨어뜨려 비석을 넘어뜨린다.
6. 목대를 등에 올려놓고 가서 내려뜨려 비석을 넘어뜨린다.

7. 목대를 앞가슴에 올려놓고 가서 이를 떨어뜨려 비석을 넘어뜨린다.
8. 다음은 좌우 어깨 위에 목대를 차례로 올려놓은 다음 이를 떨어뜨려 비석을 넘어뜨린다.
9. 목대를 입에 물고 가서 비석을 넘어뜨린다.
10. 다음은 목대를 콧등 위에 올려놓고 가서 비석을 넘어뜨린다.
11. 목대를 좌우의 눈두덩 위에 차례로 올려놓고 가서 비석을 넘어뜨린다.
12. 다음은 목대를 양쪽 귀 사이에 차례로 끼고 가서 내려뜨려 비석을 넘어뜨린다.
15. 마지막 순서인데 좀 어려운 방법이다. 즉, 목대를 뒤로 던져서 비석을 넘어뜨려야 한다.

이같은 방법을 순서대로 계속 실시하여 상대방의 비석을 먼저 넘어뜨리는 편이 이기는 것인데 놀이로서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이다.

⑰ 서 리

때를 지어 다니며 남의 과실이나 가축 등을 주인 모르게 잡아다 먹거나, 따다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농촌의 청소년들에 의해 밤 중에 행하여졌던 것이다.

서산의 민속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서리·밤서리·콩서리·대추서리·배서리·사과서리·참외서리·수박서리·무우서리·담서리·토끼서리 심지어는 돼지서리까지도 서슴치 않고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청소년들이 밤늦도록 사랑방에 모여 놀다가 출출해지면 몇 사람씩 작당하여 서리를 하였던 것이다.

또한 옛날에는 밤늦도록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끝나게 되면 출출해진 김에 선생님 몰래 적당한 사랑방에 모여 의논 끝에 서리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서리한 사실이 다음날 주인에게 알려져도 주인은 이를 절도 행위로 보지 않고 장난으로 보아 관대하게 용서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정은 매우 달라졌다. 물론 서리도 거의 없어졌지만, 만약 서리를 하다 발각되면 이를 절도로 보고 관계 당국에 고발하거나 또는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니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나 할까.

⑱ 수건 돌리기

이 수건돌리기 놀이는 소년들보다는 주로 소녀들이 집단으로 모여 행하여지는 것인데, 인원이 많을 수록 좋으며 또한 장소는 넓은 마당이나 잔디밭 혹은 백사장 등이 가장 알맞는

다.

많은 사람들이 둥글게 앉은 다음 우선 술래를 뽑아야 한다.

뽑힌 술래는 수건을 뭉쳐가지고 사람의 뒤를 돌다가 적당한 곳에 수건을 떨어뜨리고 간다. 이때 자기 뒤에 수건이 놓여 있으면 이를 재빨리 훑어가지고 놓은 사람을 쫓아가 잡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뒤에 다시 붙여 놓아 두고 돌다가 빈자리에 돌아가 앉는다.

이 때 잡힌 사람은 원 안에 들어가 벌을 받거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 밖에도 수건을 다리 밑으로 손을 넣어서 수건을 이리저리 돌리는 놀이가 있는데, 이는 무릎을 세우고 둥글게 원을 이루고 앉아서 그 무릎 밑으로 손을 넣어서 수건을 이리저리 돌리는 것이다.

이때 원 안에 있는 술래에게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 벌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

①9 숨바꼭질

이 숨바꼭질 놀이는 주로 국민학교 학생 또래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놀이인데 낮보다도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난다.

숨바꼭질은 농어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놀이인데, 집을 기

서산의 민속

둥이나 대문 또는 절구통 등에 정하여 놓고 이를 중심으로 뿔힌 술래가 집에 얼굴을 대고 눈을 감은 채로 일정한 숫자를 헤아리는 동안 그대로 있으면, 숨바꼭질에 참가한 아이들은 제각기 모두 숨어버린다.

이 때 술래는 수(20~30)를 다 헤아리고 나서 숨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되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술래가 되지 않으려고 찾기 힘들게 꼭꼭 숨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숨은 아이들을 모두 찾아냈을 때에 한하여, 제일 먼저 발견된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몰래 술래집으로 돌아오면 술래를 면하는 것이다.

이 숨바꼭질 놀이는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군에서 유행되었던 또 하나의 숨바꼭질 놀이를 살펴보면, 넓은 마당에 원을 그려놓고 50센치 가량의 막대기를 준비 한다.

그 다음 이 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이면 그 중 한 사람이 이 막대기를 멀리 던진다. 이 때 술래는 막대기를 쫓어다 집안에 놓고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술래가 막대기를 쫓으러 갔을 때에 재빨리 숨어

야 하는 것이다.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갔을 때, 숨었던 사람이 술래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몰래 술래집으로 돌아와서 「깡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술래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이 때 막대기를 다시 멀리 던지고 먼저 찾은 사람과 함께 또 숨는 것이다.

술래는 숨은 사람을 다 찾아내야 술래를 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술래에 의해 발견된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등의 노래를 부르며 숨어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한다.

이 숨바꼭질 놀이는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전원이 모두 즐겁게 노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㉔ 실뜨기

이 실뜨기 놀이는 약 1미터쯤 되는 노끈이나 아니면 실의 두 끝을 마주 매어 가지고 양쪽 손에 걸은 다음 이것을 대서 양쪽 손가락에 열기설기 엮어가지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주고 받고 하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드는 놀이이다.

젓가락·철구공이·장구·거미줄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도중에 어느 한 쪽이 어떤 형태의 모양을 만

서산의 민속

들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이 실뜨기는 주로 소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서 실시할 수 있는 놀이이다.

㉑ 앉은뱅이 놀이

이 앉은뱅이 놀이는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주로 행하여 지는 놀이인데, 글자 그대로 앉은뱅이의 시늉을 내며 하는 놀이이다.

여러사람이 모이면 우선 술래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앉은뱅이 모양으로 앉는데, 이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술래한테 잡히어 술래가 되는 것이다.

술래가 다른 쪽으로 갔을 때 잠시 술래의 눈을 피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시 이쪽으로 올 기미가 있으면 재빨리 앉아서 술래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짓궂은 아이들은 재빨리 술래 앞으로 가서 앉는 등 술래를 놀려 주기도 하는데, 이 때 술래는 몹시 화가 나는 것이다.

㉒ 알아맞추기

이 알아맞추기 놀이는 주로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로서 두 사람 이상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다.

방법은 동전이나 단추같은 적당한 것을 주먹 안에 넣으면 그 갯수를 상대방이 알아 맞추는 것이다.

이 때 상대방이 갯수를 알아맞추면 손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 주지만, 맞추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수 만큼 내놓아야 하며, 따라서 맞출 때까지는 게임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㉓ 연날리기

이 연날리기 놀이는 지방에 따라서는 설날(12월) 중순경부터 시작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절정기는 역시 설날에서부터 대보름날 사이이다.

연날리기는 우리 나라의 정초의 「3대 놀이」의 하나로서 남자들이 즐기는 윷놀이와 부녀자들이 즐기는 널뛰기 못지 않게 멋지고 호쾌한 놀이이다.

이 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즉 신라의 진덕여왕 1년(648)에 이미 연날리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또한 고려시대의 최영(崔瑩) 장군이 제주도를 정복할 때에 연을 활용했다는 설도 있다.

연은 주로 한지(韓紙)와 대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크기는 대략 가로 2자, 세로 3자 정도의 종이에 가운데를 동그랗게 오려내고 이 구멍을 중심으로 하여, 준비하여 둔 얇은

서산의 민속

대나무쪽을 쌀 미자(米)형으로 붙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 부분에 가로로 붙인다.

이와 같이 대나무 쪽은 모두 5개가 필요한데, 이 때 머리 부분과 중간에 가로 붙여논 대나무를 초생달 모양으로 약간 오그라지게 실로 죄어 묶은 다음 다시 머리와 아래쪽에 실을 매고 또 꼬리를 길게 붙여 공중에 띄우는 것이다.



연날리기 대회 모습

이 때 각자의 취미에 따라 연에다 아름답게 채색을 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연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날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역시 연싸움이다. 이 연

싸움은 상대편의 연줄과 서로 엇갈리게 하여 다투다가 연줄이 끊어지면 지는 것이다.

연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짓궂은 자는 계책을 쓴다. 즉 사기나 유리가루를 풀에 개어 연줄에 바른 다음 상대와 싸우면 그 날카로운 유리가루에 상대방의 연줄이 끊어지게 된다.

요즘도 연날리기는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날리기 국제대회」까지 열리고 있어 매우 흥미있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속담에 빛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사람에게 「대추나무 연걸리듯」하다라고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도 옛날에는 연날리기를 꽤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욱 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대추나무 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시골의 민가 근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과거의 우리 농촌의 풍경이 마냥 그리워지기도 한다.

옛날엔 정초부터 날리던 연을 정월대보름날이면 멀리 날려 보냈는데, 이 때는 연에다 송액(送厄)이라고 붓으로 크게 써서 하늘 높이 날린 후 연줄을 끊어 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에서 액이 사라지고 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의 종류에는 가오리연을 비롯하여 문어연, 솔개연, 방패

서산의 민속

연, 방구연, 지내연 등 매우 다양하다.

㉔ 엇치기

이 엇치기는 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엇목판에서 제 각기 엇가락을 골라 적당한 곳을 잘라서 구멍이 크게 뚫려있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엇가락을 잘 골라야 유리한 것이다. 이 놀이는 진편에서 엇 값을 물어내는 것이다.

엇치기 놀이를 많이 하여본 사람은 요령이 생겨서 엇가락을 자를 때에 재빨리 잘린 부분을 「혹」하고 입으로 세게 붙여서 구멍을 크게 만드는 수도 있다.

㉕ 자치기

이 자치기 놀이는 주로 농어촌의 소년들 사이에서 행하여졌던 것인데, 장소는 마당이나 광장 등이 이용되었다.

이 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른들의 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약 15.6센치의 길이로, 또 하나는 45센치 가량의 길이로 자른다.

다음은 땅바닥에 세로 15센치, 가로로 약 3센치, 깊이 약 4센치의, 45도 가량 경사진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작은 막대기를 가로로 걸쳐놓은 다음 긴 막대기로 떠받쳐서 멀리 던진

다.

이때 상대 편에서는 이 작은 막대기를 받으려고 적당한 위치에서 노려보고 있는데, 이 막대기를 받으면 상대편과 교대하지만, 받지 못하면 그 작은 막대기가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주어가지고 있다가 상대 편에서 긴 막대기를 땅바닥의 구멍 위에 걸쳐놓으면 던져서 이를 마친다. 이 때도 역시 마치면 교대하지만 마치지 못하면 먼저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들어간다.

다음은 작은 막대기를 왼손에 쥐고 긴 막대기로 때려 멀리 날려보내는데, 이를 받으면 교대하고 받지못하면 막대기가 떨어진 위치에서 이를 주어가지고 구멍쪽을 향해 던진다.

이 때 구멍쪽 가까이 떨어져서 긴 막대기로 한자 앞에 들면 교대해야 한다.

만약 이 때 던지는 작은 막대기를 긴 막대기로 받아쳤거나 또는 한자가 넘어갈 때에는 작은 막대기를 구멍에 걸쳐놓고 끝부분을 때려서 위로 올라갔을 때 긴 막대기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때려서 멀리 날아가게 한다.

이렇게 하여 떨어진 곳에서 3번을 되풀이 하여 최종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구멍까지 긴 막대기로 채는 것이다.

그리하여 잣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잣수는 미리 정하여 놓고 게임(놀이)을 하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이 자치기 놀이는 상대방이 작은 막대기를 받거나, 또는 던져서 구멍쪽의 사각형 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한 교대할 수 없는 것이다.

②6 제기차기

이 제기차기 놀이는 주로 소년 소녀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데, 제기는 구멍이 큰 옛날 동전(엽전)에다 창호지 같은 질긴 종이로 길게 술을 단다.

이렇게 만든 제기를 발 옆으로 차서 공중 높이 올라가게 하는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발로 차서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 제기차기는 오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숙달되지 않으므로 초보자는 좀 어려운 놀이라 하겠다.

②7 줄넘기

이 줄넘기는 주로 국민학교 학생들 또래의 소녀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놀이이다.

골목이나 마당 또는 운동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긴 줄을 양쪽에서 잡고 돌리면 재빨리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줄을 돌리는 대로 깡충깡충 뛰어 넘는다.

이때 실수하여 줄에 걸려 뛰지 못하면 교대하는데, 이에 참

가한 아이들은 즐겁게 모두 노래를 부른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 줄넘기보다도 고무줄 놀이가 더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고무줄 놀이에도 그 종류가 많다.

㉘ 진치기

이 진(陣)치기는 주로 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인데, 낮보다는 달밤이 더욱 실감이 나며 또한 사람이 많을수록 재미 있는 놀이이다.

넓은 마당에서 두패로 나누어 각각 진을 구축하는데, 이때의 진은 땅바닥에 원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가마니때기 돌 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진치기가 끝나면 모두 진 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만약 진에서 떨어져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아 죽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에서 나와있으면 상대방이 잘 보고 있다가 그를 쫓아간다. 쫓아가서 상대 편을 다시 자기 진내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을 되풀이 하여 결국은 인원 수가 줄은 편이 지게 되는데, 인원 수가 적으면 진지의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진지를 점령하려 들어 갈 때에는 상대방의 손에 잡히지 않

서산의 민속

고 재빨리 진내에 들어가야 승리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은 점령을 당하지 않도록 굳건한 방어를 해야 한다.

㉔ 팽이치기

팽이치기는 주로 소년들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놀이인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으나, 팽이는 단단한 땅에서 치는 것이 좋으므로 겨울철의 얼음판에서 많이 치고 있다.

팽이는 본래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소나무 등으로 만들고 밑에 못을 박아서 쉽게 닳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팽이치기 할 때 즐거운 것은 시합하는 것이다. 시합은 팽이를 세게 쳐서 서로 부딪히게 하여 쓰러지는 편이 지게 하는 것과, 또는 팽이를 세게 쳐놓고 어느쪽이 오래 들고 있는가 견주어 가지고 승부를 결정하는 시합 등이다.

아이들은 즐거운 팽이놀이를 하기 위해 항상 팽이와 팽이채를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팽이가 돌아갈 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팽이 위에 여러가지 색깔을 칠하기도 한다.

㉕ 풀묻기

이 풀묻기는 주로 모래가 있는 곳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즐

기는 놀이이다.

놀이의 방법은 우선 풀뿌리나 나무뿌리 등으로 엄지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의 올가미를 만들어 모래 속에 감추어 놓고, 이를 나무꼬챙이나 손가락으로 꿰어 내는 것이다.

올가미를 먼저 꿰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이 놀이는 주로 여름의 백사장에서 흔히 행하여지는 것이다.

③1 풀싸움

이 풀싸움은 봄철과 여름철에 주로 많이 하는 놀이인데, 소년과 소녀들 사이에서 행하여졌다.

이 놀이는 참가한 사람 모두가 제 각기 많은 종류의 풀잎과 나뭇잎을 뜯어다 모아놓고 마주 앉아서 하나씩 서로 건주어서 같은 종류는 버리는데, 이 때 같은 종류를 뜯지 못했거나 또는 뜯은 풀이 없을 때에는 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풀싸움 놀이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식물의 명칭도 많이 알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적인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이같은 놀이도 사라진 것 같다.

③2 활쏘기

이 활쏘기는 주로 소년들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특

서산의 민속

히 가을 추수가 끝난 뒤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활은 밤나무나 참나무같은 주로 질긴나무를 베어 불에 약간 구어서 만들고, 화살촉은 적당한 대나무를 6·7센치 가량 잘라서 끝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 나무를 쫓아 화살을 완성한다.

이 때의 화살촉에 쫓는 나무는 주로 수수깡(열매가 달린 바로 아래쪽, 즉 비를 만들 때 쓰는 가느다란 부분)을 잘라서 쏜다.

이 활쏘기 놀이는 어디까지나 소년들이 하나의 오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를 수수깡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활과 화살을 만들어 가진 소년들은 추수가 끝난 논이나 들판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는데, 이 때 누구의 화살이 멀리 또는 높이 올라가는가 서로 시험을 하며 즐기는 것이다.

③ 결립(乞粒)

승려들이 각처로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팽과리를 치고 축복하는 염불을 하며 시주 결립(施主乞粒)을 하였으나, 여기서는 주로 민가에서 이루어졌던 전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결립은 마을에서 공적으로 특별히 경비를 쓸 일이 생겼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쾌를 짜서 마을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풍악을 울리고 또한 여러가지 웃기는 시늉을 내면서

돈과 곡식을 얻어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전곡(錢穀)은 동네 사람들의 공동 이익의 목적에 쓰여진다.

이 전립은 주로 대보름날 뒤에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다.

③④ 갈퀴치기

갈퀴치기란 나뭇꾼들이 산에 모여 나무를 해다 붙이고 갈퀴를 던져 엎어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이때 이긴 사람이 나무를 따먹게 되는 것이다.

갈퀴치기는 주로 나무를 다 마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붙이는 나무는 보통 한 전씩이지만 때로는 나무짐을 송두리채 걸고 하는 때도 있으니, 이 때 지는 사람은 다시 나무를 해야 집에 돌아 갈 수 있으므로 매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요즘은 이같은 놀이도 거의 사라졌으며 또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예도 보기 드문 일이 된 것 같다.

근래에 들어와 농촌에서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③⑤ 골패(骨牌)

골패는 한 때 바둑이나 장기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어디서나

서산의 민속

흔히 볼 수 있었던 놀이 기구의 하나였다.

그 모양을 보면 납작하고 네모진 작은 나무 바탕에 흰 뼈를 붙여 어른 손가락의 마디만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가지 수효의 구멍을 새긴 것이다.

또한 골패는 모두 32짝이 한 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아, 백사, 아삼, 어사, 관이, 아륙, 삼사, 삼오, 삼륙 사오각이 한 짝이고, 다음은 통소, 소삼, 백오, 백륙, 진아, 장삼, 직홍, 준오, 사륙, 오륙, 준륙이 각 두 짝으로 되어 있었다.

골패는 바둑과 같이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것이었으나 때로는 도박적으로 악용된 때도 있었다. 요즘은 사라진 것 같다.

③6 그네뛰기

단오날의 놀이로써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들의 그네뛰기이다.

이 그네는 보통 두개의 기둥을 세우거나, 아니면 큰 나무가지에 밧줄을 매어 만드는 것인데, 환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가씨들이 싱그러운 5월의 녹음 속에서 치마폭을 날리며 공중을 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기만 하다.

이런 모습의 춘향(春香)이를 본 이도령인들 어찌 심취하지 않았으리요.

집안 깊숙히 파묻혀 있었던 부녀자들이 단오날만은 밖으로 뛰어나와 그네뛰기를 즐길 수 있었으니, 이 그네뛰기야말로 부녀자들의 마음을 활짝 펴고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놀이였을 것이다.

오늘의 그네뛰기는 옛날에 비하여 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오히려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등에서는 흔히 어린이용 그네가 눈에 띄인다.

또한 이 그네뛰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남부 지방보다 북부 지방에서 더욱 성행하였음을 볼 때 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㉔ 낫치기

시골의 나뭇꾼들이 산에서 나무를 한전씩 붙여놓고 낫을 굴러서 멀리간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

낫치기를 달리 「낫판치기」라고도 부르는데, 장소는 평평한 곳보다는 약간 경사진 잔디밭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낫치기를 할 때에는 일정한 위치에 나무잎이나 풀잎 등으로 표시하여 놓고 뒤로 약 10여미터 가량 물러 갔다가, 거기서부터 낫을 어깨 위로 높이 들고 앞으로 힘차게

서산의 민속

달려오면서 표시해 놓은 위치에 낮을 내리쳐서 굴러가게 하는 것인데, 이때 제일 멀리 굴러간 낮이 승리하는 것이다.

낮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낮이 잘 굴러가도록 비교적 낮자루를 짧게 하여 가지고 다닌다.

또한 낮치기는 지방에 따라 다르다. 즉 나무를 한아름 모아 놓고 약 7·8미터 뒤에서 각각 나무단에 낮을 던진다. 이때 낮이 바르게 쫓힌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요즘은 이같은 놀이도 사라진 것 같다.

⑳ 널뛰기

이 널뛰기는 음력 정월 초순경에 부녀자들이 즐겨 행한 우리 나라 고유의 놀이이다.

이 높이는 긴 널판자의 한 가운데 밑에 짚단이나 또는 가마니를 접어서 괴어놓고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번갈아 몸을 솟구어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는 놀이인데, 한창 높이 뛰어 오를 때에는 무려 1.5미터 가량 솟아 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널뛰기는 공중 높이 몸을 날리는 활달하고 개방적인 놀이였으므로 그 기원은 유교적 윤리의 제약을 받아 집안 깊숙이 들어 앉아 있었던 조선조시대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비교적 활발히 움직이던 고려시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같은 놀이는 日本의 오끼나와 (沖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유구 정부(琉球政府)가 우리 나라와 통교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 때 우리 나라에서 배워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㉔ 농악(農樂)

우리 나라의 농악은 옛날부터 농부들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우리 나라 고유의 음악이다.

여기에 쓰여지는 악기는 팽과리, 징, 북, 소고, 장구, 피리, 자바라 등이 있는데, 여기에 농요와, 춤과, 곡예까지 합친 멋진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농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농촌의 놀이로서, 옛날에는 주로 모내기과 김매 때 그리고 추수기에 많이 행하여졌었는데, 요즘은 영농의 과학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옛날과 비교할 때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옛날에는 농경 이외에도 정초나 단오, 추석 등의 명절에 농악 놀이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농경과 명절 때 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체육행사나 국가적인 민속경연대회 때에 많이 배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농악대원은, 물론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알고 있다.



농악놀이 모습

또한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농악대에도 지휘자가 있는데, 그는 팽과리를 치는 사람으로서, 늘 대원의 앞에 서서 가락에 맞추어 재치있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화시키며 지휘를 해 나간다.

즉 가락의 변화라든가 대열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악은 그 리듬이 매우 단조롭기 때문에 음의 고저라든가 어떤 음악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가락의 길고 짧음과 빠르고 느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악은 우리의 선인들이 농경생활에서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으면서 오히려 내일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위적인 방법에서의 짝튼것이 농악이라면 수백년 내
러오면서 애환이 쌓여 그것이 오늘의 향수로 남아서인지, 농
악 놀이가 절정에 이르르면 그 흥겨운 가락에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혀 두둥실 춤이 나오는 것이니 이는 우리민족의 생활
속에서 짝튼 가락이어서 그럴까?

④ 바둑

바둑은 4 각형의 판자에 가로 세로 각각 19줄이 그어진 바
둑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판 위에 흑백의
바둑돌을 계속 두어가며 즐기는 실내의 오락인데, 서로 둘러
싼 집을 많이 차지하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또한 바둑두기는 슬기를 요하는 것이므로 조용한 분위기에
서 실시되므로 정신 수양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바둑두기 국제대회가 열릴 정도로 바둑
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따라서 젊은층에서 많이 유행되
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대학가의 주변에 바둑집이 많이 눈에 띄이는 것을 보
면, 대학생들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 바둑두기를 악용하여 돈을 붙이고 내기를 하
는 도박성이 일부 인사들에게 있다하니 이는 매우 불미스러

서산의 민속

운 일이다.

이 바둑은 고대 중국(中國)에서 발생하여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바둑돌은 흑이 181개, 백이 180개로 되어 있다.

④ 씨름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살바를 잡고 재주와 힘을 겨루어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운동인 것이다.

한자로는 각저(角抵), 각희(角戲), 각희(脚戲), 상박(相撲)이라고도 한다.

씨름은 우리 나라 국기(國技)의 하나로서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옛날에는 주로 단오날에 많이 행하여졌으나 요즘은 명절과 계절의 관계없이 연중 계속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단오날에 씨름대회를 개최하는 곳도 없지 않다. 여기서 우승하면 상품으로 황소 한 마리를 타기도 하였다.

요즘은 씨름이 대중화되어 학교의 체육 대회에서 경기 종목으로 씨름을 넣어 실시할 정도이다.

즉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의 하나로 씨름을 가르치는 곳

이 점점 증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 되어감을 뜻하는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의 태권도가 그렇듯이, 한국 씨름의 해외 보급의 길이 열리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민속씨름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 씨름의 해외 보급과 해외 동포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는 12월 28일 미국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에레나홀」에서 우리 나라 선수 18명 (백두급) 과 미국프로레슬러 등이 출전하는 씨름 대회를 언다고 하니 호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2만 달러의 상금도 걸려있다는 것이다.

④ 윷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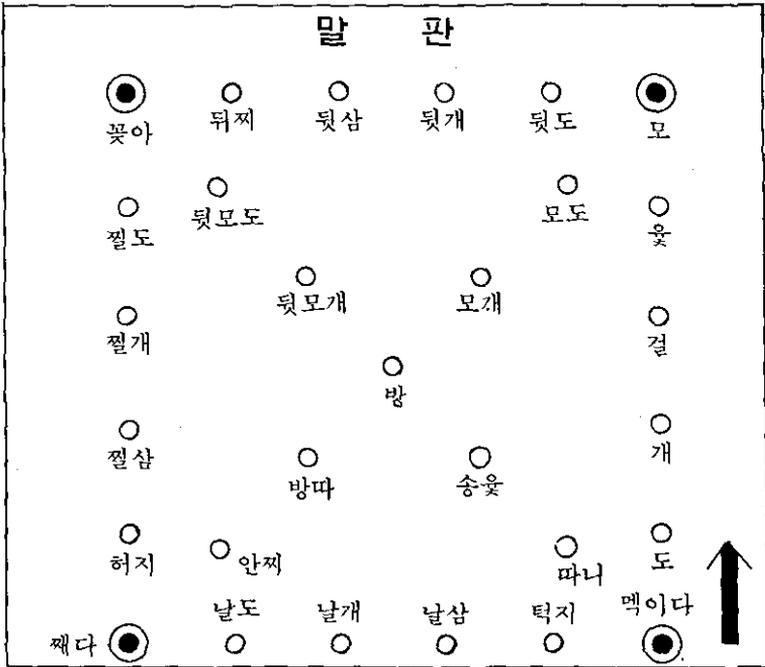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대중적인 오락의 하나로서 주로 정초(正初)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윷놀이인 것이다.

이 윷의 종류에는 장윷과 쯤윷(쥬윷)의 두 가지가 있는데, 쯤윷은 오늘에 전하여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쯤윷은 직경이 1센치쯤 되는 통나무를 약 2센치 길이로 자른다. 잘린 두 토막을 다시 둘로, 쪼개서 4쪽을 만든다.

이 4쪽을 잘 다듬어서 손바닥이나 뜨는 작은 종지 속에 넣고 손바닥으로 덮은 다음 잘 흔들어서 자리바닥 혹은 방석위

서산의 민속



에 쏜는다.

이와 같이 줌웃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주로 실내에서 많이 행하여졌으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장웃이 유행되고 있다.

이 장웃은 줌웃에 비해 매우 큰 것인데, 그 갯수와 방법은 같다.

장웃은 직경이 약 3센치쯤 되는 통나무를 17센치 전후로 잘라서 이것을 둘로 쪼개면 모두 4쪽이 된다.

이 4쪽을 배가 볼록하게 나오도록 잘 다듬어서 땅바닥에 멍석이나 가마니를 깔아 놓고 지상 약 1미터의 높이로 던져 땅에 떨어진 옷의 안팎의 모양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인데, 이 때는 큰 소리를 외치며 매우 유쾌하게 옷놀이를 함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흥겨워하고 있다.

그리고 옷놀이에는 5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1가락이 찢혀지면 도, 2가락이 찢혀지면 개, 3가락이 찢혀지면 걸, 4가락이 찢혀지면 옷(사짜), 그리고 다 엮어지면 모라고 하여 모두 기뻐하는데 모는 5발, 옷은 4발, 걸은 3발, 개는 2발, 도는 1발씩 가게 된다.

이 옷놀이는 두 사람 이상 상대만 있으면 언제나 놀이를 할 수 있으며, 또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편을 짜서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옷놀이를 할 때에는 미리 준비한 말판을 가지고 말을 전진시키며 놀이를 하는데, 이 때 옷가락을 던져서 나타난 수효대로 말발을 가게하는 것이다.

말은 각각 4개를 가지고 하는데, 이 4개의 말이 먼저 나가는 편이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나 옷이 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한 모나 옷이 났을 때와 상대편의 말을 잡았을 때에는,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옷을 놀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된다.

서산의 민속

특히 말을 쓸 때에는 상대방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슬기롭게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2개 이상 4개를 겹쳐서 전진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말판은 한 쪽이 5발씩 정 4 각형으로 되어 있는 20발과 중앙을 교차점으로 한 X형의 5발씩 모두 30개의 발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도표에서 본것과 같다.

⑬ 장기(將棋)

장기는 오락 기구의 한가지로서, 본래 인도에서 비롯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본디 상희(象戲)라 하던 것을 조선조 중엽부터 장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장기는 두 사람이 판을 사이에 하고 마주 앉아, 붉은 글자와 푸른 글자의 두 종류로 나눈 16개씩의 말을 가지고 판 위에 정해진 대로 벌여놓고 서로 말을 옮겨 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따 먹는데, 결국은 상대방의 장수 말을 잡은 편이 이기게 되는 것이다.

말은 장(楚)·한(漢)을 비롯하여 사(士)·차(車)·포(包)·마(馬)·상(象)·병졸(兵卒) 등 모두 합쳐서 32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판은 보통 4각형의 판자에 가로 10줄, 세로9줄을 그어서 서로 교차되도록 만드는데, 줄 사이는 대략 4센치내외가 되도록 하면 좋다.

장기는 바둑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활발한 놀이이다. 장기를 둘 때는 장기쪽을 장기판에 부딪쳐 소리가 나도록 두어 기는데, 특히 장군을 부를 때는 기고만장하게 장군하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 때 상대가 장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지게 되므로 이럴 때는 한 수만 물러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일수불퇴라며 물러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락적인 경우는 서로 양보하면서 두기도 한다.

또한 장기는 두는 사람도 유쾌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두는 사람 못지 않게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수를 하는데, 이 훈수에 따라 상대가 지게 되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훈수는 뺨을 맞으면서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면 역시 장기 두기란 쾌활한 게임인지도 모른다.

④ 즐다리기

이 즐다리기는 우리 나라의 많은 민속놀이 중에서도 가장

서산의 민속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규모의 놀이인 것이다.

줄다리가 언제부터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연대와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단결력과 협동정신을 길러주는 놀이로서는 줄다리기만한 것도 없으리라고 본다.

특히 요즘은 줄다리가 일반화되어 각급 학교의 체육 대회는 물론, 기관 대항의 친선 게임에서도 대부분 줄다리는 빼놓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본래 이 줄다리는 우리 나라의 남부 지방에서 음력 정월에 많이 행하여졌었는데, 이 때 참가하는 인원은 수백에서 수 천에 이르렀다 한다.

이와 같이 줄다리를 하기 위해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운 다음, 정초부터 마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집단을 구해다 줄을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 줄은 보통의 줄이 아니라 수 백명의 인원이 양쪽에서 당겨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직경은 10여센치 정도에 길이는 적어도 100여 미터에 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아줄은 다시 광장으로 옮겨지는데, 이때는 농악대가 선두에 서서 농악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줄다리기는 많은 사람이 참가하므로 무엇보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심판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요즘의 줄다리기는 원칙에서 벗어난 편리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옛날에는 반드시 줄이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동쪽은 솟줄·서쪽은 암줄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요즘의 줄다리기에 쓰는 줄은 대부분이 「나일론 로우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전통적인 줄다리기가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곳은 우리의 인접군인 당진군 송악면의 「기지사 줄다리기」이다.

이 기지사 줄다리기는 지난 73년도 무형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무려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1년도의 국풍(國風) 때 이 기지사 줄다리기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 출품되었는데, 그 규모를 살펴보면 동아줄의 직경이 1미터, 길이가 무려 200미터에 달했으며, 또한 이에 소요된 벗짚이 3만여단으로 무게가 40톤에 이르렀다 하니 장관이 아닐 수 없다.

④5 벗가릿대 놀이

서산의 민속

이 서산 벚가릿대 놀이는 오랜 옛날부터 본군의 인지면 야당리에서 비롯되어 그 동안 단속적(斷續的)으로 전승되어온 민속놀이의 하나인데, 1985년에는 전국민속 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또 1986년에는 천안에서 개최된 전국민속 경연대회에 찬조 출연하는 등의 영예를 차지하고 있다.

이 놀이는 음력 정월 열나흘날(1월 14일)부터 시작하여 2월 초하루에 끝나는 놀이로서 농부들이 농기(農旗)를 선두로 대동샘에 가서 샘굿을 하고, 또 한 집마당에서는 지신(地神) 밭기를 한 다음 모닥불을 피워 1년간의 액운을 몰아내며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농부들은 대동샘 옆에 벚가릿대를 세우고 내 땅을 넓히기 위하여 마당 짚기놀이를 한다.

하늘에서 영등할머니(靈登神)가 내려 온다는 음력 2월 초하룻날이 되면 벚가릿대 앞에 제상(祭床)을 차려놓고 영등신에게 세화연풍(歲和年豐)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제사가 끝나면 주민 모두가 한데 어울려서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한마당 농사 놀이를 하고 벚가릿대를 높인다.

농사철을 앞두고 펼쳐지는 촌로(村老)들의 순백한 기원과 가무 음곡(歌舞音曲)으로, 밤이 새도록 즐기는 이 놀이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은 물론 마을의 안녕과 근면 협동을 다짐하는 권농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벚가릿대 놀이의 시

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가) 입장

벗가릿대 농악과 더불어 농기, 제관, 제물을 인 아낙네, 섬을 진 농부, 작도 쟁기, 씨레를 진 사람 그리고 주민 순으로 흥겨롭게 춤을 추면서 입장한다.

나) 지신밟기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 농부들이 농기를 선두로 대동샘에서는 샘굿을 하고, 집마당으로 가서 연중 무사하기를 비는 지신밟기를 한 다음 마을 곳곳에서는 1년간의 액운을 몰아내는 모닥불을 피운다.

샘굿할 때에 외는 주술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술치 않고 다음의 농요조에서 소개하겠다.

다) 벗가릿대 세우기

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위에는 5곡을 달아매고 벼이삭이 늘어진 모양으로 동아줄을 거꾸로 틀어 줄을 늘여서 대동샘 옆에 벗가릿대를 세우며 따라서 주민들은 내 땅 넓히기를 위하여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하며 마당 짚기를 한다.

서산의 민속

라) 벗가리제(禾竿祭)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벗가릿대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다.

이때 영좌(領座)가 비손을 하면 주민 일동은 재배를 한다.

그리고 집사는 「고수레 고수레」하며 잡신(雜神)을 몰아내고, 주민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 때 난쟁이가 들어오면 짚랑벼가 생겨 흉년이 든다 하여 쫓아내고, 키 큰 사람이 들어오면 벼가 키도 크고 풍년이 든다 하여 매우 기뻐하며 후대한다.

마) 농사놀이

영좌의 「우리 한 바탕 놀아보세」의 외치는 소리와 함께 주민들은 논갈이, 씨레질, 모심기, 호미댕이, 벼 타작 등의 농사놀이와 씨름 등을 하면서 한마당 놀이를 벌인 후 농악의 흥겨운 가락에 5 무동(舞童)서기로 한마당의 절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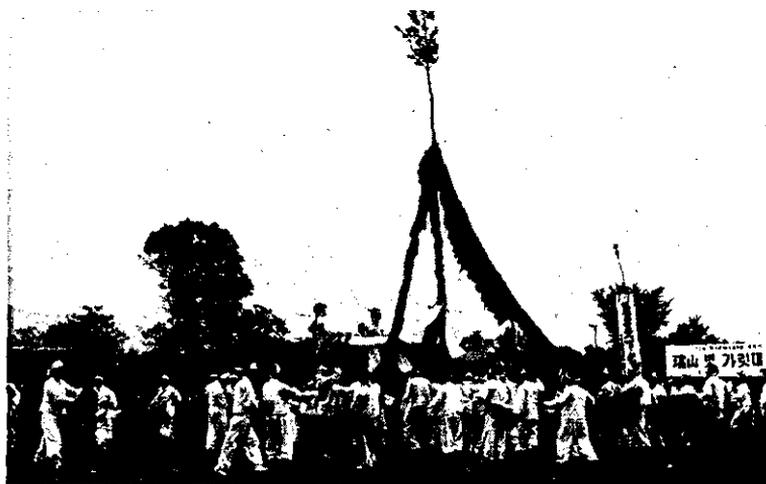
바) 벗가릿대 높이기

한마당 농사놀이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상사 되야를 부르며 벗가릿대를 높인다.

이 때 영좌는 벗가릿대에 매달았던 5곡을 풀어 싹튼 상황을 살펴본 후 「올해는 모든 곡식이 싹이 잘 튀었으니 풍

년이 들겠네」하고 소리치면 농부들은 일제히 풍년을 맞이하는 즐거운 함성을 지른다.

그리고 흰 벗가릿대 줄은 작도로 썰어 5곡과 함께 섬에 담아 집안으로 저 들인다.



벗가릿대 놀이모습

④⑥ 봉기풍어놀이

이 봉기풍어놀이는 글자 그대로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민속의 하나로서 주민들이 거행하는 일종의 제례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본군의 안면읍 황도리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순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 황도의 지명을 붙이어 일명 「황도봉기풍어놀이」라고도 한다.

서산의 민속

이 황도리는 본래 섬이었는데, 지난 1979년 11월에 이웃 동네인 창기리와의 연륙(連陸)공사를 마치고 결국 육지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버스가 운행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도 매우 활기를 띄게 되었다.

황도리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바다가 곧 생활의 터전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생업의 터전이 바다이므로 바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어민들이 먼 바다에 출어(出漁)하여 무사히 어로작업을 마치고 만선(滿船)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또한 주민들의 총화를 다짐하는 행사로써 매년 정초(正初)에 열리는 「붕기풍어놀이」가 있는 것이다.

이 붕기풍어놀이가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그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이 황도리에는 100여 가구에 어선(漁船)을 20여척 보유하고 있는데, 배의 크기는 대부분 중선(重船)으로서 거의 기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마다 음력 정월 초이튿날부터 초사흘날까지 이틀간에 걸쳐 당집에 소를 잡아 놓고 만선(풍어)과 무사함을 기원하는 제례를 올린다.

이 제례 행사에는 여자가 참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제

를 주관하는 사람은 남자로서 제주가 되는 것이다.

이 제주는 지난 1년 동안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은 청결한 남자여야 한다.

이렇게 선발된 남자는 보름전부터 외출을 삼가 하고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며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근신해 있다 이 제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선주들은 형겡으로 5색 찬란한 깃발을 여러 개 만들어 이를 장대 끝에 매달아 자기 소유의 선박에 꽂아 놓는 일로 매우 바쁘다.

모든 선박이 5색 찬란한 깃발로 덮이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실로 일대 장관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준비와 절차에 따라 당산에서 당제를 마치고 동네로 내려오는 정월 초사흘날은 남녀노소 구별없이 온 마을의 주민들이 동참하는데, 이때는 우선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가지고 온 풍물을 울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축제 분위기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이에 어부들이 풍물을 울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붕기풍어타령을 부르면, 대중들은 재빠르게 이를 받아 큰 소리로 후창한다. 이렇게 하여 축제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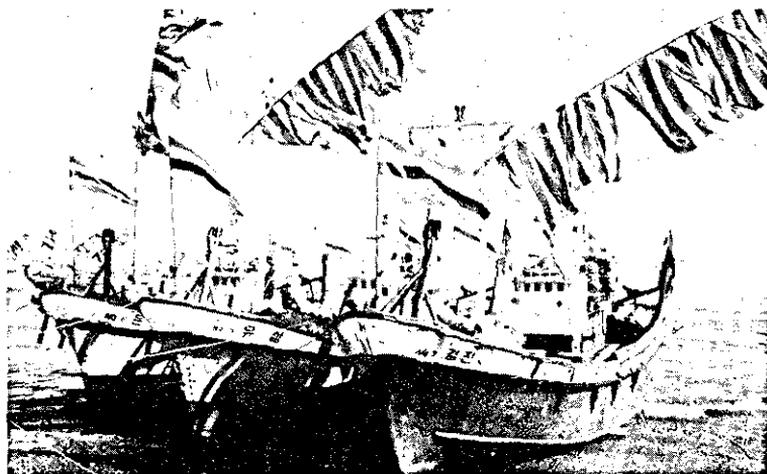
아울러 어민들은 흥겨운 풍물의 가락에 맞추어 가무를 계속

서산의 민속

하며 정박중인 각 어선의 갑판에서 한바탕 호들갑스럽게 풍어 놀이를 벌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에서 주민의 총화를 다지고 풍어를 기원하는 즐거운 축제가 끝나면 곧 이어 출어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는데로 어부들은 따뜻한 가족의 곁을 떠나 멀리



풍기 풍어 놀이모습

연평도나 칠산도의 근해까지 어로 작업차 떠나는 것이다.

이 풍기 풍어놀이는 지금도 여전히 매년 정초에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절차와 방법은 다소 변형되어 전래되고 있다.

지난 1977년에 열렸던 제 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또한 다음 해(1978)는 제 9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때 찬조 출연하여 시연(試演)함으로써 우리 민속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이 봉기풍어놀이의 축제 때에 부르는 풍어제 노래는 다음의 「민요」조에서 기술하고 여기서는 생략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④7 투전(鬪錢)

이 투전은 바둑이나 화투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 창안된 유일한 것으로서 노름에 쓰는 도구의 한 가지이다.

투전은 약간 두꺼운 종이로 만드는데 넓이는 약 1센치, 길이는 15.6센치 가량으로 만들어 그 표면에 인물, 새, 짐승, 물고기, 곤충 등의 모양이나 또는 글자나 시구(詩句) 따위를 기입하여 낫 수를 표시하는 부호를 넣어 몸에 기름이 흠뻑 배도록 발라서 만든다.

투전의 맷수는 60장 또는 80장을 한 벌로 하지만, 1에서 10까지 각 6쪽 또는 8쪽으로 구성한다.

또한 투전치기의 방법에 따라 60장 혹은 80장을 모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40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통례이다.

투전은 주로 농촌에서 많이 행하여졌는데 그것도 농한기인 겨울철에 더욱 유행하였다.

특히 돈을 붙이고 하는 도박성을 띄어 그 피해가 대단히 컸으므로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어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

서산의 민속

태이다.

④ 화투치기

이 화투치기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젊은층이면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심심할 때나 또는 상호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내기의 놀이라면 별문제이겠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부에서 도박성을 띤 화투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한 것이다.

화투의 맷수는 모두 48매인데, 12가지의 그림이 각각 4매씩으로 되어 있다.

즉 12개월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월 송(松), 2월 매화(梅花), 3월 벚꽃(櫻花), 4월 흑싸리, 5월 난초(蘭草), 6월 모란(牡丹), 7월 홍싸리, 8월 공산(空山, 明月), 9월 국화(菊花), 10월 단풍(丹楓), 11월 오동(梧桐), 12월 비(雨)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그림에 따라 20꽃, 10꽃, 5꽃, 흠집떼기 등 4등(等)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장수의 꽃 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화투의 월별 꽃수

| 꽃수 | 월 별 | 1월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 계 |
|--------|-----|----|---|---|---|---|---|---|---|---|----|----|----|-----|
| 20 꽃 | | 1 | | 1 | | | | | 1 | | | 1 | 1 | |
| 10 꽃 | | | 1 | | 1 | 1 | 1 | 1 | | 1 | 1 | | 1 | |
| 5 꽃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1 | |
| 무꽃(無數) |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3 | 1 | |
| 합 계 |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화투치기는 심심할 때 혼자서 당일의 운수나 또는 1년 운수 등 점때기를 하는가 하면, 두 사람 이상 3 사람이 하거나 또는 두패로 편을 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투치기의 종류에는 「육백, 섯다, 집구멍이, 고오스톱, 팔싸리, 나이롱뽕, 민화투」 등 매우 다양하다.

이 화투치기는 일반화되어 있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다.

④ 팔씨름

이 팔씨름은 주로 남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인데, 방법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팔꿈치를 무릎 또는 방바닥, 책상 위 등에 대고 손을 마주잡아 서로 버티어 가며 힘을 겨루는 것이다. 이 때 넘어가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팔씨름은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이 모이면 흔히 벌어지는 놀이이다. 보통은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내기로 하는 예도 있으니 이면 서로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팔씨름도 중앙대회를 개최할 정도이고 보면, 팔씨름도 앞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⑤ 쥐불놀이

서산의 민속

이 쥐불놀이는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과 대보름날 저녁에 주로 소년들이 모여서 논둑이나 밭둑에 말라 붙은 풀을 불 태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규반(畦畔) 등의 잡초를 태우는 그 자체보다는, 해충의 알을 태워 죽임으로서 병충해를 예방하여 풍작을 기약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쥐불놀이를 함으로써 한해 동안 액운을 멀리 쫓아버리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밤에 보는 소년들의 이 쥐불놀이의 광경은 매우 장관이라 하겠다.

⑤ 화류(花柳) 놀이

음력의 3월은 완전한 봄철이라, 화창한 날씨에 꽃피고 새우는 호시절, 따라서 사람의 마음도 설레이는지 모른다.

옛날엔 유생(儒生)은 유생들끼리 부녀자와 농부는 각각 자기 부류들끼리 명승지를 찾아 놀이를 가는데, 이를 화류놀이라 하였다. 일종의 꽃놀이던 것이다.

이 화류놀이를 가기 위해서 며칠전부터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또 맛있는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하루를 모두 유쾌하게 즐기는데, 이때 문장력이 있는 유생들은 한시(漢詩)나 시조를 지어 읊으로써 노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민속 놀이

또한 이때는 산에 진달래꽃이 한창이어서 장관을 이루는데, 이 아름다움을 독점하려는 일부 짓궂은 사람들은 꽃을 꺾어 머리나 옷저고리 등에 꽂고 멋을 부리는가 하면 심지어 꽃방망이를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 오늘의 자연보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연실책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미륵시앙



① 객귀(客鬼) 풀이

객귀란 글자 그대로 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말하는 것인데, 외출하였다가 돌아와서 갑자기 병에 걸렸든가 또는 다른 집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먹고 갑자기 병이 났을 때에 농촌에서는 흔히 객귀들렸다 하여 이를 몰아내는 것이다.

객귀를 내쫓기 위해 빨리 된장국(토장국)을 끓여서 바가지에 담아 가지고 병자의 입앞에 대며 침을 3번 뱉게 한 다음, 다시 병자의 머리카락을 칼로 3번 조금씩 잘라 바가지에 넣어가지고 밖으로 나와 재빨리 방문을 닫고 부엌칼로 문살을 득득 엑스(X)자 형으로 긁은 다음 문에 소금을 뿌리고 마당에 된장국을 버리는데, 이 때 주문(呪文)을 외고 바가지는 자기 발 앞에 엮어놓으며 칼은 땅바닥을 길게 가로로 그은 다음 10여보 앞으로 던지어 땅에 꽂히게 한다.

이 때 꽂친 칼날이 집안쪽으로 향해 있으면 칼을 빼내어 처음부터 되풀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칼날이 집안으로 향하였으면 아직 객귀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나 미신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객귀풀이를 하면 병자가 낫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이같은 객귀풀이 습속도 없어졌지만, 병이 나면 즉시

서산의 민속

병원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다.

② 굿

굿이란 무격(巫覡)이 노래와 춤을 추며 신에게 치성(致誠) 드리는 의식(儀式)의 하나이다.

즉 초복(招福), 제액(除厄), 안택(安宅) 요병(療病), 진령(鎮靈), 초혼(招魂), 기우(祈雨), 축귀(逐鬼) 등등을 목적으로 무격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노래, 춤, 의식 일체를 일컫는 것이다.

굿은 시종 노래와 춤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이때의 춤은 도무(跳舞)이며 노래는 신가(神歌)를 부르는데, 처음은 두 박자인 「덩덩」으로부터 시작하여 「덩덕궁」의 세 박자 음률로 연속되다가, 절정에 이르면 다시 다섯 박자인 「덩덩덩 덕궁」의 음률로 반복되면서 굿은 계속된다.

그런데 굿은 대략 4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제 1단계는 무격(巫覡)이 신령을 초청하는 것이다.

초청한 신령이 강림(降臨)하면, 무격은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의 이야기는 신령들에게 제주의 청을 알리는 일종의 대답이 되는 것이다.

이 대답에 이어 제 2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도무(跳舞)와 난폭할 정도의 행동과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진행되는

데, 굿의 목적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있다면, 신령에게 병의 근원을 물어 이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신령에게 치유를 부탁하며 제 3 단계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무격들이 장구를 치고 방울을 흔들며 또한 무악으로 환자에게 주술적인 행동을 하면서, 병귀(病鬼)에게 음식물을 주어 이를 먹고 나가라는 것이다. 즉 축귀(逐鬼)하는 시늉을 한다.

이것으로 병자의 치유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4 단계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병자 치유의 목적으로 초청했던 신령들을 다시 왔던 곳으로 돌려 보내는 마무리의 절차로써 굿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굿은 이 4 단계의 각 과정에서 거리의 행사가 있게 되는데, 대략 12내지 14거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역시 무격과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참고로 12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 가망청배, 쟈적, 불사, 조상, 상산, 별상, 대감, 제석 오귀, 군웅, 창부 등이다.

그리고 굿은 대개 씨꿈굿(일명 오구굿), 안택굿, 별신굿 등이 있다.

요즘도 굿이 간간히 행하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원형과는 거리가 먼 매우 변형되고 또한 간소화 되었음을 엿

서산의 민속

볼 수 있다.

현대적인 감각에서 이 곳을 본다면 다분히 원시적이며 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논리적인 거론 이전에 곳은 우리 민족의 토속종교의 하나로 그 토대를 굳혀 오면서 민족의 생활을 지배하여 온 정신적인 힘의 근원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③ 산신제(山神祭)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있고, 집을 지키는 성주가 있는가 하면,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있듯이, 산에는 역시 산을 지키는 산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 산신의 모습은 흔히 신선이나 호랑이 상으로 나타냈는데, 산소를 쓰거나 산소에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산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 이를 산신제라 일컬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산신제의 내력을 살펴보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즉 신라는 이미 3산 5악에, 그리고 고려는 송악산과 남산 등에 춘추로 산신제를 지냈는데, 이 유풍은 다음의 조선조로 이어져 내려와 국가의 태평을 비는 산신제를 지냈던 것이다.

지금도 이 습속이 남아 있어 산을 다룰 때는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이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것 같다.

④ 삼신제(三神祭)

삼신이란 아기의 접지와 산모 그리고 생아를 맡아보며 수호한다는 3신령을 말하는 것인데, 아기를 낳으면 3일이 되는 날에 방바닥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밥 세 그릇과, 미역국 세 그릇을 차려놓고 삼신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신제를 지내는 것은 어린 아기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어린 아기가 병에 걸렸을 때나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삼신할머니에게 밥을 해 놓고, 빨리 병이 낫고 젖이 잘 나오도록 하여 달라고 삼신제를 지냈는데, 요즘은 이 같은 습속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

⑤ 서낭제

서낭제란 서낭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함인데, 이 서낭신은 한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으로 받드는 신이다.

서낭은 대개 마을의 입구 산마루에 있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서낭제를 지내는가 하면 또는 개인의 구복(求福)을 위해 지내기도 하였다.

서낭제 때는 떡시루를 비롯하여 포(脯)·채 등을 갖추어 놓

민속 신앙

고, 또한 색깔의 형질을 오려서 울긋불긋하게 나무가지에 묶어 놓는다.

새벽 일찍 나들이를 떠나다 서낭제 떡을 발견하면 먹는 수도 있으나, 이젠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먹는데, 이 떡은 집에 가지고 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서낭당앞을 지날 때에는 반드시 돌을 3개 주어서 서낭에 던지고 침을 3번 뱉어야 한다는 풍속이 극히 최근에까지 내려왔으나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서낭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놓았기 때문에 마치 무덤같이 되었는데 하면 나무가 우거지고 또한 나무가지에는 5색의 형질이 매달려 있어 우중충하게 보이므로 밤엔 이곳을 지나기를 못사람들이 매우 꺼려하고 있었다.

필자도 소년 시절에 이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사회적인 발전과 도로확장 등으로 인하여 이같은 서낭당이 대부분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한 이런 사실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서낭당에 대해선 지역과 개인에 따라 여러가지 속설이 많으나, 여기선 지면 관계상 독자의 이해에 맡긴다.

⑥ 용왕제(龍王祭)

땅에는 지신(地神)이 있듯이 바다에는 해신(海神)이 있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인간 관계의 모든 화복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특히 우리 서산은 반도이므로 3면이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터전이 바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어민들은 해신을 유력한 신으로 숭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선박에 의한 고기잡이를 비롯하여 그물(그무질)·사들질(사두질)·살(漁箭)·돌살(독살) 등을 이용한 어로(漁撈), 썰물 때 바다에 나가 미역과 우뚝가사리 등등 각종 해조류(海藻類)를 채취하고 또한 낙지·게·조개·고둥 등 실로 다양한 해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농어민에게는 바다가 생활터전의 전부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정도였으니 그들이 바다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촌에서는 어로작업의 안전과 개인의 구복을 위해 연초에 지성으로 용왕제를 지냈던 것이다.

지금은 이같은 풍속도 거의 사라진 것 같으나, 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지금도 출어(出漁) 전에 뱃고사는 지내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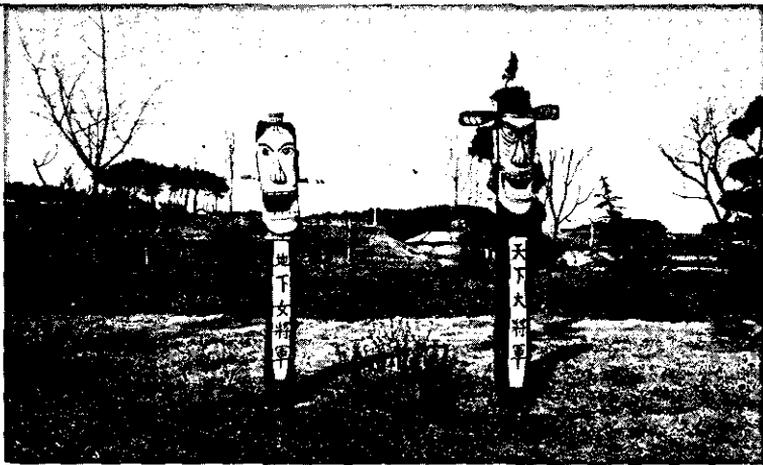
서산의 민속

⑦ 장승제

이 장승은 긴 통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기이(奇異)하게 새겨서 붉게 칠하였는데, 하나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또 다른 하나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란 글씨를 파서 마을의 입구에 세운 것이다.

이는 마을이나 성(城)을 수호하는 신이라 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니 이를 장승제라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장승제를 지내는 것은 악성전염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모든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마을입구에 서있는 장승

또한 이 장승은 거리를 표시하는 이정표(里程標)의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즉 장승을 10리나 5리의 간격으로 세워두어 길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각 지역에는 옛날의 장승이 버티고 서 있음을 간간이 볼 수 있는가 하면, 민속의 하나로서 이를 다시 복제하여 새롭게 세웠음을 찾아볼 수도 있다.

⑧ 성주제

성주란 집을 지켜준다는 신령을 말함인데, 집을 새로 짓거나 또는 이사를 하였을 때는 반드시 판수나 무당을 불러 떡시루를 해다 놓고 기원한 뒤에 백지(窓戶紙) 속에 동전을 넣고 동그랗게 접어서 방이나 대청의 대들보에 붙이고 이를 받드는 것이다.

특히 가을 추수가 끝나면 성주 앞에 떡시루를 해다 놓고 기원하는 풍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이같은 풍속도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사라져간지 이미 오래된 것 같다.

⑨ 횡수막이

서산의 민속

이 횡수(橫數)란 말은 글자 그대로 뜻밖의 운수(뜻하지 않은 운수)란 뜻이요, 또한 막이란 막는다는 말로서 횡수막이는 뜻밖에 닥쳐오는 재액을 막는다는 뜻이다.

즉 당해의 횡액을 막으려고 정월달에 무당이나 판수를 불러 실시하는 일종의 굿을 횡수막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횡수막이를 우리 시골에서는 흔히 「홍수매기」라고 부르는데 이의 어원(語源)은 어디까지나 「횡수막이」가 옳은 것이다. 즉 홍수매기란 횡수막이의 와음(訛音)인 것이다.

그러나 횡수막이란 원어(原語)보다는 오히려 와음인 홍수매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민간인 사이에서 전래되어 오면서 굳어져버렸기 때문에 편의상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횡수막이의 방법은 가족중에 당년에 횡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횡수를 미리 막기 위해 무당을 불러 실시하는데, 이때는 쌀 3되 3홉에, 팥을 넣어 떡을 찌는데 3접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소창지 3자 3치 짚세기 3결레 돈 3냥을 준비하여 가지고 비교적 사람의 왕래가 많은 네거리에 가서 십자형으로 짚을 깔아놓고 그 위에 떡시루를 올려 놓는다.

따라서 준비한 돈과 신발 채 실 등을 옆에 놓고 상 위에

촛불을 켜놓은 다음 무당이 북과 양판을 치면서 주문(呪文)을 읽는다.

이때 당년의 액운이 있는 사람의 저고리 동정을 떼어서 불에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해 동안 아무런 재액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횡수막이는 각 지역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는 백설기·채·술·신한컬레·동정 한 개와 촛불을 켜놓고 실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쌀 3되 3홉·팥을 넣은 3겹의 떡·소창지 3자 3차·신발 3컬레·돈 3냥 등 모두 삼자가 들어가는데, 이 삼(三)이란 한자어(漢字語)에는 끝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횡수막이를 실시하여 재액을 빨리 끝낸다는 뜻이다.

또한 붉은 팥은 벽사(辟邪)의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같은 습속도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된 것 같다.

⑩ 조왕단지

조왕(寵王)이란 부엌을 맡은 신을 말함인데, 고대의 미개인들이 믿던 다신교(多神敎)의 습속에서 내려온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주변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서산의 민속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터를 지켜주는 「터주신」이 있고 또 집을 지키는 성주가 있는가 하면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부엌에는 조왕신의 상징으로 「조왕단지」를 갖추어 놓고 1년 동안 비우지 않고 계속 물을 채워두는 것이다.

그런데 각 가정에 따라 다르다. 즉 매일 아침 새로운 물로 갈아 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설날과 한식, 그리고 추석 등에 갈아 놓는 집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조왕단을 만들어 놓은 가정도 있었다.

⑪ 고 사

고사(告祀)란 개인을 비롯하여 온 집안이 재액(災厄)을 당하지 않고, 행운이 계속되도록 신령에게 기원하는 일종의 제사를 말한다.

이 고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속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본래 고사는 가을철에 주로 지냈으며 또한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미리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보아서는 안되며, 경진한 마음으로 근신해야 한다.

따라서 대문 밖에는 대접 크기의 황토 3무더기를 만들어놓거나, 또는 문 위에 금줄을 달아 외래인의 출입을 금지 시킨

다.

이렇게 한 다음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에는 시루떡을 비롯하여 채·과일·정화수 등을 차려놓고 조상신·터주신·성주신·조양신·삼신 등에게 제를 올린다.

고사는 무당이나 판수를 불러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가정 주부가 기원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이 가정내에서의 고사에는 주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옥외서의 고사에는 남자가 관장하였다.

요즘도 고사의 명맥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실시 방법은 매우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앞에서 말한 전통적인 가정내에서의 고사보다는 사업장에서의 고사가 수시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 같다.

즉 공장 운영이 잘 안되면 공장에서 새 차를 구입했으면 차 옆에서, 선박을 가진 사람은 선박 등에서 각각 고사를 지내며, 회사의 번영과 무사고를 마음 속으로 비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의 고사에는 필연적으로 돼지머리가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⑫ 고수레

고수레란 판수나 무당이 굿을 할 때 또는 산에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남의 집에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서산의 민속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귀신에게 바친다 하여 음식을 조금씩 떼어 멀리 던지면서 외치는 소리인데,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고시례 고시내 고씨네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같이 여러가지 명칭이 있듯이, 따라서 그 어원(語源)의 유래가 다른데, 그 중 하나의 실례(實例)를 들어보면, 일찍 단군조선(檀君朝鮮) 때에 고시(高矢)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고시에 대한 예(禮)로써 음식을 떼어 던지면서 「고시례」하고 먹는 습관이 생긴 것이라 한다.

또한 조선조시대 호남 지방에 고씨(高氏)라는 후덕한 지주가 있었는데 소작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소작료를 감하여 주는 등 후대하였으므로 그 후 농민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고씨에 대한 고마운 뜻으로 먼저 음식물을 떼어 「고씨례」하고 던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說)들이 있으나 본래는 전자의 고시례(高矢禮)였는데,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고수례」로 굳어져 우리말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또 일설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는 잡귀가 불

어 있으므로 먹기전에 일부를 떼어 버림으로서 이 잡귀를 쫓았다는데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전한다.

지금도 이같은 습속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⑬ 기우제

기우제(祈雨祭)란 가뭄이 심할 때에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말한다.

즉 하지(夏至)가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고, 또한 밭곡식이 말라서 비가 오기를 기원한제사이다.

기우제는 정부나 혹은 각 고을과 각 마을 등 전국 각지에서 행하여졌는데, 이때의 제주(祭主)는 왕이나 지방관원 또는 마을의 장이 맡았던 것이다.

또한 불교계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용왕 운우경(龍王雲雨經)을 외면서 비내리기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었으며, 그리고 고려조 때에는 가뭄 때에 수시로 기우 도량(祈雨道場)을 열었다.

특히 고려 충목왕(忠穆王)은 몸소 내전(內殿)에 기우 도량을 베풀었던 기록이 전하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왕이 정치를 잘못하여 그 벌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뭄면 임금 스

서산의 민속

스로가 목욕 재계하고 정성드려 기우제를 지내야 했던 것이다.

지금도 각 지역에는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던 기우단(祈雨壇)의 유적이 남아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각 지방에 거대한 댐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어 전천후농사가 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⑭ 동신제(洞神祭)

동신제란 마을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에게 지내는 일종의 제의(祭儀) 행사를 말한다.

동신제는 마을 전체의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마을 주민들이 합동으로 거행하는 제의 형식인 것이다.

이같은 공동 의식(儀式)을 통하여 부락민의 공동체 의식(意識)을 도모하고 아울러 단합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각 지방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동신(洞神)을 모시고 제의를 거행한 것은 다를바가 없었다.

즉 산신당·서낭당·등등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충남 지방에선 주로 산신당을 모시고 제의를 행한 것 같다.

물론 동신제는 마을 전체의 공동 이익을 꾀하는 제의였지만, 마을 주민이 함께 이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주민 중에서 제관(祭官)을 선출하여 의식을 관장하였는데,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은 부정(不淨)이 없어야 했다.

따라서 선출된 제관은 외출을 삼가고 아울러 제관집에는 외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최소한 보름 전에는 출입문(대문) 앞에 황토를 3무더기 쌓아놓고 문 위엔 금줄을 달아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금기(禁忌)가 매우 까다로웠다.

그러나 제관은 물론 마을 주민이 모두 합심하여 금기를 지키고 부정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멀리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부정한 것을 보았으면 동신제가 끝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등의 금기를 엄격히 지켜야 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동신제를 지냈을 경우에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신제를 거행하는 형식은 유가 제의(儒家祭儀)와 당국 형식이 있었는데, 이는 각 지방에 따라 나누어졌으며 또한 절차 및 그 형식도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도 지역에 따라 동신제가 실시되어오고 있지만, 그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변형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실례를 찾아보면 태안에서 정월 열나흘날 밤에 남문리

서산의 민속

2구에서 지내는 노신제와 그리고 경이정(憬夷亭)에서 지내고 있는 중앙대제가 그것이다.

본래의 동신제와 오늘의 그것을 비교한다면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오늘날 동신이 존재한다면 노여움을 사서 큰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⑮ 태안중앙대제

이 중앙대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태안의 경이정에서 거행되는 제례를 말한다.

이 대제가 이 곳에서 거행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인 1972년부터인데, 그 기원은 산신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백화산 중턱에 자리잡은 태을암과 마에불상이 있는 중간지점인 차도 위 벼랑 밑 편편한 곳에 산신당을 짓고 매년 정월에 지성으로 산신제를 지내왔으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탓이었던지 산신당의 퇴락(頽落)으로 인하여 제례의식이 지난 1936년에 중단되었다.

그후 35년만에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1972년 태안읍내에 거주하는 남자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숙의한 끝에 산신제를 다시 지내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옛날같이 산신당을 짓고 그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명칭도 중앙대제로 개칭하고 장소도 경이정에서 지내기로 합의하고, 당년부터 노인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등 모든 제의 절차를 주관하여 수년(4년간) 간 내려오다 젊은 사람들이 이를 인수받아 지내고 있다. 즉 동·남문리 이장들이 맡아서 주관하고 있다.

제의 절차를 살펴보면 경이정의 마루에 자리를 깔고 병풍을 친 다음 큰 상에 제물을 차려놓고 3헌과 독축으로 끝나는데, 초헌관은 읍장·아헌 중헌은 각 기관장이 행한다.

그리고 모든 제물은 이장들이 준비하고 주관한다.

그러나 제례 의식은 본래의 원형과는 많이 변형된 이른바 현대식의 편리 위주로 변질된 느낌을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독자의 참고로 축문을 소개하다.

維 축 문

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初獻官 邑長(혹은 郡守)

亞獻官 機關長(平統委員)

終獻官 里長(老人代表)

敢昭告于

서산의 민속

天尊地下 中央大將軍 神位前
國泰民安 時和年豐
子孫榮貴 和合發展
管内數萬人口 患難救濟
疾病退治 安過太平
謹以清酌 庶羞祇薦
伏願伏祝 奠獻 尚
饗

⑩ 태안노신제

이 노신제(路神祭)는 현재 태안읍 남문리 2구 회관 마당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열나흘날 저녁 이장을 비롯하여 부락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본래 태안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방에서 거행하였는데, 동문리 1구는 샘골 입구의 여우내 다리 앞, 동문리 2구는 태안극장 입구 제중의원 앞, 남문리 1구는 환동 입구 한밭목욕탕 앞, 그리고 남문리 2구는 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입구인 부러크공장 근처에서 각각 노신제를 거행하였으며, 따라서 제사장소는 간이 시설로 매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즉 4귀퉁이에 긴 말뚝을 박고 밀짚방식으로 가린다음 자리



노신제때 게시하는
흑제 대장군상

를 깔아 상을 차려 놓고 제례를 거행하는데, 제물은 대략 주(酒)·과(果)·포(脯)·채(菜)를 비롯하여 시루떡을 통째로 놓고 이장이 주관하여 거행하였다.

이렇게 1948년까지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노신제를 지내왔으나, 정부 수립 후 미신타파운동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

서산의 민속

았다.

그 후 중단된 채 30여년 내려오다 지난 1980년부터 부활되어 거행하고 있는데, 지난날과 같이 동서남북의 4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남문리 2구만이 회관의 마당에서 거행하고 있다.

제례 장소는 옛날과 같이 3면을 밀짚 방석으로 가리고 자리를 깔 다음 상을 놓고 제물을 진설하는데 이 제물은 모두 두 이장이 책임지고 마련한다.

제례 절차는 3헌과 독축으로 끝나는데 초헌관은 마을의 영좌, 아헌관은 이장, 종헌관은 새마을 지도자가 행한다.

이들 제주(3헌관)는 노신제를 지내기 위해 10일간 집에서 근신하고 있다. 목욕재계한 다음 제례에 임한다.

근신이라고 하지만 옛날과 같이 외출도 육식도 삼가며, 부정한 것도 보지 않고, 또한 행하지도 않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근신이 아니라 형식상의 근신인 것이다.

끝으로 독자의 참고로 하기 위해 축문을 기술한다.

축 문

維

歲次丙寅正月甲申朔十五日戊戌閑良趙正男

敢昭告于

黑帝大將軍

帝命將軍 五行住水 獨制一面
 化行千載 殿我北方 四時行冬
 與接三隣 威伏百神 儼臨周行
 遙護環境 陰德彌彰 茲值歲新
 郡慝儘屏 諸妖不休 宜功洋溢
 敢獻清酌 掃彼千災 禾麥豐稔
 歲歲年年 神其格事 貺余百福
 癘疫消滅 民歌樂只 尚
 饗

(이 축문은 1986년에 사용한 것임)

⑰ 황도 당제

이 황도(黃島)의 당제(堂祭)란 본군의 안면읍 황도리에서 매년 음력으로 정월 초순에 거행되는 동신제(洞神祭)를 말하는 것이다.

황도는 본래 섬이었는데 지난 1979년에 육지(창기리)와 연륙교(連陸橋)가 가설되어 지금은 섬으로서의 실감이 나지 않지만, 매년 당제가 거행되고 있으므로 이곳의 지명을 붙이어 편의상 「황도의 당제」라 부르고 있다(실은 지명을 생략하고 당제라고 부르는 것이 예사이다)

이 황도리에는 큰 마을, 은거지, 집너머, 살마곰 등의 자연

서산의 민속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민가 약 100여호에 인구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비교적 평화로운 마을이다.

그런데 이 황도리에서 거행되는 당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드문 특이한 점이 있다. 즉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뱀(巳神)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본래 당집의 안에는 뱀의 그림을 붙여놓고 이를 신봉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마을의 일부 청년들이 미신타파의 일환으로 이를 제거하여 불에 태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뱀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타지않고 오히려 선명하게 나타나 마치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괴이하게 생각하고 즉시 땅 속에 묻어주었다는 사실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황도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되었는지 그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주 정씨(羅州鄭氏)와, 해주 오씨(海州吳氏)가 최초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황도에 정착하게 된 정씨와 오씨는 서로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자기 씨족들이 한 데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 세력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다.

정씨는 큰마을 오씨는 은거지에 각각 당집을 짓고 매년 정초에 당제를 극진히 지내왔는데, 오씨들의 가세(家勢)가 점

점 악화되어 마침내 그들의 당집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때 오씨들은 문중회의를 열고 합의 한 끝에 당집을 다시 세우지 않고 정씨들의 당집에서 함께 당제를 지내기로 하였던 것이다.

현존하는 당집이 그 동안 몇차례 중수는 하였지만 근원은 정씨들의 당집이 되는 셈이다.

이 당집은 당산에 조영되었는데, 3.4평에 불과한 목조 건물과, 두 평 미만의 초라한 산신당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당집의 주위에는 수령(樹齡)수 십년을 자랑하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이 당집의 역사를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도 매년 정초에 이 당제가 거행되고 있으니 독자들의 참고로 하기 위해 당제의 절차를 약술하여 둔다.

당제를 주관하는 재주를 달리 당주라 부르고 또 이 당주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화주라 하는데 이들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다.

즉 당주는 음력 설달 보름에 당제 준비를 위해 열리는 대동제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이 당주는 아무나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일단 선출된 당주는 여러가지 금기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만약 금기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자가 당주가 되어 이 당제를 주관하였을 때는 당주는 물론 마을 주민들이 모두 신령의 화를 입어 불행해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주는 이 금기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당주는 당제를 무사히 끝낸 뒤에도 다음 해의 당주가 선정되기 전에는 역시 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이 황도 당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당제를 마친 당주가 1년 동안 온갖 부정한 것을 보아도 안 되며 또한 행하여도 안됨은 물론 심지어 자기 집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문 위에 금줄을 달아 부정한 외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본인도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 당주를 선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황도의 당제가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져 여전히 거행되고 있지만 본래의 절차에 따라 엄격히 거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해방전까진 당제 의식이 매우 성대하게 거행되어 이미 정월 초이튿날 아침이면 당주·회주·집사자들이 모두 당집에 올라가 준비한 재물을 정성들여 진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물을 진설하고 나면 자정에 이르르게 되는데, 실은

이 때부터 당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강신무에 의해 신령의 초청이 끝나면 곧 이어 당주에 의해 술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는 절차 등으로 당제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당제의 의식 절차가 끝나는 동시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10여명의 무격(巫覡)들이 굿을 시작하는 것이다.

10여명의 무격들이 모여 굿을 하게 되므로 대성황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때는 마을 주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거도적(擧島的)으로 모두 참가하여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가는데, 무격들의 열두거리굿을 다 마치는 등 설레이다 보면 4일간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같이 4일간의 축제가 끝나면 마지막 절차로 산신당에 가서 산신제를 간략하게 지내고 모두 끝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도 이 당제는 주민들에 의해 여전히 거행되고 있지만 본래의 당제와는 거리가 먼 형식만으로 그치고 마는 것 같다.

즉 정월 초이튿날 저녁에 당주와 집사자가 당집에 올라가 제물을 진설하여 놓고 자정 무렵에 제의(祭儀)를 마친다. 그리고 새벽녘에 산신제를 지내고 하산함으로써 당제가 모두 끝나는 것이다.

이 당제가 과학의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우리들에게

서산의 민속

어떠한 것을 시사(示唆)하여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좌우간 우리 민속의 뿌리가 시들지 않고 오늘에까지 뻗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래 황도당집에는 뱀신을 모셨으나 앞에서 말한대로 소실되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임경업(林慶業) 장군이 어로신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이곳 황도당집에서도 임경업 장군신을 모시게 된 것이다.

황도당집에는 12신장을 비롯하여 성주·3불·장군신을 모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경업 장군이 주신(主神)인 것이다.

⑱ 영신제

이 영신제(靈神祭)란 본군의 부석면 창리 마을 해변가 언덕 위에 조그마한 당집을 짓고 임경업(林慶業) 장군 내외분의 영정을 모시며 봉사하는 당제를 일컫는 것이다.

이 창리 마을은 부석면의 남쪽 하단에 위치한 갯마을이다.

이곳엔 70여호에 3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바다이므로 매년 풍어와 무사함을 기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바다를 다스린다고 믿는 용왕인 해신(海神)을 모



영신당에 안치되어 있는 임경업장군 부처

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인 임경업 장군 내외분의 영정을 모시고 이를 신봉하는 당제를 지내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임경업 장군은 조선조의 인조 때 무장으로써, 이괄의 난(1624)이 일어나자 이에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훈 1등을 받은 공신이다.

이 마을에서는 언제부터 왜 이같은 특정 인물을 숭상하는 영신제를 지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경업 장군이 어로신으로 등장한 뒤부터인 것 같다. 6·25 전까지는 각지에서 이름 난 무격(巫覡)들을 초청하는 등 대성황리에 이 영신제를 거행하여 마을 주민들은 하루종일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들떠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신제는 매우 간소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기 사항도 무시된 채 형식만이 이어져 내려오는 느낌이 든다.

영신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지내는데, 이에 앞서 이튿날 저녁에 산신제를 먼저 지내는 것이다.

영신제를 주관하는 당주(제주)가 초사흘날 아침 당산에 오르게 되면 잠시 후에 주민들이 뱃기를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며 당산으로 향하는데, 여기에는 집사자들이 동참하게 된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모두 당집에 모이게 되면 준비한 재물을 부지런히 정성들여 진설하게 되는데, 이 진설이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쯤 된다.

이 때부터 절차에 따라 제의(祭儀)를 거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이 끝나면 즉시 마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집에서 기다렸다가 날이 새면 아침에 일행이 함께 하산함으로써 당제가 끝나는 것이다.

이 영신제는 개인의 구복(求福)이나 영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익과 무사 태평함을 기원하는 제의(祭儀)임으로 일단 제주(祭主)가 엄선되면 마을 주민이 모두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금기 사항이 있었던 것이다.

즉 당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선의 출어를 금지하고 또한 출산이 임박한 임부는 다른 마을에 가서 해산해야 하는 등 기

타 부정한 것을 보아도 안되고 행해도 안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산신제를 지키는 초이튿날은 새벽부터 당샘을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 놓았다가, 제주가 제의에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한 다음에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당산에 대해 매우 신성시하고 있다. 즉 신성한 지역(聖域)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당산에 들어가 나무를 베다든가 당집에 접근하는 일을 삼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마을 주민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지극한 정성(至誠)으로 당제를 지내니 이 마을에는 한 사람의 객사자나 전사자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신의 가호로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왔으며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같은 설화를 믿으려는 주민이 많은지도 모른다.

여하간 티없고 평온한 이곳 갯마을의 주민들은 내일への 꿈이 마냥 부풀어 있는 것같이 매우 활동적이었다.

⑬ 석전제(釋奠祭)

음력의 2월과 8월의 첫 정일(上丁日)에 각 향교에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지내는 큰 제사를 석전제라고 하

서산의 민속

는데, 이를 달리 석채(釋菜) 또는 석전대제라고도 부른다.

또한 봄(二月)에 지내는 것을 춘계석전제, 가을(八月)에 지내는 것을 추계석전제라고 한다.

이 석전제는 송유 사상(崇儒思想)을 기리기 위해 거행되는 전형적인 유교 행사의 하나인데, 본군에서는 서산·태안 그리고 해미 향교에서 각각 거행되고 있다.

석전제의 절차는 초헌·아헌 그리고 종헌으로 끝나는데, 이때 초헌은 군수 아헌과 종헌은 그 지역의 인사 중에서 덕망과 품위있는 사람이 행하며, 축관·집례(執禮)는 아헌·종헌관 다음가는 인사가 행하고 봉향(奉香)·봉로(奉爐)·봉작(奉爵)하는 사람도 미리 전교와 장의 등이 상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모두 참제(參祭)하여 석전제가 계획대로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서산향교와 해미향교의 봉사 위패(奉祀位牌) 수는 각각 25위로써 그 중 18위가 한국인, 7위가 중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태안향교는 39위를 봉사하고 있다.

이 39위 중 18위가 한국인 그리고 21위가 중국인으로서 오히려 외국인의 위패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균관의 봉사 위패와 같은 것이다.

⑳ 안택(安宅)

안택이란 글자 그대로 집안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일종의 제의(祭儀) 형식인 것이다.

즉 안택은 주로 판수나 무당이 안택경(安宅經)을 외며 집안에 탈이 없도록 터주신을 비롯하여 성주신 조왕신 등을 위로 제사하는 것이다.

이 안택은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정초에 많이 실시한다. 이는 하루라도 속히 무사함을 기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안택은 새해를 맞이하여 당년의 무사태평을 비는 만큼 정성껏 거행해야 하며 따라서 부정을 피해야 하므로 외래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즉 대문 밖에 황토 세 무더기를 쌓아놓고 문 위엔 금줄을 쳐서 출입을 막았다.

안택은 가정주부가 비손으로 실시하는 것과 판수나 무당을 불러 행하는 두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주로 판수에게 맡겨서 실시한 예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요즘은 이 같은 민속도 거의 사라진 것 같다.



4. 민속 의례

- 관례
- 혼례
- 상례
- 제례
- 수의례
- 하의례
- 가정의례 순식

(1) 관례 (冠禮)

관례란 아이가 어른이 되는 예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일찍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일종의 성인식으로서 혼례전에 이 관례식을 올렸는데, 남자는 15~20세에 땅아 내렸던 머리를 위로 올려서 상투를 틀고 관을 쓰게하여 성인이 되었음을 알렸던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15세가 되면 계례(笄禮)를 행한다. 계례란 땅아내렸던 머리를 풀고 쪽을 틀어 비녀를 꽂는 의식인데 이 때의 주례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선정한다.

이같은 관례를 치르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결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관례식은 일가친척과 마을 어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거행하는데, 이 때의 의식을 맡아 볼 주례를 선정해야 한다.

주례는 주인공의 스승이나 아니면 덕망 있는 인사로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주례자는 관례식을 진행하는데 삼가(三加)의 예를 행하는

서산의 민속

것으로서 그는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인데, 초가례는 성인에게 관을 쓰게하고 성복을 하며, 재가례는 심의(深衣)를 벗고 청포(靑袍)에 혁대를 띠며 신발을 신게 한다. 그리고 삼가례는 청포를 벗고 난 삼을 입고 띠를 띠고 목달린 신발을 신게 한다.

이로써 3가의 예가 끝나는데, 이어 주례자는 청년에게 자(字)를 지어 준다.

그리고 사당이 있는 집은 사당에 가서 성인이 되었음을 고하고 아울러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관례식이 끝난다.

(2) 혼례 (婚禮)

결혼이란 인간 대사로써 남녀가 혼기에 이르면 의식을 거행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국민된 도리를 다하였다.

지난날의 결혼은 대부분이 중매 결혼으로서 당사자간의 의사가 무시된 채 강요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특히 가세와 가풍을 중요시 했으며 또한 혼례의 절차도 매우 복잡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혼(議婚), 납채(納菜), 연길(涓吉), 납폐(納幣), 친영(親迎)등인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 혼

의혼이란 글자 그대로 결혼을 의논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측에서 서로 사람을 보내어 상대방의 가세와 내력 본인의 인격 학식, 그리고 성품 등을 알아보고 궁합을 본 다음 양가가 서로 뜻이 맞으면 허혼(許婚)하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따르면 남자는 16~30세, 여자는 14~20세 사이에 혼담을 할 수 있는데 상중(喪中)에는 결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② 납 채

앞으로 부부가 될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의 하나로서 사주(四柱=四星)를 보내는 것이다.

즉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써서 신부집에 보냄으로써 약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사주의 용지는 백지나 창호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크기는 대략 길이 30센치, 폭 40센치 정도면 된다.

이 종이를 5간으로 접어서 한 가운데에 붓글씨로 깨끗이 사주를 정서한다.

사주는 60갑자에 의한 간지(干支)를 쓰는 것인데, 이를 접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중히 접어서 봉투에 넣은 다음, 안쪽은 파란색 겉쪽은 붉은색의 비단으로 만든 겹보자기에 싸서 신부될 집에 보낸다.

사주와 납채문 쓰는 서법과 납채례의 순서 등은 생략한다.

③ 연 길

결혼 날짜를 택일하는 것을 연길이라 하는데 이는 신랑집

에서 사주를 보내오면 이를 참고로 신부집에서 좋은 날을 택 일해서 신랑측에 보낸다.

연길 송서(涓吉送書)의 서식은 생략한다.

④ 납 폐

납폐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로서 신부용 혼수와 예장(禮狀)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결혼식 전에 보내는 것이다.

이 때 신랑집의 가세에 따라 보내는 혼수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 해도 청단 홍단의 치마, 저고리감은 보내야 했다.

⑤ 친 영

친영이란 6례의 하나로서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대례라고도 한다.

이 대례는 전안(奠雁), 교배례(交拜禮), 그리고 합근례(合卺禮)등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전안례만을 올리고 신부를 신랑집으로 맞이하여 초례(醮禮)를 올렸다.

그러나 근래에는 신부집에서 전안 초례 등 일체의 성혼식을 거행하고 아울러 우귀례(于歸禮)를 올린다.

서산의 민속

혼행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및 신방 동상례, 우귀례, 폐백 등에 관한 절차와 그 내용은 생략한다.

(3) 상례 (喪禮)

병세가 악화되어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가족들은 침착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명을 기다리는데, 이 때 병자에게 문의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기 쉽게 물어야 하며 또는 병자가 자손들에게 최후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해야 한다.

이를 유언이라 하는데 유언은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서 대필할 수도 있다.

① 임종(臨終)

임종이란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순간을 말한다. 이 때 병자를 정침(正寢)으로 옮기는데,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새옷으로 갈아 입힌 다음 옆에서 조용히 운명을 기다린다.

② 수시(收屍)

서산의 민속

운명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숨으로 입, 코, 귀 등을 막고 머리를 약간 높고 반듯하게 피는데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주물러서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 백지로 얼굴을 덮고 두 손을 배 위에 올려 놓는다. 이 때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백지나 베로 묶는다.

③ 고복(梟復)

고복을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드린다는 뜻이다.

수시가 끝난 다음 밥 세 그릇과, 짚신 세 켤레를 대문 밖에 내놓고, 망자가 남자이면 두루마기나 적삼, 여자면 적삼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서거나 마당에서 왼손으로 옷깃을, 오른손으로 옷의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며 큰소리로 「해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읍 동문리 학생○○○○공, 여자면 유인○○○복! 복! 복! 하고 세번 외친다.

옷은 지붕 위에 그대로 놓거나 아니면 시체 위에 놓고 곡을 한다.

④ 발상(發喪)

상사가 났을 때 초혼을 하고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것인데, 이 때 상중(喪中) 혹은 기

중(忌中)이라 써서 문밖 또는 길목에 붙인다.

⑤ 상제(喪制)와 복인(服人)

장자 혹은 장손은 주상(主喪)이 되며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그리고 복인은 망자의 8촌 이내로 한다.

⑥ 호상(護喪)

발상이 끝나면 호상소를 마련하고 상주를 대표하여 친족 중에 상례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 모든 일을 맡아 보게 한다.

⑦ 전(奠)

망자를 생시처럼 섬긴다는 뜻에서 술과, 포, 과일 등을 차려서 시신의 오른쪽 어깨 가까이에 놓는데 절은 하지 않는다.

⑧ 부고(訃告)

부고란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이는 호상과 상주가 서로 상의하여 친족과 친지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부고장은 붓글씨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 인쇄를 한다.

서산의 민속

⑨ 습(襲)과 염(殮)

습과 염이란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다음 수의를 입히고 입 관 직전까지의 절차로서 염습 또는 염이라고도 한다. 이 염에는 소렴과 대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해당 조항에서 설명한다.

⑩ 수의(壽衣)

수의란 사람이 죽어 염습할 때에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말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바지, 저고리, 버선, 대님, 허리띠, 행전, 두루마기, 조대(條帶), 대대, 토수 신발 등이며, 여자는 저고리, 적삼, 속곳 바지, 큰 허리띠 등이다.

⑪ 습전(襲奠)

습전이란 상을 당하고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인데 주(酒), 과(果), 포(脯), 혜(醢)등을 차려 시신의 오른쪽에 놓고 애곡하는데 이 때 상주가 반함(飯含)한다. 이어 상주는 시상(尸牀)의 동쪽에 앉아 제사한다.

⑫ 반함(飯含)

반함이란 죽은 사람의 입속에 구슬이나 쌀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상주가 시신의 얼굴을 덮은 명건을 걷고 버드

나무 수저로 쌀을 조금 떠서 입 속에 넣고 따라서 구슬도 넣는다(구슬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⑬ 혼백(魂帛)

신주를 만들기 전에 명주나 삼베 또는 백지 등으로 접어서 만들어 쓰는 임시적인 신위(神位)를 말하는데, 이는 장사 전에만 사용하고 그 뒤에는 신주로 대신한다.

⑭ 소렴(小殮)

소렴이란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의 하나로서 죽은지 이튿날 아침에 실시한다.

소렴에 쓰는 물품과 그 절차는 생략한다.

⑮ 대렴(大殮)

대렴이란 소렴을 한 이튿날 아침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신을 입관시키는 의식의 하나인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⑯ 성복(成服)

성복이란 대렴을 마친 이튿날에 상복을 입는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서산의 민속

상복의 갓춤은 먼저 효건(孝巾)을 쓰고 그 위에 상관(喪冠)을 쓰며 그 위에 수질(首絰)을 매고 치마를 입으며 아울러 요질(腰絰)을 띠고 짚신을 신는다.

그리고 장기(杖基)이상의 복인은 상장(喪杖)을 짚는다. 또한 부인도 효건과 상관을 제외하고는 남자와 동일하다.

⑰ 복제도(服制度)

복제에는 ① 참취(斬衰) ② 재취(齊衰) ③ 장기(杖基) ④ 부장기(不杖基) ⑤ 대공(大功) ⑥ 소공(小功) ⑦ 시마(緦麻) 등이 있는데, 참취는 3년으로서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입는 복이요, 재취는 역시 3년 상으로서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이다.

그리고 장기는 5개월로서 적손이 자기 아버지는 죽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할머니의 상에 입는 복, 부장기는 3개월로서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 입는 복, 대공은 9개월로서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해 입는 복, 소공은 5개월로서 종조부와 종조모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를 위해 입는 복, 시마는 3개월로서 종종조부와 종종조모 종조의 형제나 자매 또한 형제의 증손을 위해 입는 복이다.

⑱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

아침에는 조전, 저녁에는 석전을 올리고 매식사 시간에는 상식을 올리는데 석전에는 곡을 한다. 또한 조전은 해가 뜬 아침, 석전은 해가 진뒤에 올린다.

특히 초하룻날과 보름날의 조전은 제물을 많이 차리며 또한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올린다(천신한다).

⑲ 조상(吊喪)

조상은 본래 성복 뒤에 하는 것이다. 성복 전에는 가까운 친척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상주에게만 인사를 하고 따라서 영구에는 절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그리고 망자와 생시에 면접한 일이 없거나 여자인 때에는 상주에게만 인사하고 빈소에는 절하지 않는다.

또한 조상을 가서 올리는 물품은 향양초·차·술·과일 등이고 이 밖에 부의로는 돈이나 비단으로 하였다.

⑳ 영결식(永訣式)

영결식이란 글자 그대로 죽은 사람과 산사람이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인데, 식전에 완료해야 할 것은 치장(治葬)의 하나로 우선 광중(擴中)을 만들고 천구(遷柩)를 해야 한다.

㉑ 발인(發柩)

서삼의 민속

장사 지내려 가기 위해 상여가 집에서 출발하는 절차이다. 옛날에는 대여(大輿)를 사용하였으나 가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으므로 상여를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다.

하지만 요즘은 영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상여의 모습

② 견전(漣奠)

상여가 떠날 때 지내는 제사이니 일종의 발인제인 것이다. 제수는 조전 때와 같으며 축관이 고사를 읽고 나면 상주는 곡하고 절한다.

견전축(遣奠祝)

靈輻既駕 往即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영이기가 왕즉유탉 재진견례 영결종천)

㉓ 하관(下棺)

하관이란 이미 파놓은 광중에 관을 묻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상주는 곡을 그치고 관이 바르게 놓이나 또는 이물질은 들 들어가지 않나 살펴야 한다.

이윽고 성분(成墳)이 완료되면 장례가 끝나는 것이다.



(4) 제례(祭禮)

제례란 글자 그대로 제사의 예식을 일컫는 것인데, 이 제사에는 상례 때 장사를 마치고 곧 지내는 우제(虞祭)를 비롯하여 사십구일제, 소상, 대상, 담제, 길제, 시제, 다례, 연시제, 절사, 이제, 기제, 묘제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어 구습 제례는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 이 구습 제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 구습제례는 지난날의 우리 민속이었기에 참고로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제사의 내용을 약술하여 둔다.

① 우제(虞祭)

우제란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말하는 것인데, 흔히 이를 합쳐서 삼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우제는 장사가 끝난 당일에 혼령을 위안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며, 재우제는 초우제를 지낸 뒤, 즉 장사를 마치고 두번째로 지내는 제사인데, 이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일(柔日)에 지낸다.

유일이란 일진의 천간(天干)이 을(乙)정(丁), 기(己), 신(辛), 계(癸)로 되는 날이다. 이를 달리 쌍일(雙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삼우제는 재우제 뒤의 강일(剛日)에 지내는데, 강일이란 일진의 천간이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이 강일을 달리 척일(隻日)이라고도 한다.

②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이 사십구일재를 흔히 사십구재라고 부른다. 이는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49일 째 되는 날에 지내는 재를 말하는데, 이를 달리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이 사십구재는 불교 의식의 하나이지만 유교에서도 올린다. 이는 이름 난 절이나 또는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 가서 승려의 선도 아래 거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십구재는 망자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뜻으로 올리는 것이다.

서산의 민속

③ 소상(小祥)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를 달리 소기, 일회기, 일주기, 연상(練祥)이라고도 한다.

제례의 절차는 강신(降神)·삼헌(三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사신(辭神)의 순서로 거행 한다.

소상 축문

維

歲次于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孤子某(母喪엔 孤哀子)
孤哀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常事

尚饗

④ 대상(大祥)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만 2년만에 지내는 제사인데, 이를 달리 대기·또는 상사(祥事)라고도 한다.

제례는 소상과 같이 이른 아침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그 절차도 소상 때와 동일하다.

민속 의례

그리고 제사를 마치면 사당이 있는 집은 신주를 사당으로 옮겨 모시고 영좌를 없애버린다. 또한 복을 입은 사람은 모두 벗으며 이 때 상장(喪杖)과 상장(喪章) 등은 태워 버린다.

대상 축문

維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孤子某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 清酌庶羞 哀薦祥事

尚饗

⑤ 담제(禫祭)

이 담제란 대상을 지낸 뒤 두 달로 접어든 그 달의 하순정일(丁日)이나 또는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신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에는 초상 후에 15개월 만에 지내는데, 이를 담사(禫祀) 라고 한다.

서산의 민속

이 담제의 절차는 대상 때와 같이 강신(降神), 삼헌(三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사신(辭神)의 순서로 마치는데, 이가 끝나면 비로소 상주는 술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⑥ 길제(吉祭)

길제는 사람이 죽은 지 27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인데, 날짜는 당월 중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는 것이다.

길제는 선대 조상에게 고사하고 아울러 혼령이 비로소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인데, 그 절차는 담제와 같으나 다만 계문과 사신 사이에 수조(受胙)가 있는 것이 다르다.

⑦ 시제(時祭)

시제에 관해서는 앞의 가을철의 풍속조에서 이미 약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⑧ 다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명절날 그리고 조상들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인데, 이는 낮에 거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속 의례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이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조상들의 생일 등에는 지내지 않지만 명절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차사(茶祀)·차례(茶禮)라고도 한다.



차례의 모습

서산의 민속

⑨ 연시제(年時祭)

이 연시제는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지내는 설날의 차례(茶禮)인 것이다.

봉사(奉祀) 대상은 각 가정에 따라 다르다. 즉 4대조까지 지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3대조로 국한시키는 가정도 있다.

이와 같이 합사할 때는 봉사 대상별로 지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이에 나란히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시제는 헌작을 한번으로 끝내고 축문은 읽지 않는다.

가정의례준칙에서도 이 연시제는 허용하고 있다.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라고 가정의례준칙 제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⑩ 절사(節祀)

이 절사란 절기나 명절을 따라 지내는 차례인 것이다.

절사도 앞에서 말한 연시제와 같이 가정의례준칙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사인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절사의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② 절사는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 절사의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 자손으로 한다 라고 준칙 제 19조에 명시하고 있다.

⑪ 이제(禩祭)

음력 9월 즉 계추(季秋)에 지내는 제사를 이제라 하는데, 날짜는 전 달의 하순에 정한다. 이같이 날짜가 정해지면 재제(齋戒)하고 하루 전에 신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의 의식은 시제와 같다.

⑫ 기제(忌祭)

3년상이 끝난 뒤에 해마다 죽은 날(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시간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내는데, 이를 흔히 기제사 또는 보통 제사라고도 한다.

기제의 대상은 4대조까지 종가에서 지내고, 5대조 이상은 기제로 지내지 않고 시제로 지낸다.

주자 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한 위에만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 기일에는 아버지 만, 어머니 기일에는 어머니 한 위만 만들고 제사 지내는 것이 정당한 예법이라 하였는데, 정자(程子)의 제례에는 고비(考妣)를 함께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후자인 정자의 제례에 따라기

서산의 민속

일은 다르지만 함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기제의 절차는 ① 강신 ② 참신 ③ 초헌 ④ 독축(讀祝) ⑤ 아헌 ⑥ 종헌 ⑦ 첨작 ⑧ 제반삽시(啓飯挿匙) ⑨ 합문 ⑩ 계문 ⑪ 헌다(獻茶) ⑫ 철시복반(撤匙復飯) ⑬ 사신 ⑭ 철상 ⑮ 음복의 순서로 마친다.

⑬ 묘제(墓祭)

묘제란 글자 그대로 산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함인데, 달리 묘사(墓祀)라고도 한다.

한식이나 시월에 지내는 시제가 이에 해당 된다.

이 밖에 천신(薦新)이 있는데 이는 새로 나온 과일이나 새 곡식으로 만든 음식물을 신위에 올리는 제사이다.

⑭ 제사삼 차리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우선 제물을 준비하고 준비된 제물을 격식에 따라 진설해야 한다.

그러나 제수의 종류와 진설의 순서도 율곡선생의 격몽요결 제찬도, 주자 가례 제찬도 그리고 도암 이선생 사례편람 제찬도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례는 복잡하고 또한 가정 형편이 각자 다르므

로 이는 가가례(家家禮)에 따라 제수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가세에 따라 일정할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차리는 주부는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드려 청결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물에는 기본적인 것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를 갖추는 것이 예의이다.

즉 메, 탕, 채소, 김치, 간장, 과일, 제주, 갯수, 시접, 모사, 위패, 향로 그리고 촛대 등이다.

또한 제물의 진설에도 격식이 있으니 다음의 순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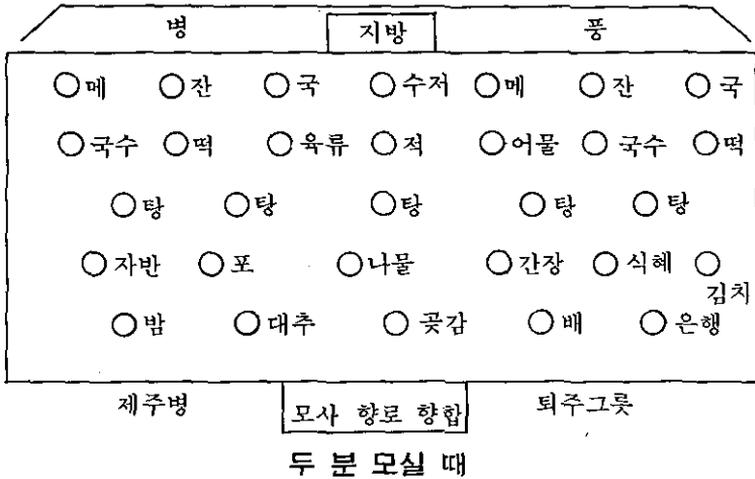
-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과일은 동쪽 흰것은 서쪽에
- 생동숙서(生東熟西) = 김치는 동쪽 나물은 서쪽에
-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해물)은 동쪽 육류는 서쪽에
- 두동미서(頭東尾西) =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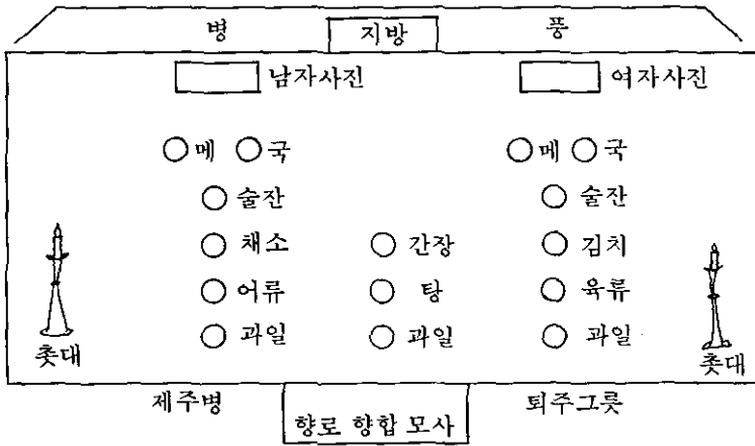
- 좌포우혜(左脯右醢) = 포는 서쪽에 혜는 동쪽에
- 조율이시(棗栗梨柿) = 동쪽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순으로 진설 한다.

울곡선생의 격몽요결 제찬도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제상 차리기



(5) 수연 (壽宴)

수연이란 장수함을 축하하는 잔치를 말한다. 이를 보통 환갑, 또는 회갑 잔치라고도 한다.

환갑이란 만 60세에 맞이하는 생일인데, 이는 육갑(六甲)의 간지가 60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환갑을 맞으면 슬하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효행의 하나로서 일가 친척들과 친지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이 때 자녀들은 큰 상을 차려드리고 절을 하며 만수무강을 비는데, 이를 헌수(獻壽)라 한다. 헌수에는 장남부터 차례로 술잔을 올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큰 상을 차리는 것은 가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수연상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서산의 민속

① 다식 ② 건과 ③ 생과 ④ 유과 ⑤ 떡 ⑥ 당속(糖屬) ⑦ 정과 ⑧ 포 ⑨ 적 ⑩ 전 등이다.

또한 수연잔치에는 육순, 진갑, 칠순, 팔순 그리고 미수(米壽)와 회혼식 등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호화로운 수연은 삼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애들을 위한 100일 잔치와 돌잔치가 있는데 그 절차 및 내용 등은 생략하고 다만 「돌잡이」만 설명한다.

즉 첫돌날에 뽕상을 차려놓고 아이로 하여금 자유로이 물건을 골라잡도록 하는 것인데, 이 때 잡는 물건에 따라 장래의 직업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돈과 곡식은 부(富), 국수와 실은 장수, 책은 학문, 활은 무(武)로서 현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6) 현대 의례

① 성인식(成人式)

성인식이란 지난날의 관례를 말한다.

관례란 결혼 전에 올리는 의식의 하나로서 남자는 15~20세에 이르면 관을 쓰게하고, 여자는 15세에 쪽을 틀고 비녀를 꽂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를 계례(笄禮)라 했다.

이와 같이 관례를 거행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관례란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므로 성인이 되지 않고는 결혼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오늘날에는 관례식 대신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남녀 함께 만 20세가 되면 집단으로 성인식을 올리는 것이다.

즉 중앙 관서나 각 읍면 단위 아니면 시·군이 일괄해서

서산의 민속

또는 직장 단위로 성인식을 거행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성인식날은 매년 5월의 3주째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금년은 5월 18일이 15회째 맞이하는 성인의 날이다)

성인식을 거행함으로써 비로소 성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정의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가는지도 모른다.

② 결혼식

중매 혹은 연애의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사주와 궁합에 구애되지 않는다.

다음은 결혼 절차의 하나로서 우선 약혼을 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간에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 그리고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끝난다. 약혼식과 잔치는 하지 않는다.

또한 결혼 날짜와 장소는 양가 합의하에 결정하는데, 식장은 양가 중 어느 한 가정이나 아니면 공회당·예식장 중 적당한 곳을 선택한다.

그리고 결혼복은 당정하고 청결한 차림이면 좋으며, 신혼여행은 당일로 한다.

③ 상례(喪禮)

사망 후 매장 혹은 화장 완료시까지 행하는 모든 의식은 생략하고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거행한다.

그리고 장일은 3일장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는 조부모를 비롯하여 부모 배우자는 100일로 하고 기타는 장일까지로 한다.

또한 상복은 백색이나 흑색의 한복 아니면 흑색의 양복으로 하되, 별도로 만들지 않으며 상장은 왼쪽 가슴에 단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되며 주상(主喪)은 장자가 된다.

부고를 신문에 게재할 때 기관이나 단체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문구는 영구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여를 사용할 때는 망인의 사진, 명정, 상여, 상제 그리고 조객순으로 한다.

④ 제례

제례는 기제·절사·연시제로 하고 그외는 행하지 않는다.

기제는 2대조까지로 하고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절사는 추석날 연시제는 설날 아침에 지낸다.

그리고 제수는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평생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한다.

서산의 민속

또한 성묘는 각자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치 않는다.

⑤ 환갑

환갑은 가정에서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모여서 간소하게 지낸다.

(7) 가정의례준칙

(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 6680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영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혼례(婚禮)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2. 상례(喪禮)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제례(祭禮)라 함은 기제(忌祭), 절사(節祀), 연시제(年始祭)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서산의 민속

4. 회갑연(回甲宴)이라 함은 제 60회 출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주상(主喪)이라 함은 상례의 의식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만장의 사용) 법 제 4조 제 1항 제 5호에서 만장의 사용이라 함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 등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 2장 혼례

제 5조(약혼)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제 6조(혼인)

1. 혼인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혼인의식의 장소는 당사자 일방의 가정, 공회당이나 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 ② 혼인신고서에 서명 날인한다.
 - ③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2. 혼인에 있어서 「함잡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
 3. 신행은 혼인 당일에 한다.
 4.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의 요령은 별지 2에 의한다.

제 3 장 상례

제 7 조 (장례 제식) 사망 후 매장 완료 또는 화장 완료시까지 행하는 제식(이하 「장례 제식」이라 한다)은 발인제(發靛祭)와 위령제(慰靈祭)만을 행하고 그 이외의 ……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발인제)

1.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2.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銘旌)

서산의 민속

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 또는 위패(位牌)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제 9조(위령제)

1. 매장(埋葬)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 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 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잔올리기, 축문읽기 및 배례(拜禮)로써 행한다.
2. 화장(火葬)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 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제 1항에 준하는 절차로써 행한다.

제 10조(喪日)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 11조(喪期)

1.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백일까지로,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2. 상기중 신위를 모셔두는 케연(几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제 12조(喪服)

1.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2.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제 13조 (喪制)

1.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2.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3.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 14조 (訃告)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15조 (관나르기)

1. 관나르기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하되,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나르기의 행렬 순서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손으로 한다.

제 16조 (상례의 식순 등)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은 별지 3에 의한다.

제 4 장 제 려

제 17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忌祭), 절사(節祀), 연

서산의 민속

시제(年始祭)로 구분한다.

제 18조(기제)

1. 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2.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3. 기제의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 자손으로 한다.

제 19조(절사)

1. 절사의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2. 절사는 매년 추석날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3. 절사의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 자손으로 한다.

제 20조(연시제)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제 21조(祭需)

1.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2. 절사의 경우에는 떡으로, 연시제의 경우에는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 수 있다.

제 22조(제례의 절차 등)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 등의 요령은 별지 4에 의한다.

제 23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갑연

제 24조(회갑연) 회갑연은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舊 준칙의 폐지) 종전의 가정의례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 첨부=호적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민법 제 80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은 그 동의권자로 한다.

[별지 2] 혼인식순 서약 성혼선언

1. 혼인 식순 : ① 개식 ② 신랑신부 맞절 ③ 신랑신부 서약
④ 성혼선언 ⑤ 혼인신고서 날인 ⑥ 신랑신부 인사 ⑦ 폐식
2. 혼인 서약 주례는 신랑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혼인 서약을 하게 한다.

신랑 ○○○군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3. 성혼선언 : 성혼선언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성 혼 선 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 친척과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서산의 민속

[별지 3] 상례식순 상장규격

1. 발인제의 식순 ① 개식 ②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③ 고인의 약력 소개 ④ 조객분향 ⑤ 폐식
2. 상장의 규격 : ① 감의 크기 ② 접는 모양

[별지 4] 제례절차

1. 제례의 절차

- ① 혼령모시기 = 제주는 분향하여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
- ② 잔올리기 = 술잔은 한번 올리기로 한다.
- ③ 축문읽기 =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 ④ 물림절 =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

2. 신위모시기 :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다음의 본 보기에 따라 쓴다.

① 부모의 경우

| | |
|----------|----|
| 아버님 | 신위 |
| 어머님 전주이씨 | 신위 |

② 배우자의 경우

| | |
|-----|----|
| 부 군 | 신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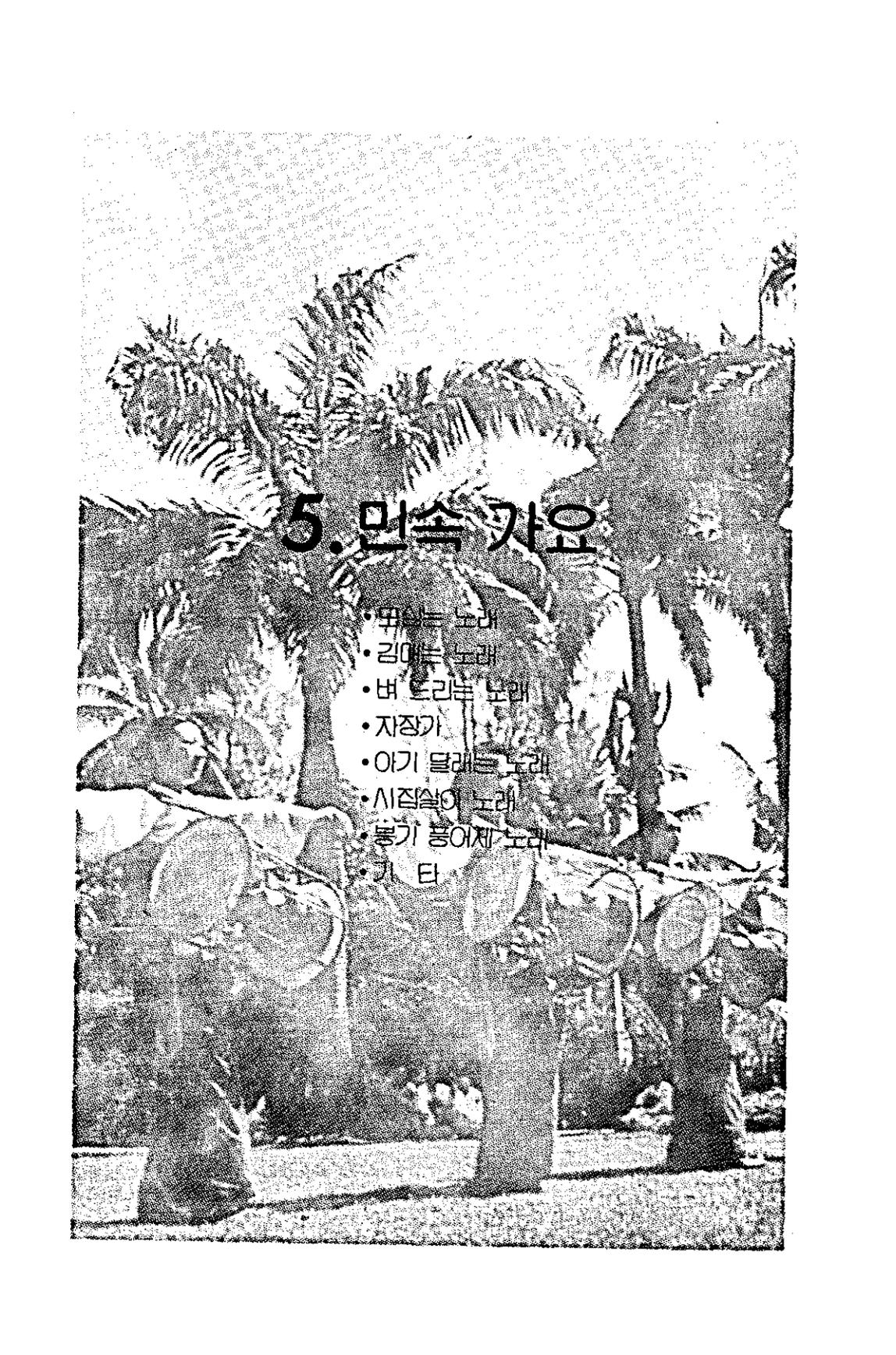
| | |
|---------|----|
| 망실 밀양박씨 | 신위 |
|---------|----|

③ 절사의 경우

| | |
|---------|----|
| 선조 여러어른 | 신위 |
|---------|----|

④ 합사하는 경우

| | |
|----------|----|
| 아버님 | 신위 |
| 어머님 밀양박씨 | 신위 |
| 할아버님 | 신위 |
| 할머님 전주이씨 | 신위 |



5. 민속 가요

- 푸른 노래
- 김매는 노래
- 벼 도리는 노래
- 자장가
- 아기 들레는 노래
- 시집살이 노래
- 흥기 흥어제 노래
- 기타

(1) 모심는 노래

I

어허디야 상사디
언덕 밑에는 띄어 심고
앞가슴에는 붙여 심어
양친부모 봉양하세
이 논배미 얼른 심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자
상사 소리 정 잘하면
안마누라 술동이 이고
엉덩이 춤 추며 나오신다
어서 빨리 빨리 심어가자
우리 농사는 천하지대본
작년에도 풍년

서산의 민속

올해도 풍년을 바라보며
어허라 상사디야!

II

에헤루 어여루 상사디야
이 논에다 모를 심어 장잎이 훨훨 장화로다
이 농사를 얼리지어 나라 세금도 내거니와 부모 봉양도
하여보세
에헤루 상사디야

이 논 스무마지기 다 심고 반달만큼 남아 있네
얼른 심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자
에헤루 어여루 상사디야

녹음방초 성하시에
오늘 해는 왜 이리 더디가나
에헤루 어여루 상사디야

녹음방초 성하시에
오늘 해도 다 갔구나

골목골목에서 연기가 난다
에헤루 어여루 상사디야!

Ⅲ

어화 농부들아
이 내 말씀 들어보소
봄철에는 밭을 갈고
여름철엔 모를 심어
성공지사 하여보세
여봐라 농부들아 말 들어라
일생 신고를 근심치 말아라
천하의 대본은 농부로다
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천자님께 구실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께 봉양하자
에헤야 상사디야!

(2) 김매는 노래

I

어화 상사디야
내 말 들어보게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내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어화 어해 상사디야

II

얼카덩이 얼카덩이
얼거차 얼거차

일천 기러기
사천 마리 날아 가듯
일자로만 빼어가자
좌우 결물 흐리지 말고
한 골짜기로 모아주게
얼카덩이 얼카덩이
이 몸들은 또아리
몸 들로 하지 말고
장어 물로 하여 가세

Ⅲ

얼카덩이 잘 너머간다
어서 싸게 앞으로 가자

얼카덩이 잘 너머간다
이 한배미 어서 너머가

얼카덩이 잘 너머간다
장어배미 우리 부르네

서산의 민속

얼카땡이 잘 너머간다
아침해는 어디 숨었나.

(3) 버드리는 노래

어허행이야
바람새 좋아서

어허행이야
잘 드러진다

어허행이야
한 가래 두 가래

어허행이야
잘 드러진다.

(팔봉면 어송리 문창회 제공)

(4) 자장가

I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검둥이도 자고
흰둥이도 자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망아지도 자고
꼬꼬닭도 자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서산의 민속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검둥이도 자드라
삼살개도 자드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두부장수 들어왔다
새아씨 들어왔다
할머니 들어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두부장수 나가라
새아씨 나가라
할머니 나가라

II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건너 마을
흰둥이도 잘도 자고
이웃집의
검둥이도 잘도 잔다
고리눈은 쿵쿨
삼사리는 썩근썩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Ⅲ

소성팔경에 하나가 되고
옛날 중원에서 내조하던
경이정(憬夷亭) 위에 밝은 불빛
우리 어둠을 일깨우네
거기서 배우는 아학생들
읽고 쓰고 외울 때에
잊지 말고 생각하세
일품회의 높은 사랑

서산의 민속

구불구불한 소나무와
가지 휘젓는 삿국새에
웃는 꽃이며 우는 새와
풍풍 뛰는 데니스 볼
동부공원에 육모 정자
화려하고 유수한 낙원은
동창회의 설계로다
거치른 옛 모습 다듬어서
새 기와로 꾸민 것은
문화기관에 간이도서관
질질이 쌓인 서적
신문명 받들어 개명하여
세계 진출 이룩하고
후세 영원히 행복한 사회
선배들의 바람이다.

(5) 아기 달래는 노래

I

달공달공 달공달공
서울 길로 가다가
밤 한 톨 주어서
뒤움박에 넣었더니
새앙쥐가 들락날락 다 파먹고
벌레먹이 한 톨만 남았네
가마솥에 삶을까
옹솥에다 삶을까
옹솥에다 삶지
함박으로 건질까
쪽박으로 건지지

서산의 민속

대쪽칼로 깎을까
은장도로 깎지
겉 껍질은 흰둥이네 주고
속 껍질은 검둥이네 주고
알맹이는 너하고 나하고 먹자
달공달공 달공달공

(6) 시집살이 노래

I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고
부디 부디 알려주오
동생 동생 사촌 동생
시집살이 말도 말게
다홍 치마 걸어 놓고

들어 올쩍 나갈쩍에
눈물 씻기 다 젖었네

II

꽃바구니 옆에 끼고
고추 밭에 들어 가서
늪은 고추 제쳐놓고
애동 고추 따다가서
앞 냇물에 세번 씻고
뒷 냇물에 세번 씻고
장도같은 장도 칼로
삼세번을 도려내어
오글보글 지지어서
열두 상을 벌려놓네

(7) 봉기풍어제 노래

어여디어차 어시렁 대구나
어허 어허 어이에 어어 어허 좋다
골목 골목 드러오는 조기 양수 안남기
고 다 잡어 대구나
어허 어허 어이에 어어 어허 좋다.
오동 추야 달밝은 사리 안안팍 네물되 두덩실 나뎠다
어허 어허 어이에 어어 어허 좋다.
골목 골목 드러오는 조기 우리 배 망자로 다 잡어 대고나
어허 어허 어이에 어어 어허 좋다
배 입자네 아주머니 술동이 밥동이 다 뒤집어 이고 발판머리
서 응덩춤 춘다네
어허 어허 어이에 어어 어허 좋다.

(8) 기 타

① 파랑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사 올고 간다.

② 광복군 아리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거던
광복군 갔다고 말전해 주소

서산의 민속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바다에 두둥실 떠오르는 배는
광복군 십고서 오시는 배래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요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동실령 고개서 북소리 둥둥 나더니
한양성 복판에 태극기 날리네

③ 신민요

바람이 불라면 통일 바람이 불고
풍년이 들라면 평화 풍년이 들어라

지진이 날라면 동경 대편에 나고

석유가 날라면 서산 바다에 나가라

호랑이가 떨리면 백두산까지 뛰고

봉황이 날라면 한라산까지 날아라

④ 농요

충청도라 중북승은

가지가지 열렸고

강능대 강대추는

나그대 나그대 열렸네

에-헤 에-헤 되야

상사되야

6. 점복 (占卜)



① 율점(栖占)

해마다 음력 정초(正初)에는 1년의 신수를 미리 알아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옛날부터 민간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점을 쳐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화 되었던 것이 토정비결과 율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율점은 윷을 높이 던져서 떨어진상태를 가지고 점괘(占卦)를 만드는데, 윷을 3번 던져서 첫번째 것을 상괘, 두번째 것을 중괘, 세번째 것을 하괘로 하여 각각 괘수를 정하는 것이다.

즉 도는 1, 개는 2, 걸은 3, 윷은 4(모를 4로 계산하는 지방도 있음)로 계산 한다.

괘수는 111에서 444까지 무려 64괘를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괘수를 가지고 점사(占辭)를 풀이하는데 이 점사는 이미 책에 나와있는 것이다.

즉 토정비결 책의 부록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독자들의 참고로 점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괘명)

도도도(111) 乾•아이가 어머니를 만남(兒有慈母)

도도개(112) 履•쥐가 창고로 들어감(鼠入倉中)

도도걸(113) 同人•밤에 불을 얻음(婚夜得燭)

서산의 민속

- 도도모(114) 兜妄·파리가 봄을 만남(蒼蠅遇春)
 도개도(121) 姤·큰 물이 거슬러 흐름(大水逆流)
 도개개(122) 訟·복죄중에 공을 세움(罪中入功)
 도개걸(123) 遯·나는 개미가 등불에 부딪침(飛蛾撲燈)
 도개모(124) 否·금과 쇠가 불을 만남(金鐵遇火)
 도걸도(131) 夬·학이 날개를 잃다(鶴失羽翮)
 도걸개(132) 兌·주린 자가 밥을 얻다(飢者得魚)
 도걸걸(133) 革·용이 큰 바다로 들어감(龍入大海)
 도걸모(134) 隨·거북이 죽순 속으로 들어가다(龜入筍中)
 도모도(141) 大過·나무가 뿌리가 없다(樹木無根)
 도모개(142) 困·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死者復生)
 도모걸(143) 咸·추운 자가 옷을 얻다(寒者得衣)
 도모모(144) 萃·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다(貧者得寶)
 개도도(211) 大有·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감(日入雲中)
 개도개(212) 睽·장마에 해를 본다(霖天見日)
 개도걸(213) 離·활이 화살을 잃다(弓失羽箭)
 개도모(214) 噬嗑·새가 날개가 없다(鳥無羽翰)
 개개도(221) 鼎·약한 말에 짐이 무겁다(弱馬馱重)
 개개개(222) 未濟·학이 하늘에 오르다(鶴登于天)
 개개걸(223) 旅·주린 매가 고기를 얻다(飢鷹得肉)
 개개모(224) 晉·차에 두 바퀴가 없다(車無兩輪)

- 개결도(231) 大壯·어린아이가 젖을 얻다(嬰兒得乳)
 개결개(232) 歸妹·중병에 약을 얻었다(重病得藥)
 개결결(233) 豐·나비가 꽃을 얻다(蝴蝶得花)
 개결모(234) 震·활이 살을 얻다(弓得羽箭)
 개모도(241) 恒·소객에게 배견한다(疎客拜見)
 개모개(242) 解·물고기가 물을 잃다(河魚失水)
 개모결(243) 小過·물 위에 무늬가 일어남(水上生紋)
 개모모(244) 豫·용이 뜻을 이루다(龍得如意)
 결도도(311) 小畜·큰 고기가 물에 들어가다(大魚入水)
 결도개(312) 中孚·염천에 부채를 기증하다(炎天贈扇)
 결도결(313) 家人·새매와 매가 발톱이 없다(鷙鷹無爪)
 결도모(314) 益·구슬을 강 속에 던지다(擲珠江中)
 결개도(321) 巽·용의 머리에 뿔이 생기다(龍頭生角)
 결개개(322) 渙·가난하고 천하다(貧而且賤)
 결개결(323) 漸·가난한 선비가 녹을 얻다(貧士得祿)
 결개모(324) 觀·고양이가 쥐를 만나다(猫兒得鼠)
 결결도(331) 需·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다(魚變成龍)
 결결개(332) 節·소가 풀과 콩각지를 얻다(牛得藎荳)
 결결결(333) 既濟·나무의 꽃이 열매를 이루다(樹花成實)
 결결모(334) 屯·중이 속세로 돌아가다(沙門還俗)
 결모도(341) 井·나그네가 집을 생각하다(行人思家)

서산의 민속

- 결모개(342) 坎·말에 안장과 채찍이 없다(馬無鞭策)
결모걸(343) 蹇·행인이 길을 얻다(行人得路)
결모모(344) 比·해가 풀의 이슬을 비치다(日照草露)
모도도(411) 大畜·부모가 아들을 얻다(父母得子)
모도개(412) 損·공도 없고 상도 없다(無功無賞)
모도걸(413) 賁·용이 깊은 연못에 들어가다(龍入深淵)
모도모(414) 頤·판수가 문에 다다르다(盲人直門)
모개도(421) 蠱·어둠 속에서 불을 보다(暗中見火)
모개개(422) 蒙·사람에 손팔이 없다(人無手臂)
모개걸(423) 艮·이가 대인을 만나다(利見大人)
모개모(424) 剝·각궁에 활줄이 없다(角弓無弦)
모걸도(431) 泰·귓가에서 바람이 일어나다(耳近生風)
모걸개(432) 臨·어린 아이가 보배를 얻다(釋兒得寶)
모걸걸(433) 明夷·사람을 얻었다가 다시 잃다(得人還失)
모걸모(434) 復·어지럽고 길하지 못하다(亂而不吉)
모모도(441) 升·살 일이 아득하다(生事茫然)
모모개(442) 師·고기가 낚시를 삼키다(魚吞釣鉤)
모모걸(443) 謙·나는 새가 사람을 만나다(飛鳥遇人)
모모모(444) 坤·형이 동생을 만나다(哥哥得弟)

② 토정비결

점복(占卜)

이 토정비결(土亭秘訣)이란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에 토정 이지함(土亭 李芝菴)이 지은 책을 일컫는 것이다.

이 책은 태세, 월건, 일진 등을 수리적으로 계산하여 1년의 신수를 보는데 쓰는 책으로서, 그 내용은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것이다.

여기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정 이지함에 대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토정(1517-1578)은 조선조의 선조 때 이인(異人)으로서, 어려서는 자기의 형인 이지번(李芝蕃)과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으로 부터 글을 배우고 이이(李珥)와 매우 친분이도 타웠다.

특히 토정은 제가잡술(諸家雜術)에 능통하였으며 따라서 기지와 예언 술수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리고 공직 생활로는 일찍 포천(抱川) 현감과 아산(牙山)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이 토정비결을 보는 것은 시골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 같다. 특히 음력 정초가 되면 사랑방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부녀자들이 즐겨 많이 본 것 같다.

요즘은 이같은 습속도 거의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요즘도 정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시

서산의 민속

의 거리나 혹은 시골의 장날 등에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 유료로 토정비결을 보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참고로 토정비결 보는 법을 기술한다.

첫째, 자기 연령 수에다 당년의 태세 수를 합한 수를 8로 나누고 남은 수로 상괘(上卦)를 만든다.

둘째, 자기의 생일 수에 그 달이 크면 30을 놓고, 작으면 29를 놓으며 다시 그것에 생일 월건 수를 더하여 6으로 나눈다. 이 때 남는 수로 중괘(中卦)를 만든다.

셋째, 자기의 생일 수에 즉 생일이 1일이면 1을 놓고 20일이면 20을 놓고 거기에 다시 생일 일진 수를 더하여 3으로 나눈다. 이 때 남는 수로 하괘(下卦)를 만든다.

이같이 상, 중, 하의 3괘를 합하여 하나의 괘상(卦象)을 만드는데 이것이 무려 144괘가 된다.

이 보는 방법을 간략하게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보는 공식

(나이수+태세수) ÷ 8 = 답 → 남는 수……상괘

(생일수+월건수) ÷ 6 = 답 → 남는 수……중괘

(생일수+일진수) ÷ 3 = 답 → 남는 수……하괘

위의 공식에 의해 괘 수가 「111」이 되면 그 사람의 당년의 신수는 다음과 같다.

卦象

東風解凍 小往大來 災消福來
枯木逢春 積小成大 心神自安

卦辭

月明中天 春回故國 卯月之中
天地明朗 百草回生 必生貴子
爲謀大事 若逢貴人 春雖小通
何必疑慮 身榮家安 勞力巨大

正月

春和日暖 災消福來 若非如此
鳳雛麟閣 弄璋之慶 進財添土

二月

東園桃李 身數大吉 若無財數
逢時滿發 財物自來 反爲傷心

三月

名山祈禱 所謀經營 心神無定
必有安靜 不中奈何 東奔西走

四月

서산의 민속

| | | |
|------|------|------|
| 財數平吉 | 運數亦通 | 經過山路 |
| 口舌慎之 | 諸事順成 | 前程大路 |

五月

| | | |
|------|------|------|
| 此月之數 | 莫近是非 | 他鄉客地 |
| 守口如瓶 | 不利之事 | 親友慎之 |

六月

| | | |
|------|------|------|
| 莫近女人 | 若近安氏 | 莫動出行 |
| 口舌可畏 | 不利之事 | 安分最吉 |

七月

| | | |
|------|------|-------------------|
| 桃李逢春 | 若非官祿 | 若非如此 |
| 花開成實 | 子孫有慶 | 模 _ㄹ 可畏 |

八月

| | | |
|------|------|------|
| 有形無形 | 財物自來 | 此月之數 |
| 必有虛荒 | 一身自安 | 先困後旺 |

九月

| | | |
|------|------|------|
| 歲月如流 | 莫近訟事 | 勿近金姓 |
| 財物自去 | 損財可畏 | 訟事不利 |

十月

| | | |
|------|------|------|
| 驛馬有數 | 身數不利 | 若非如此 |
| 奔走之格 | 愼之疾病 | 堂上有變 |

十一月

| | | |
|------|------|------|
| 財數不利 | 東北之方 | 在家有益 |
| 心神不安 | 不利出行 | 守分上策 |

十二月

| | | |
|------|------|------|
| 勿謀經營 | 身旺財消 | 大往小來 |
| 虛費心力 | 吉凶相半 | 反爲無用 |

(김혁제저 송정토정비결에서)

③ 보리뿌리점(麥根占)

이 보리뿌리점이란 농가에서 입춘날 아침에 밭에 나가 보리를 뽑아 그 뿌리를 살펴보고 당년의 작황을 미리 알아보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지난 해 가을철에 파종한 보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 입춘 무렵이 되면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며 싱싱하게 자라나려는 시기인 것이다.

우리의 속담에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입춘날에 보리뿌리의 자란 실태를 보고 그 해의

서산의 민속

풍흉을 미리 알아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즉 보리뿌리가 세 갈래로 번졌으면 풍년이 들고, 두 가닥이면 평년작, 그리고 한 가닥으로 뻗어 있으면 흉년이 들 조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리뿌리가 여러가닥으로 뻗었고 싱싱하면 풍년,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본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리뿌리점은 어떤 무형의 것을 일컬어 추상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는 분명히 현상적인 실증을 통하여 앞을 본 것이니 과학적인 사고로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지금은 이같은 습속도 우리의 주변에서 거의 사라진 것 같다.

④ 콩 점

이 콩점이란 달불이(月滋)라고도 하는데 농가에서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당년의 풍흉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하는 점복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수수깁을 두 쪽으로 잘 쪼개어 그 속을 콩알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오목하게 12군데를 파내는 것이다.

그다음 12개의 콩알을 수수깡의 구멍 속에 각각 넣어 월별로 표시하고 두 쪽의 수수깡을 합하여 벌어지지 않도록 노끈으로 적당히 묶은 다음 우물 속에 넣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꺼내어 콩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4월의 것이 많이 붙어 있으면 이 달에 비가 풍족히 내려 농사일에 지장이 없어 풍년이 들 것이고, 또한 비를 필요로 하는 달에 콩알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달에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콩점은 지역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는 열나흘날 저녁에 수수깡 대신에 12개의 종지같은 자근 그릇에 물을 넣고 콩을 담갔다가 대보름날 아침에 월별로 콩의 붙은 실태를 보고,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음을 미리 알아보았던 것이다.

요즘은 전천후 농사가 가능할 정도로 영농법이 발전하게 되어 이같은 농점은 거의 사라졌지만, 당시의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⑤ 삼점(麻占)

이 삼점이란 음력 2월 초하룻날 아침 집에 찾아오는 손님의 키를 보고 당년의 삼 농사가 잘되고 못됨을 미리 알아보는 점이다.

서산의 민속

농가에서는 이 삼 농사를 목화 다음으로 매우 중요시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삼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옛날부터 2월 초하룻날 키가 작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 해의 삼 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나 아이들은 남의 집 출입을 억제시켰던 것이다.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은 당년의 삼 농사가 잘될 것으로 생각하여 매우 기쁘게 맞이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키가 큰 사람이 들어오면 그 해의 삼도 크게 길게 자랄 것이요, 키 작은 사람이 들어오면 삼이 자라지 않아 당년의 삼 농사가 흉작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월 초하룻날의 남의 집 출입을 삼가하였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농가에 있어서의 삼 농사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 재배에 대해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이다.

삼은 삼 대가 길고 굵을 수록 좋은 것이며 또한 길쌈에 유익하였기 때문이다.

요즘은 삼을 재배하는 가정도 대부분 사라진 것 같다. 혹시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하더라도 삼 점을 치는 집은 없어졌으며, 오로지 과학적인 재배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삼 농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과 같이 아무 농가에서나 자유로이 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농가만이 재배할 수 있게된 것 같다.

⑥ 돌점(石占)

이 돌점이란 돌과 돌을 비벼서 돌끼리 서로 붙고 붙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점치는 것이다.

표면이 편편한 돌판에 어른 주먹만한 다른 하나의 한 쪽이 편편한 돌을 쥐고 돌판을 비비면서 병자의 완쾌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 때 주문을 윈다.

즉 병자의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부르고 주문을 외면서 병의 완쾌를 비는 것이다. 병자가 즉시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며 돌을 비비는데 돌이 착 붙으면 즉시 낫고, 붙지 않으면 다시 10일 20일 등으로 날짜를 연장하며 비벼서 완쾌일을 알아보는 것인데, 단순히 질병 뿐만 아니라 결혼시기, 운수, 득남, 출세 등등의 여부를 점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 착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붙지 않으면 효험이 없는 것이다.



점돌 (占石)

본군에서는 이 돌점으로 최근까지 널리 알려졌던 곳은 부석의 도비산록에 위치한 동절(東寺)이었다.

동절에서는 당시의 주지로 있던 이혜법(李慧法) 스님께서 1980년까지 직접 이 돌점을 쳐서 백발 백중으로 적중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병자의 치유로 유명 했었는데 혜법스님은 돌을 비빌 때 산왕대신(上王大神)을 부르며 낮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원하였다고 한다.

점복(占卜)

그러나 이 돌점은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동절에 있던 점돌(占石)은 크기가 가로 약 60센치, 세로 약 50센치의 차돌이었는데 1980년 해법스님이 입적(入寂)한 후부터 돌점도 중단되고 또한 이 점돌도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부석사 홍주사 개심사 등에서도 한 때 돌점이 유행했으나 지금은 점돌마저 없어지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해미면의 대곡리 원터에 점돌의 실물이 남아 있어 이 계통의 연구에 매우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보령군 천북면의 입구 도로변에 이같은 점돌의 실물이 남아 있어 관계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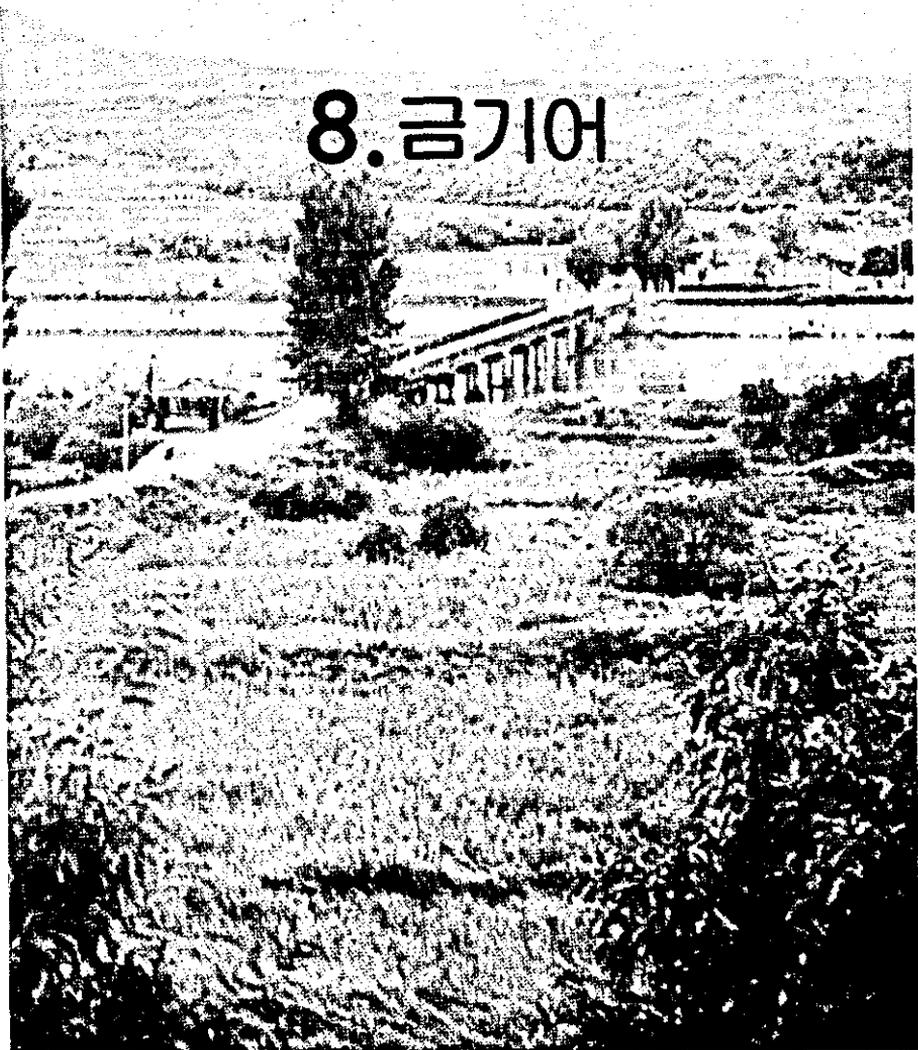


- 꿈에 쌀을 집안에 들여 놓으면 좋다.
- 꿈에 죽어보이면 명이 길다.
- 나쁜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
- 네잎크로바를 찾으려면 행운이 따른다.
- 눈썹 안에 검은점이 있는 사람은 출세한다.
- 달무리가 생기면 비가 온다.
- 베개를 낮게 베면 명이 길다.
- 돼지코를 가진 사람은 잘 산다.
- 돌날 아기가 연필을 집으면 공부를 잘한다.
- 구두 밑창에 저절로 징이 박히면 재수 있다.
- 비벼먹은 음식 그릇에 물을 먹으면 체증이 낫는다.
- 손금이 왕자(王字)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빨면 남동생을 본다.
- 아기가 투레질하면 비가 온다.
- 아침에 까치가 짖으면 기쁜 소식이 온다.
- 아침에 상어를 보면 먹을 복이 있다.
- 아침에 천정에서 거미가 내려오면 손님이 온다.
- 어린애가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면 여자동생을 본다.
- 유두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좋다.
- 이마가 넓은 사람은 마음이 넓다.
- 이사가서 팔죽을 쑤어 먹으면 부자된다.

서산의 민속

- 이사 갈 때 방문을 찢고 가면 좋다.
- 제사 지내고 음복하면 자손에게 좋다.
-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 한 집안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잘 산다.
- 환사슴을 보면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
- 간장 맛이 좋으면 집안이 잘된다.
- 겨울 날씨가 추워야 여름철에 유행병이 안생긴다.
-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 풍년 든다.
- 컷밥이 늘어진 사람은 명이 길다.
- 기침할 때 등을 때리면 멈춘다.

8. 큼기어



- 가마가 들인 사람은 두번 결혼한다.
- 가재 먹고 사탕을 먹으면 죽는다.
- 갓난아기를 보고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
- 갓맺은 열매를 향해 손가락질 하면 떨어진다.
-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이 망한다.
-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집안이 망한다.
- 과일을 여자가 먼저 따면 다음 해에 잘 열리지 않는다.
- 과일을 친신하지 않고 먹으면 다음 해는 열리지 않는다.
- 광대뼈가 나온 사람은 팔자가 드세다.
- 거꾸로 자면 불길하다.
- 겨울철에 꽃이 피면 나라가 망한다.
- 결혼 초야에는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면 안된다.
- 고양이가 관을 넘어가면 관이 일어난다.
- 고춧대를 때면 가난해진다.
- 곡식을 가지고 장난하면 가난하게 산다.
- 곱슬머리인 사람은 걱정이다.
- 궁합이 안맞으면 결혼할 수 없다.
- 귀떨어진 그릇에 음식을 먹으면 재수 없다.
- 길을 떠날 때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 길에서 빗을 주으면 재수 없다.
- 까마귀가 울면 그 마을에 초상이 난다.

서산의 민속

- 꿈에 거울이 갈라져 보이면 부부가 이별하게 된다.
- 꿈에 가마를 타면 죽는다.
- 꿈에 고운옷을 입어보면 불길하다.
- 꿈에 음식을 먹으면 감기 걸린다.
- 꿈에 신발을 잃으면 재수 없다.
- 꿈에 여자와 자면 구설을 듣는다.
- 남에게 발을 밟히면 재수 없다.
- 남에게 침뱉으면 버짐 오른다.
- 남의 자식 홍보면 자기 자식도 그렇게 닮는다.
- 남자가 바가지로 물을 먹으면 수염이 나지 않는다.
- 남자가 정월에 개고기를 먹으면 해롭다.
- 남자가 외출할 때 여자가 길을 건드면 재수 없다.
- 눈이 크면 겁이 많다.
- 눈 아래 점이 있으면 팔자가 세다.
- 달뒤에 별이 가깝게 있으면 흉년든다.
- 달이 몹시 붉으면 가문다.
- 다듬잇돌을 베고 자면 입이 뻐뿔어진다.
- 대낮에 옛날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 대문을 함부로 내면 불길 하다.
- 대밭의 대나무가 말라 죽으면 이변이 생긴다.
- 대보름날 널뛰지 않으면 발에 쯤 먹는다.

- 더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먹으면 해롭다.
- 덜마른 옷을 입으면 누명을 쓴다.
- 동지 선달에 눈이 많이 내리면 오뉴월에 비가 많이 내린다.
- 등잔불에 담배를 피우면 손자를 늦게 본다.
- 또아리를 방에 놓고 자면 딸만 낳는다.
- 땡감을 먹고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
- 마늘껍질을 태우면 집안이 가난해진다.
- 마른때를 벗기면 가난하게 산다.
- 마을에서 초상났을 때 바느질하면 해롭다.
- 말띠인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 맷돌 위에 올라 가면 곰보 신랑을 얻는다.
-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베주를 짝수로 만들면 불행해진다.
- 무덤 속에 차돌이 들어가면 자손들의 머리가 희게 된다.
- 문지방을 베고 자면 입이 비뚤어진다.
- 물건을 주었다가 빼앗으면 도리어 눈다래기가 난다.
- 물말은 밥을 국과 함께 먹으면 눈이 진무른다.
- 미인은 박명하다.
- 바늘의 실을 매듭 지어주면 저승에서 풀어달라고 한다.
- 바늘을 벽에 꽂아 놓으면 남편이 병에 걸린다.
- 박 속이 아궁이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머리에 부스럼이 생

서산의 민속

긴다.

- 박씨를 먹으면 이가 생긴다.
- 발가락을 흔들면 복이 나간다.
- 밤에 귀를 후비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 밤에 어린 아이들이 불장난하면 오줌 찐다.
- 밤에 꿈이야기를 하면 재수 없다.
- 밤에 쇧소리를 내면 귀신이 나온다.
- 밤에 거울을 보면 미움을 산다.
- 밤에 피리 불면 뱀이 들어온다.
- 밤에 베개를 세워두면 도둑이 들어온다.
- 밤에 빨래하면 가난해진다.
- 밤에 방을 쓸면 가난하게 산다.
- 밤에 여우가 울면 그 마을에 초상난다.
- 밥을 드러누어서 먹으면 소가 된다.
- 밥상을 넘어가면 해롭다.
- 밥을 베어 먹으면 좋지않다.
- 밥사발에 수저를 꽂아 놓으면 불행해진다.
- 밥사발을 포개 놓으면 부모가 돌아가신다.
- 밥을 먹다 상을 옮기면 이사한다.
- 밥먹은 자리를 비로 즉시 쓸면 복이 나간다.
- 밥먹다 손가락을 떨어뜨리면 재수 없다.

- 방 안에서 우산을 펴면 해롭다.
- 뱀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살아서 원수 갚으러 찾아온다.
- 베개 위에 올라서면 해롭다.
- 변소를 옮기면 나쁘다.
-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나쁘다.
- 비둘기를 잡아먹으면 죄 받는다.
- 빗자루(비)로 맞으면 3년간 재수 없다.
- 사람이 죽었을 때 빨래하면 나쁘다.
- 사람이 원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 눈을 감지 못한다.
- 사진 찍을 때 가운데서 찍으면 명이 짧다.
- 산소를 잘 못쓰면 자손에게 해롭다.
- 상가집에 갔던 사람이 바로 집으로 돌아오면 해롭다.
- 상여를 메고 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점점 무거워진다.
- 새벽에 엷드려 자면 복이 나간다.
-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면 재수 없다.
- 새끼를 때면 가난하게 산다.
- 새고기를 먹으면 방정을 썬다.
- 생일날 밥을 많이 주지 않으면 식복이 없다.
- 생일날 일하면 가난해진다.
-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 설달에 결혼하면 불행하다.

서산의 민속

- 손수건을 선사하면 그 사람과 이별한다.
- 손톱을 깎아 화로에 넣으면 불길해 진다.
- 손톱을 입으로 껌으면 어머니가 돌아 가신다.
- 수저를 길게 쥐면 먼곳에서 장가 든다.
- 숟가락을 던지면 빌어먹게 된다.
- 숟가락 가지고 장난하면 복이 나간다.
- 시체를 보고 장독을 열면 장맛이 변한다.
- 식물의 상순을 꺾으면 죽어서 지옥간다.
- 식사 중에 젓가락이 부러지면 재수 없다.
- 식사 중에 입 안의 음식이 보이면 복이 나간다.
- 식사할 때 그릇을 포개 놓으면 해롭다.
- 식전에 노래부르면 삼대가 거지된다.
- 신일에 간장을 담그면 맛이 없다.
- 쌀뒤주를 열어 놓으면 복이 나간다.
- 쌀자루를 베고 자면 귀먹어리가 된다.
- 쌍밤을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
- 아기 난 집에서 물건이 밖으로 나가면 산모의 젖이 마른다.
-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많이하면 흉년이 든다.
- 아침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재수 없다.
- 아침에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 없다.
- 아침밥상에 젓가락 짝이 맞지 않으면 해롭다.

- 어린애가 담배 피우면 뼈가 삭는다.
- 어린이들끼리 키를 대어보면 안큰다.
- 어깨를 짚으면 재수 없다.
- 엄지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길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 여우가 수 백년 묵으면 도술 한다.
- 여자의 소리가 밖에 나가면 집안 망한다.
- 여자가 새벽에 집안에 들어오면 재수 없다.
- 아침 일찍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 없다.
- 앞니의 새가 벌어진 사람은 재물이 새어나간다.
- 야외서 음식물을 먹을 때는 고수레 해야 한다.
- 약을 두 사람이 함께 먹으면 약효가 없다.
- 약혼한 후 구두를 사주면 결혼한 뒤 도망간다.
- 어린 아기의 기저귀를 방망이로 두들겨 빨면 아기가 보챈다.
- 여자가 휘파람을 불면 팔자가 드세다.
- 여자가 배추뿌리를 먹으면 소박 맞는다.
- 여자가 남의 집에 가서 문지방에 앉으면 그 집이 해롭다.
- 여자가 남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면 재수 없다.
- 여자가 풀숲에서 소변하면 뱀을 낳는다.
- 여우가 조상의 묘를 파면 자손에게 해롭다.
- 여행할 때 손 있는 날 떠나면 해롭다.

서산의 민속

- 열두가지 재주 가진 사람 끼니가 간 곳이 없다.
- 옷에 새똥이 떨어지면 재수 없다.
- 옷을 만들다 해를 넘기면 불길하다.
- 옷을 입은 채로 단추를 달면 도둑의 누명을 쓴다.
- 옷을 입은 채로 꿰매면 누명을 쓴다.
- 이른 봄에 먼저 흰나비를 보면 복 입는다.
- 이를 가는 사람은 팔자가 드세다.
- 이를 빼서 지붕에 던지지 않으면 새 이가 돌아나지 않는다.
- 이름을 빨간 것으로 쓰면 죽는다.
- 이불을 꺼꾸로 덮으면 해롭다.
- 이사 갈 때는 집안을 치우고 가지 않는다.
- 2월에 담근 장으론 제사를 못지낸다.
- 인중이 짧으면 명이 짧다.
- 임신 중의 여자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발이 오리같이 붙는다.
- 입을 벌리고 자면 복이 나간다.
- 왼쪽 귀가 가려우면 남이 욕하는 증거다.
- 자는 사람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 잠 잘 때 사람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면 해롭다.
- 저녁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절구통에 앉으면 재수 없다.

- 절에 갈 때는 남의 집에 들리지 않는다.
- 정월 초하룻날에 싸우면 일년 동안 싸운다.
- 정월에 초상집 가면 해롭다.
- 젓을 짜서 골뚝에 버리면 젓이 줄어든다.
- 제비를 때리면 가세가 기울어진다.
- 제사를 4년간 안지내다 다시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
- 조상의 산소에 물이 들면 재앙이 따른다.
- 지계를 방문 앞에 세워 놓으면 초상 난다.
- 책을 머리에 이면 공부 못한다.
- 책을 베고 자면 공부 못한다.
- 초하룻날 방을 털어내면 복이 나간다.
- 칼을 사람에게 겨누면 살 간다.
- 코고는 사람은 팔자가 드세다.
- 키가 크면 상겁다.
- 한 대야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세수를 하면 서로 싸우게 된다.
- 형보다 동생이 먼저 장가 들면 집이 망한다.
- 혜성이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참고 문헌

- 서산군지 : 서산군 1872
태안군지 : 태안군 1899
해미군지 : 해미군 1872
호산록 : 1619
서산군지 : 이민녕, 중앙인쇄소 1927
신간 서산군지 : 서산군 서산인쇄공사 1982
내고장 서산 : 서산군 서산인쇄공사 1982
동국세시기 : 이석호 역, 대양서적 1972
열양세시기 : 이석호 역, 대양서적 1972
경도잡지 : 이석호 역, 대양서적 1972
동경잡지 : 이석호 역, 대양서적 1972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충남편) : 문화재관리국 1975
관혼상제 : 한용득, 흥인문화사 1986
가정보감 : 조양제, 일신서적공사 1984
한국의 민속놀이 : 심우성, 대광문화사 1986
한국민요집 : 임동권, 집문당 1974
민요의 연구 : 최철외, 정음사 1984
민요기행 : 신경림, 한길사 1985
조선동요선 : 김소운, 이와나미문고 1932
조선상식문답 : 최남선, 동명사 1948
한국의 세시풍속 : 최상수, 흥인문화사 1960
한국민간 전설집 : 최상수, 동문관 1958
한국민담선 : 한상수, 정음문고 1974
한국의 지연 : 최상수, 고려서적주식회사 1958
한국의 씨름 : 김종호, 체육문화사 1973
한국 풍속지 : 양재연 외, 을유문화사 1969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 장수근, 대한기독교서회 1973
한국의 향토신앙 : 장수근, 을유문화사 1975
한국의 장승 : 이상일 외, 경학사 1977
농민의 오락 : 방중현, 성진문화사 1971
기지시 줄다리기 : 이우영, 집문당 1986
남국의 민속 : 진성기, 교학사 1977
한국민속학논고 : 임동권, 집문당 1978
한국 세시풍속 : 임동권, 서문당 1973
한국의 민속 : 김성배, 집문당 1980
조선풍속집 : 이마무라, 일본서점 1914
조선의 침복과 예언 : 무라야마, 조선총독부 1933
조선의 전설 : 도미노, 일본서점 1944
한국풍속사화 : 박용구, 을유문고 1975
한국풍속지 : 김해순, 동인문화사 1956
민속문화와 민중의식 : 심우성, 도서출판 동문선 1985

책 끝에

서산문화총서 10권 중 우선 「서산의 민속」을 집필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본래 시도한 대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독자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군이 지역적으로 광활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민속 문화의 실상을 낱알이 파악하고 이를 조사 연구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민속 문화에 대해 전공한 것도 아니요 따라서 이에 대한 조예도 없으면서 이런 막중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하나의 만용이요 또한 의도를 한 것 같아 더욱 자책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의 실상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용기를 내어 책에 담아본 것이다.

800여매의 원고를 탈고하고 나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고 따라서 문화의 실상을 모두 사진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지면의 제한과 기타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모두 부실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사계의 권위자가 출현하여 보다 알차고 완벽한 연구의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자료 수집에 협조한 이원국 학생주임과 원고 정리를 도와준 김명화 부사감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87년 2월 일

박 춘 석 씀

〈編著者 紹介〉

● 朴春錫

- 日本 早稻田大學 東洋史學科 卒業
- 日本 明治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卒業(文學碩士 取得)
-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科學研究科 修了
-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研究員 歷任
- 東京 韓國學校 教師 歷任
- 右石大學校, 仁荷大學校, 崇田大學校, 慧田專門大學 講師 歷任
- 古語體 한글石塔 發見(日本서 1970)
- 百濟阿佐太子塚 發見(日本서 1973)
- 民族代表 李鍾一先生生家 發見(瑞山서 1979)
- 「아시아에 있어서의 日本」 심포지움 참가(韓國代表로)
(日本 UNESCO 주최 1971)
- 「日本文化研究 國際會議」 參加(韓國代表로)(日本PEN클럽 주최 1972)
- 國史編纂委員會 地方史料 調査委員(現職)
- 泰安女子商業高等學校 校長(現職)
- 著書: 瑞山郡誌(新刊)
- 韓國地名賦(上·下권)
- 論文: 羅末對日關係의 一考察外 多數

서산의 민속

〈비매품〉

- 1987년 2월 20일 인쇄
- 1987년 2월 28일 발행

著 者: 朴 春 錫

發 行: 智 慧 文 化 社

〈등록번호: 가 제9-139호〉

☎ 756-1262

泰安女商郷土文化研究所

忠南瑞山郡泰安邑南門里416

電 話: 5-2536